

# 郷土史料

第三輯

社團  
法人 鳥致院文化院

## 發 刊 辭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이지는 하나 올해같이 民族史의 서술에 대하여 문제가 많았던 해는 없었고 특히 百濟史의 復元에 대하여 그 緊急性이 강조된 해는 없었다.

그러면 어찌하여 이와같은 문제들이 거의 年例行事같이 되풀이 되면서도 해결은커녕 별다른 진전도 없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첫째로 믿을 수 있는 史料의 零細性을 들어야하겠지만 그나마 그 零細한 史料조차 제대로 操作할 수 있는 本格的인 史家가 드물기 때문일 것이니 이래저래 문제는 심각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 鳥致院文化院을 필경 燕岐郡의 지난 歷史를 옮겨 復元함으로서 百濟史의 復元이라는 커다란 과제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깨닫고 應分の 努力을 기우려 왔으니「郷土史料」제 I, II 集이 그 成果일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 余勢를 몰아「郷土史料」제III集으로서 百濟史의 復元을 위하여 가장 重要한 基本問題에 관한 몇가지 論考들을 묶어보기도 하였다. 이 事業을 위하여 오랜 歲月을 걸러서 애써 論考를 作成해주신 金在鵬 先生과 企劃을 맡아서 수고해주신 鄭興錫 事務長에게 각별히 謝意를 표하는 바이다.

1986年 11月 日

鳥致院文化院長 李 基 鳳

## 序 文

百濟史研究은 근래에 많은 進展을 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進展을 보았다는 것은 主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客觀적으로 退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히 念慮되는 百濟史研究의 現況이다.

百濟史에서 初期의 王都 位置問題로서 京畿道の 廣州냐? 忠淸南道の 稷山이냐? 하는 問題가 있다. 그뿐 아니라 最後의 王都 즉 豐王의 王都로서 周留城의 位置가 全羅北道 扶安이냐? 錦江下流의 舒川이냐?의 問題가 있다. 그리고 扶安도 아니고 舒川도 아닌 旣處일 것이라는 意見도 있다.

이와같이 百濟史研究은 아직도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줄도 모르는 研究가 됐지만 最近에는 稷山에서 山城을 發見하고 이것을 調査한 어느 大學校의 調査團은 이 山城을 辰國의 月支國 山城이라고 발표하였다.

결국 稷山에서 發見된 山城을 百濟時代의 山城이 아니라 月支國의 山城이라고 發表한 이 大學校의 調査團의 發表에서 百濟研究에 관한 전체적인 研究가 얼마나 落後되었는가를 알 수 있을뿐 아니라 百濟史研究은 學問으로서 基礎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史學界의 어느 大家가 稷山の 慰禮城은 僞傳이며 稷山은 月支國일 것이라고 推測하였다. 이 大家의 이와같은 推測이 學界에 그대로 通用되고 있을 뿐 아니라 各級學校 教科書에도 그대로 게재되어 있는 것을 본다. 물론 그 大學校의 調査團이 稷山에서 發見된 山城을

月支國의 山城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 大家의 이와같은 推測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稷山의 慰禮城은 이 大家가 주장하듯이 僞傳이며, 필경 稷山이 百濟國의 王都였다는 傳承은 稷山이 月支國의 王都였다는 사실에 대한 訛傳일까?

이와같은 百濟史의 基本問題는 되풀이 檢討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이와같은 百濟史의 基本問題에 대한 소위 大家의 주장이 있고 推測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도대체 어째서 稷山의 慰禮城이 僞傳이며 어째서 稷山이 百濟의 舊王都가 아니라 月支國의 王都란 말인가?

또한 百濟最後의 王都로서 周留城의 位置에 대하여서도 이 大家의 見解가 그대로 通用되어 錦江下流의 舒川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百濟史에 관한 卍 問題는 말고 우선 基本問題로서 百濟初期의 王都의 問題, 그리고 最後의 王都의 問題로서 周留城에 관한 問題를 集中的으로 취급해 보기로 하였다. 물론 周留城의 位置問題는 燕岐郡으로서 直接的인 郷土史의 問題로서 취급하고 稷山의 慰禮城에 관한 問題는 燕岐郡으로서 隣接한 곳인만치 間接的인 郷土史의 問題로서 취급한 것이다. 그리고 그 出發로서 百濟建國說話에 관하여 새로 檢討한 결과를 수록하였다. 江湖諸賢의 叱正과 高評을 바라는 바이다.

1986 年            11 月            日

金 在 鵬



I

百濟建國說話의 研究



## 머 리 말

百濟建國에 관한 이제까지의 研究는 그 數에 있어서 적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제까지의 그와 같은 研究에 의하여 밝혀진 것이 內容에 있어서 많은 것 같이는 않다.

李丙燾博士는 일찍이 그의 「韓國史」(古代篇)에 「百濟의 興起와 馬韓의 變遷」을 실었고 李弘植博士는 그의 「韓國古代史의 研究」에 「百濟建國說話에 대한 再檢討」를 실었다. 그리하여 각각 百濟建國에 대하여 論하였다.

그러나 滿足할만치 밝혀진 것이 있는 것 같이가 않다. 여기서 이 問題에 대한 管見을 말하고자 하는데 그 方法에 있어서 既佳의 研究와 사뭇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즉 說話自體를 두적거리서 史實을 導出하려는 方法대신 史實을 根據로 하고 그 史實에 대한 後代의 說話的 解釋으로서 說話의 成立을 보고자 하는 方法이다.

說話自體를 아무리 뒤적여 보아도 說話로 머무를 뿐 그것으로 확실한 歷史的 事實이 밝혀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제까지의 先學들의 研究結果로서 알 수 있듯이 混亂만을 加重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方法을 달리한 것이다.

### 1

北史百濟博과 翰苑括地志등에 전하는 「百濟八族」중의 하나인 百濟豪族 「解氏」에 대하여 三國史記는 百濟의 「王戚」이었다고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腆支王二年秋九月. 以解忠爲達宰. 漢城租一千石.

三年春二月．拜庶弟余信爲內臣佐平．  
解須爲內法佐平．解丘爲兵官佐平．皆王戚也．

위의 記事에 보이는「庶弟余信」은 腆支王의 庶弟인 余信이니 王姓扶余氏의 出身이다．따라서「余信」은 분명히 王家의 親戚 즉「王戚」이다．

그러나 余氏인 余信만이 아니라「解氏」인 解須와 解丘 또한 王戚이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였을까?

위의 記事에서 內臣佐平이 된 余信도 內法佐平이 된 解須도 兵官佐平이 된 解丘도 모두가 王戚 즉 王家의 親戚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요컨대 解氏는 百濟八姓중의 하나로서 實左했던 바가 확실하고 實在했던 解氏는 王戚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와같은「解氏」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분명히 밝혀진 후에야 비로소 問題가 많은 다음과 같은 百濟建國說話에 대한 재檢討의 길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ㄱ) 濫祚王 시조 설화의 줄거리는 그 아버지를 고구려의 시조 朱蒙이라하여 朱蒙이 北扶余에서 卒本扶餘로 南下하였을 때에 여기 부여왕에는 아들이 없고 딸만 셋이 있었는데 朱蒙의 비상함을 보고 둘째 딸과 혼인을 시키고 드디어 부여왕의 뒤를 이어 고구려를 세우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맏이를 沸流 둘째를 濫祚라 하였다．그런데 후에 朱蒙이 북부여에 있을 때의 소생이 와서 태자가 되었기 때문에 두 형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여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것이다．

(ㄴ) 그런데 시조를 沸流로 삼은 別傳은 이것과 상당히 다른 설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주의할만하다．즉 시조 沸流의 아버지는 優台이며 그는 北扶余王 解夫妻의 庶孫이고 그 어머니는 卒本扶余人의 延陀勃의 딸인 召西奴 이며 優台에 시집가서 두 아들을 낳았

는데 말이가 비류요 아우가 溫祚라 한다. 그런데 優台가 죽고 召西奴는 卒本에서 홀로 살고 있었는데 후에 주몽이 부여 (즉 북부여)에서 배겨내지 못하여 前漢建昭 2年(B.C 37)봄 2월에 남쪽 卒本 夫余로 내려와서 도읍을 세우고 高句麗라고 이름하고 召西奴를 맞아 妃로 삼았다. 그는 주몽이 나라의 터를 닦고 새로이 일을 시작할 때에 매우 內助의 功이 있어서 주몽을 특히 사랑하고 후히 대접하고 비류들을 자기 아들같이 대우하였으나 주몽이 北扶余에서 禮氏라는 부인한테서 낳은 儒留가 오매 이를 태자로 세우게 되니 비류는 아우 溫祚와 의논하여 결국 자기 생모를 모시고 무리를 거느려서 남쪽 溟川·帶水를 건너서 彌鄒忽에 이르러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ㄱ) 百濟始祖溫祚王 其父鄒牟 或云朱蒙 自北扶余逃避 至卒本 夫余 扶余王無子只有三女子 見朱蒙知非常人 以第三女妻 或 之未幾扶余王薨 朱蒙嗣位 生二子 長曰沸流 次曰溫祚 娶 云朱蒙娶卒本 及朱蒙在北扶余 所生子來爲太子 沸流溫祚恐爲 越郡女生二子

太子所不容遂與烏干等十臣南行 百姓從之者多遂至漢山 登 負兒獄 望可居之地 沸流欲居於海濱 十臣諫曰 惟此河南之 地 北帶漢水 東據高岳 南望沃澤 西阻大海 其天險地利 難得之勢 作都於斯 不亦宜乎 沸流不聽 分其民 歸彌鄒 忽以居之 溫祚都河南慰禮城 以十臣爲補翼 國號十濟 是 前漢成帝鴻嘉三年也 沸流以彌鄒土濕水?? 不得安居 歸見 慰禮都邑鼎定 人民安泰 遂慙 而死 其臣民皆歸於慰禮 後以來時百姓樂從政號百濟 其世系與高句麗同出扶余 故以 扶余爲氏

(ㄴ) 一云始祖沸流王 其父優台 北扶余解夫婁庶孫 母召西奴 卒本人延陁勃之女 始歸于優台 生子二人 長曰沸流 次曰 溫祚 優台死 寡居于卒本 後朱蒙不容於扶余 以前漢建

二年春二月 南奔至卒本 立都 高句麗 娶召西奴爲妃 其於開基創業 頗有內助 故朱蒙寵接之特厚 待沸流等如己子 及朱蒙在扶余所生禮氏子孺留來 立之爲太子 以至嗣位 焉 於是沸流謂弟溫祚曰 始大王避扶余之難 逃歸至此 我母氏傾家財成邦業 其勤勞多矣及大王厭世 國家屬於孺留 吾等從在此 鬱鬱如疣贅 不如奉母氏南遊卜地 別立國都 遂與弟率黨類 渡溟帶二水 至彌鄒忽居之

즉 說話 (ㄱ)에서 「百濟始祖溫祚王. 其父鄒牟. 或云朱蒙. ……」 이라고 전한 側은 「故號百濟. 其世系與高句麗同出扶余. 故以扶余爲氏」라고 한 바와 같이 王姓扶余氏側의 傳承이며 說話(ㄴ)은 「一云始祖沸流王. 其父優台. 北扶余解夫妻庶孫. 母召西奴. 卒本人延陁勃之女. 始歸于優台. 生子二人. 長曰沸流. 次曰溫祚. ……」 라고 傳하였으니 이것은 王戚인 解氏側의 說話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 說話에 있어서 解氏는 解氏인 北扶余王解扶妻를 始祖라고 하기 때 문이다.

다음에 王姓扶余氏側에서는 溫祚王은 河南慰禮城에 都邑하여 크게 번영한 반면 沸流는 彌鄒忽에 都邑하였다고 전하였다. 그런데 「彌鄒忽이 토지가 습하고 물맛이 짜서 편히 살 수 없어 돌아와 慰禮城을 보니 도읍이 자리잡히고 백성이 안락하므로 드디어 뉘우침 끝에 죽으니 그 백성이 다 慰禮城으로 돌아오고 말았다」고 하여 沸流의 彌鄒忽이 일찍 멸망하였다고 전한 것이다.

그러면 沸流 즉 溫祚의 兄인 「解沸流」의 解氏는 일찍이 멸망하고 만 것일까?

그러나 王姓扶余氏側의 傳承에서 어떻게 주장하던 이 兄弟는 溟帶二水を 건너서 南來한 以末 歷史時代인 近肖古王代까지의 일로서 扶余氏는 伯濟國( = 稷山 )을 領城으로 했고, 解氏는 漢山( = 漢城 )을 領城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理由는 國號 「百濟」

의 起源은 魏志馬韓傳이 전하고 있는 五十余國중의 一國인 「伯濟國」에 있고 「伯濟國」은 忠淸道의 稷山이기는 해도 京畿道漢山 (=廣州)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분명한 歷史時代인 腆支王元年條의 記事에 「…… 漢城人解忠」이라고 전하기 때문이다.

즉 「漢城人解忠」이라고 전하는 記事는 대단히 重大한 記事이니 이것은 「漢城人解忠」의 뜻이며 다시 이것으로서 解氏는 代代로 「漢城」 즉 「漢山」을 本貫으로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처음부터 王姓扶余氏의 本貫領域이 三國史記百濟本紀가 전하듯이 漢山이었다면 始祖條前文에서 「溫祚都河南慰禮城」이라 하고 다시 始祖十三年에 「予昨巡觀漢水之南. 土壤건?? .. 宜都於彼. 以圖久安之計. 秋七月. 就漢山下立柵. 移慰禮城民戶」등등으로 모순되고 애매한 것을 말할 必要가 없었을 것이다.

그뿐이 아니라 始祖十三年七月以來로 王都가 漢山에 있었다면 분명한 歷史時代인 近肖古王二十六年 (三七一年) 겨울에 近肖古王이 「移都漢山」- 즉 漢山으로 移都할 수 있었을까? 결국 近肖古王이 三七一年 겨울에 漢山으로 移都했다는 것은 그때까지의 王都가 漢山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近肖古王二十六年. 高句麗舉兵來. 王聞之. 伏兵於湏河上. 俟其至急擊之. 高句麗兵敗北. 冬. 王與太子帥精兵三萬. 侵高句麗. 攻平壤城. 麗王斯由力戰拒之. 中流矢死. 王引軍退. 移都漢山

이것을 反對로 近肖古王은 三七一年의 겨울에 漢山에 移都하였다. 그리고 溫祚王도 그의 十三年 七月에 漢山으로 移都하였다. 그뿐 아니라 溫祚王은 始祖條前文에서도 河南慰禮城에 定都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 河南慰禮城은 具禮的으로 漢山以外的 어느 慰禮城을 意味하는 것일까?

요컨대 漢山이 溫祚王以來의 王都였다는 王姓扶余氏側의 主張은 모순된 것으로서 믿을 수 없지만 그와같이 된 것은 三七一年의 겨울

울에 近肖古王이 漢山으로 移都하기 까지는 王姓扶余氏의 領域은 漢山이 아니라 稷山이며 漢山은 實際에 있어서 解氏 즉 解沸流側의 領域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거늘 漢山을 溫祚王南來以來의 王姓扶余氏의 領域같이 서술하여 전하기 위하여 극단적으로 曲筆한 結果로서 빚어진 이와 같은 모순일 것이다.

## 2

說話(ㄱ)에 의하면 「朱蒙嗣位. 生二子. 長曰沸流. 次曰溫祚」라고 하였다. 따라서 說話(ㄱ) 대로라면 沸流와 溫祚의 兄弟는 당연히 姓으로서 「高氏」를 稱했어야 할 것이다. 高句麗本紀始祖條 前文에 「始祖東明聖王. 姓高氏. 諱朱蒙」이라고 한 바와 같이 朱蒙의 姓은 「高氏」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沸流는 물론 溫祚도 「高氏」를 稱하지는 않았다. 특히 說話(ㄱ)에서는 그 出身에 관하여 「그 世系 高句麗와 같이 扶余에서 났음으로 扶余를 姓으로 한다」고 한 程度이기 때문에 그 姓도 生父라는 朱蒙을 따라 「高氏」를 稱할만 했던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說話(ㄴ)에 전하는 바가 훨씬 合理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沸流가 北扶余王解扶婁의 庶孫優台를 生父로 하기 때문에 姓으로서 「解氏」를 稱함은 당연한 일이며, 卒本扶余가 그들의 出生地일뿐 아니라 朱蒙이 卒本扶余에 와서 과부였던 西召奴를 얻고 그 內助에 의하여 高句麗를 세운 것이라고 하였으니 朱蒙과의 血緣關係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說話(ㄴ)에 관한 한 沸流와 溫祚의 兄弟는 北夫余王解夫婁의 系統이며 卒本扶余가 그들의 出生地였다. 그러나 朱蒙과 孺留 때문에 卒本扶余를 버리고 生母인 西召奴를 모시고 무리를 이끌고 南來하였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歷史的으로는 어떻게 理解하여야 할

것인가?

高句麗本紀始祖條 前文에 서술되어 있는대로 우선 朱蒙은 卒本扶余에서 高句麗를 建國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朱蒙은 「卒本川」에 이르러서 高句麗를 建國한 것이라고 하며 또한 卒本扶余에 이르러 卒本扶余王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卒本扶余王의 딸을 얻고 卒本扶余王이 죽은 後에 朱蒙이 王位를 이었다고 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을 歴史的으로 보면 卒本扶余에는 朱蒙이 卒本扶余로 들어오기전부터 卒本扶余國이 있어서 北扶余王解夫婁系統의 王朝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하여 沸流와 溫祚의 兄弟는 解氏王朝의 出身으로서 결국 朱蒙과 孺留의 父子 때문에 卒本扶余의 解氏王朝는 滅亡하고 沸流와 溫祚의 兄弟는 西召奴를 모시고 무리를 이끌고 南來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高句麗世系의 특수한 점으로서 高句麗世系에 있어서 始祖王朱蒙과 二代王孺留는 분명히 高氏의 王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四代제인 太祖大王도 또한 高氏의 王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高句麗本紀第二에 일괄하여 나와 있는 三代제인 大武神王과 四代제인 閔中王, 그리고 五代제인 慕本王까지의 三位는 高氏王이 아니라 解氏王으로 보아야 할 것은 아닐까? 大武神王은 大解朱留王. 閔中王은 解色朱. 慕本王은 解憂(一元解愛婁)라고 하여 거의 분명히 이 三位가 解氏임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萬世一系의 思想에 의하여 大武神王을 孺留王의 第三子라 하고 閔中王을 大武神王의 弟라 하고 慕本王을 大武神王의 元子라고 하였지만 大武神王을 大解朱留王이라고 하여 解氏를 稱한 만치 이 三位는 高氏를 稱하는 朱蒙-孺留와는 別系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또한 慕本王이 暴逆하였기 때문에 杜魯에게 殺害되어 孺留王子古鄒加再思之子라고 하는 太祖大王이 王統을 이은 것이라고 하지만

太祖大王은 慕本王과는 別系이며 분명히 朱蒙－孺留의 系統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즉 卒本扶余에는 다음과 같은 두系統이 있어서 解氏系統이 本源的인 勢力이며 高氏系統은 後來의 勢力이었다. 물론 沸流와 溫祚의 兄弟는 解氏인 大解朱留王－閔中王－慕本王的 系統이며 朱蒙－孺留－太祖大王的 系統은 아니었다.

(大武神王) (閔中王) (慕本王)

大解朱留王 — 解色王 — 解憂王 …… 解氏

朱蒙 — 孺留 — 太祖大王 …… 高氏

高句麗本紀始祖条前文에 傳하는 傳承에 있어서 天帝子解慕漱는 朱蒙의 父系이며 河伯女柳花는 母系이다. 그리고 扶余王解夫妻는 東海之濱 迦葉原으로 避國하여 東扶余라고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朱蒙의 父系가 天帝子解慕漱였다면 朱蒙 역시 姓으로서 「解氏」를 稱하였을 것이다. 결국 이와같은 것은 後世에 高句麗王朝에서 王姓高氏의 出身家門을 수식하기 위한 作爲일 뿐 朱蒙이 解慕漱의 系統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解慕漱는 扶余王解夫妻의 祖上神으로서 朱蒙系統의 祖上神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와같은 傳承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은 扶余王解夫妻의 系統이 本來扶余에 있었고 또하나의 系統은 東海之濱의 東扶余方面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卒本扶余의 解夫妻의 系統은 後來의 朱蒙의 勢力에 구축되어 百濟에 옮기고 한편 東海之濱의 解夫妻의 系統도 또한 後日에 高句麗勢力의 侵入 때문에 南의 新羅로 옮겨다가 다시 바다 건너 日本의 出雲地方으로 옮겨가서 天孫을 稱하고 「해모수－해무수」의 後孫을 稱한 出雲族을 생각할 수 있다.

朱蒙의 系統에게는 朱蒙이 과연 天帝子解慕漱의 系統이었다면 解慕漱의 「解」를 따서 그들의 姓으로 稱하는 편이 政治社會的으로 有利했을 것이다. 따라서 朱蒙系統의 姓이 「解氏」가 아니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朱蒙이 解慕漱의 系統이 아니었음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引用했던 傳承에 있어서 扶余王 金蛙의 出身說話에는 적잖이 이상한 것이 있다. 金蛙와 扶余王解夫婁의 사이에는 血緣關係가 없고 따라서 天帝子解慕漱와의 系統關係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대신 北扶余에서 朱蒙은 天帝子解慕漱의 子이며 따라서 朱蒙은 「天孫」일 뿐 아니라 母系로서 河伯女柳氏가 卵生한 「성왕」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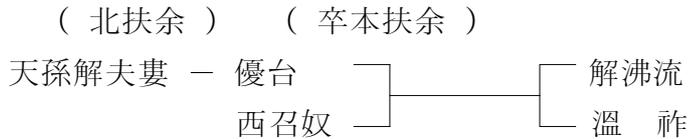
그러나 「天孫」이며 「聖王」인 朱蒙이 北扶余에서 쫓기어 卒本扶余로 와서 立國하였다고 전하고 있지만 卒本扶余에는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解夫婁系統의 解氏王朝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高句麗 本紀第二에 일괄되어 나타난 大武神王－閔中王－慕本王등의 解氏王이다. 이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百濟本紀始祖條前文의 說話(ㄴ)에서 본 바와 같은 「北扶余王解夫婁의 庶孫인 優台」등으로서 시사되는 바이다. 물론 大武神王－閔中王－慕本王이라고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朱蒙이 卒本扶余로 온 당시 卒本扶余에는 이와 같은 王朝가 있었고 그 王朝에서는 王을 「優台」 즉 「윗치」로 稱하였던 段階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요컨대 解氏의 姓을 갖지 않은 朱蒙이 天帝子解慕漱의 子이며 天孫이었다는 說話에는 이와같이 後代의 造作이라고 할만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扶余의 俗語로 善射를 <朱蒙>이라고 한다」는 說明이 三國史記에는 보이지만 「朱蒙」이라는 말은 아마도 北方語로서 「万」을 意味하고 「王將」을 意味한 Tu-mon이며 朱蒙은 外來者로서 北扶余로 들어왔다가 北扶余에서 쫓기어 다시 卒本扶余로 들어온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卒本扶余의 支配勢力이었던 解氏勢를 구축하여 支配權을 장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出身으로서 北扶余의 解夫婁王과의 關係가 있을 턱이 없고 따라서 解夫婁의 祖上神으로서의 天帝子解慕漱와의 關連이 있을 까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까지 檢討한 바 解氏에 관한 事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天帝 解 — 天帝子解慕漱 — 天孫解夫妻 …… 北扶余



( 大武神王 )    ( 閔中王 )    ( 慕本王 )

大解朱留王 — 解色朱王 — 解憂王 …… 卒本扶余

결국 卒本扶余에서 高句麗를 세운 朱蒙系統에서는 北扶余王 解夫妻의 系統인 卒本扶余의 解氏王朝를 구축하였을 뿐 아니라 그 世系까지 빼앗은 셈이지만 결국 百濟의 解沸流側에서는 그 傳承으로서 이와같은 事實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히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溫祚側에서는 그 傳承으로서 後世의 政治的인 影響을 받아 심하게 歪曲한 것으로 보인다.

「解氏」의 「해」(해)는 「日」「太陽」을 意味하는 「해」이며 「夫妻」또는 「沸流」는 「火」를 意味하고 「明」을 意味한 「불」 또는 「비·리」의 뜻으로도 보인다. 그리고 「天帝子解慕漱」의 「慕漱」는 「모수」로서 그 原語는 意外로 < Maha Suriya >가 아닌가도 싶다. 그렇다면 결국 「巨大한 太陽」이라는 뜻이 된다. 또한 「解朱留」의 「朱留」역시 그 原語는 < suriya > 즉 太陽의 뜻이 아닌가 싶다.

요컨대 沸流·溫祚의 兄弟는 三國遺事卷二 南扶余條에 「其世系與高句麗同出扶余 故以解爲氏. 後至聖王. 移都而泗泚. 今扶余郡 (彌鄒忽 仁州. 慰禮 今稷(山)也)」라고 한 바와 같이 扶余系統의 解氏의 出身이었던 것이다.

#### 4

魏志韓傳 馬韓條에 五十余國의 名稱을 전하는데 그중에 伯濟國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그 伯濟國이 馬韓五十余國중에서 특히 強大했던 것과 같이 記錄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卒本扶余에서 南來한 沸流와 溫祚의 系統이 漢山과 稷山을 각각 根據로 한 것은 생각할 수 있지만 자상한 것은 알 수가 없다. 물론 三國史記는 南來한 이래로 溫祚가 漢江流域의 江北에서 建國하고 다시 江南으로 移都한 것 같이 전하고 있지만 이와같은 기록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漢江流域의 漢山方面은 沸流系統인 解氏의 本貫으로 보아야 하고 扶余氏의 本貫은 百濟 즉 伯濟=稷山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沸流와 溫祚의 두 系統중에서 먼저 頭角을 나타내어 百濟國을 建國한 것은 溫祚系統의 近肖古王으로서 近肖古王은 주로 다음과 같이 百濟豪族인 眞氏와 姻戚關係를 맺고 二部禮制를 취함으로써 頭角을 나타낼 수 있었고 百濟國을 建國할 수 있었던 것 같다.

眞忠 : 古爾王 7年 4月 左將 內外兵馬事를 委任 同王 14년에는 右輔가 됨

眞勿 : 古爾王 14年 2月 眞忠에 代置하여 右將任命

眞可 : 古爾王 28年 2月 內頭佐平

眞義 : 比流王 30年 7月 內臣佐平

眞淨 : 近肖古王 2年正月 拜眞淨爲朝廷佐平 淨은 王后의 親戚

眞高道 : 近仇首王 2년 以王舅眞高道爲 內臣佐平 委以政事

眞式 : 河莘王 2년 左將으로 兵馬事를 委任

眞氏는 李弘植博士가 밝히듯이 王室의 外戚으로서 이상과 같이 眞氏를 열거해 본 결과로 느껴지는 바는 近肖古王代의 眞淨이 王后의 親戚이라는 것, 또 다음의 近肖古王代의 眞高道가 王 (府院君 : 王

의 장인 )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그 一門의 존재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것은 이 兩王代부터 百濟가 確實한 歷史代대로 일반이 믿고 있는 점과 결부되어 더욱 우리로 하여금 眞氏의 勢力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

결국 古爾王 以後 특히 實在가 確實한 近肖古王以後 그 進出이 현저했던 眞氏가 高句麗의 廣開土王에 의한 南下攻擊이 있었고 그리고 404년의 帶方界에서의 戰役이 있었던 이후에는 百濟本紀에서 사라진다. 阿莘王 6년條의 「以眞武爲兵官佐平」이라는 記事를 마지막으로 하여 腆支 · 久爾辛 · 毗有 · 蓋鹵의 諸王紀에 眞氏가 보이지 않는다.

한편 腆支王二年條의 「解忠을 達率로 하고 漢城의 租一千石을 賜하다」라는 記事를 시작으로 三年條 「解須를 內法佐平으로 하고 解丘를 兵官佐平으로 하다.모두가 王의 親戚이다」 毗有王四年條 「上佐平인 余信이 卒하다. 解須를 上佐平으로 하다」등등으로 眞氏에 대신한 解氏의 登場이 確實히 注目되는 것이다.

三國史記가 전하는 古爾王이후 특히 近肖古王 이후의 眞氏의 活躍과 腆支王 이후에는 眞氏와 交替한 解氏의 活躍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問題가 있지만 그 交替의 시기가 廣開土大王의 南下攻擊이 치열하던 腆支王代였음에 특히 注目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眞氏가 百濟本紀에 다시 登場하게 되는 것은 漢山王都의 長壽王에 의한 陷落과 蓋鹵王의 被殺·文周王이 熊津으로 南來하면서부터 三斤王과 東城王代에 있어서의 그 活躍이 顯著할 뿐 아니라 解氏와의 알록이 심했던 것이다. 즉 熊津王都時代는 眞氏와 解氏가 다음과 같이 서로 대립하여 싸운 時代였다.

즉 文周王二年에 兵官佐平이 되었던 解仇에 대하여 「擅權亂法」하고 「無君之心」이 있었다고 전했을 뿐 아니라 解仇가 刺客을 시켜서 文周王을 殺害하였다고 전하였다. 그리고 다음의 三斤王代에는 佐平解仇에게 軍國政事의 一切을 委任하게 되었다고 전하고 二年에는 解仇가 燕信과 함께 大豆城을 根據로 해서 叛亂을 일으켰다고 전하였다. 이 叛亂은 佐平인 眞男이 쳐서 실패하고 德率인 眞老

가 精兵五百을 가지고 처서 解仇를 격살하고 燕信은 高句麗로 달아남으로서 수습되었다. 그리하여 眞氏의 勢力에 의하여 解氏의 勢力은 구축되고 東城王四年에는 眞老가 兵官佐平이 되어 知内外 兵馬事를 겸하였다.

결국 近肖古王 ( 346~375 )代부터 高句麗의 廣開土王의 南下攻擊이 있었던 阿莘王 ( 392~405 )代까지는 眞氏의 勢力이 絶大 하였고 阿莘王 다음의 腆支王 ( 405~420 )代부터 蓋鹵王을 거쳐서 文周王 (474~477 )代까지는 解氏의 勢力이 絶大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文周王即位年인 475년부터 東城王 即位年인 479년까지는 眞氏와 解氏의 각축시대로 볼 수 있고 東城王代( 479~501 )까지는 解氏를 멸망시킨 眞氏의 勢力이 다시 強大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을 알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三三三三 四七八九 六五五二	四四四四 〇二二七 五〇七五	四四四 七七七 五七九	五五 〇二 一三
(1)	(2) 眞	(3)	(4) 解
近近辰河 肖仇斯莘 古首王王 王王	腆久毗蓋 支爾有鹵 王辛王王 王	文三東 周斤城 王王王	武聖 寧 王王
卽卽卽卽 位位位位	卽卽卽卽 位位位位	卽卽卽 位位位	卽卽 位位
眞氏의 登場	解氏의 登場	眞氏와 解氏의 각축	



## Ⅱ

### 百濟舊都稷山考



## 머 리 말

近肖古王에 의한 三七一年 겨울에 있었던 移都는 漢山(今廣州)으로의 移都였음이 明白하다. 그러나 近肖古王의 舊都에 대하여는 아직도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것은 百濟史의 가장 중요한 基本問題의 하나로서 百濟史의 初章이며 避해서 갈 수 없는 關門이다. 그리하여 舊都의 位置를 어디에 比定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의 百濟史에 대한 觀點이 적잖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筆者는 이 小篇에서 近肖古王의 舊都는 稷山이며 三七一年의 移都는 稷山에서 漢山으로의 移都였음을 明白히 하였다. 즉 이 移都는 稷山에서 漢山으로의 전진적인 移都였을 뿐 아니라 百濟로서 漢山流域으로의 劃期的이며 本格的인 進出을 意味한 移都였다.

또한 百濟의 舊都를 稷山으로 인정함으로써 國號百濟의 起源이 魏志 馬韓傳에 傳하는 伯濟國에 있었다는 說을 뒷받침할 수 있을뿐 아니라 伯濟國이 稷山·安城方面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었다.

결국 濫祚王이 河南慰禮城에 定都하였다가 同十四년에 河南으로 移都하였다는 것은 史實과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그런대로 그 意義에 대하여서는 單 問題로서 檢討하여야 할 것이다. 本稿에서는 그러한 問題에 깊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대강만은 적어 두었다.

( 1 )

故今西竜博士가 그의 論文「百濟國都漢山考」<sup>(1)</sup>에서 近肖古王에 의한 三七一年의 移都는 漢山(廣州)으로의 移都였다는 것을 확실히 밝히고 난 후 영언 七〇年の 세월이 흘렀다.

博士는 近肖古王에 의한 新都는 漢山이었음이 확실하지만 舊都에 대하여서는 「吾人は 近肖古王의 舊都는 未詳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며 앞서의 論文의 끝을 맺었다.

그후에도 博士는 그의 「百濟略史」<sup>(2)</sup>에서 다시 百濟國都의 問題를 들고나와서 三國史記에는 近肖古王의 移都를 北漢이라고 하였으나 本人은 1912年頃에 이 舊說에 誤謬를 發見하고 百濟의 近肖古王 以後의 國都도 北漢이 아니라 南漢이었음을 論證하였다. 이 說은 지금에 와서 學界에 異義가 없다고 하며 계속해서 舊都의 問題에 대하여서는 「그러나 나는 그 당시는 당초 百濟가 建國한 곳은 稷山이었다고 論하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 稷山說에 疑問이 생겼다. 百濟는 당초부터 南漢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河南慰禮城도 南漢이며 近肖古王의 漢山도 南漢으로서 단지 王의 居城이 南漢의 範圍內에서 移動한데 불과하다. 百濟라는 名稱은 南漢에 붙은 地名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百濟舊都의 問題는 가장 중요한 百濟史의 基本問題의 하나로서 百濟史의 初章부터 避해서 갈 수 없는 關門이 된다. 博士는 다시 그의 「百濟史講話」<sup>(3)</sup>에서 세 번째로 이 問題를 들고 나왔다.

…이와같이 馬韓五十余國중에 伯濟라는 一國이 있었으며 第三世紀中葉頃의 中國人의 記錄에 의하면 당시의 百濟는 馬韓內의 一國으로서 특별히 強大한 것 같지는 않다. 伯濟는 즉 百濟로서 伯과 百은 音이 같고 文子가 다를 뿐이다. 三國中에서 百濟가 馬韓의 域內에서 興起하였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 이 伯濟는 三國中에서 百濟와 連結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 다음에 地理上의 問題로 옮기는데 百濟라는 稱呼가 由來한 最初의 百濟의 땅은 어디였을까? 三國史記에 의하면 百濟는 먼저 河南慰禮에 定都하였다가

얼마 안가서 漢水南으로 옮기고 近肖古王의 二十六年에는 國都를 漢山에 옮겼다고 하고 慰禮城의 땅에 대하여서는 未詳이라고 하였다. 慰禮城의 땅이 百濟의 國名이 由來하기는 最初의 根據地였나 아니었나는 研究의 余地가 充分히 있지만 거기를 最初의 根據地 였다고 하고 三國遺事에는 그 땅을 稷山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說의 出典은 알 수 가 없다.

한편으로는 金馬山 즉 益山이라는 說도 있다 ( 三國史記 卷五十 甄萱傳 ).

그러나 여기에도 理由가 있는 것은 아니다.

從來의 史家들은 慰禮( 最初의 根據地로서 ) 즉 稷山說을 取하고 다음에 옮긴 漢水南을 지금의 廣州라 하고 近肖古王이 移都한 漢山을 北漢 즉 지금의 서울方面이라고 하였다. 三國史記에서 이미 漢山을 漢江北 즉 北漢說을 取하고 있지만 나는 1912年頃 이 舊說에 誤謬있음을 發見하고 近肖古王 以後의 王都漢山도 南漢이었음을 論證하였지만 이에 대하여서는 아직껏 學界에 異論이 없다. 나는 그 때에는 最初의 國名이 由來한 곳이 稷山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이 생각에는 지금에와서는 疑問이 생겼다. 扶余族이 馬韓에 옮겨와서 一定한 根據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나 또는 얼마안가서 다시 딴 곳으로 옮겼나는 別問題로 치고 百濟가 그 國號를 定하기까지는 여러 地方을 거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며 稷山 또한 거처간 곳으로 보아도 좋겠지만 그러나 百濟의 國號를 取한 곳이 稷山이었나는 다시 研究를 하지 않고는 斷言할 수 없다. …… 大原利武씨는 百濟의 國號는 漢山 즉 廣州에서 由來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나 또한 이說에 기우러지기는 하지만 아직 이것을 確說이라고 하기에는 이르지 않았다. 지금으로서는 近肖古王 以前의 百濟의 根據地에 대하여는 아직도 研究중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帶方에 가까운 馬韓의 北邊이라고는 믿고 있다.

以上 引用한 바로서 확실히 알 수 있듯이 今西博士는 國號百濟의 起源이 馬韓一國의 伯濟國일 것이라고 하였지만 近肖古王의 舊都의 問題에 대하여서는 漢山の 範圍內를 생각했다가는 稷山을 생각하는

등으로 決論을 얻지 못하고 課題로 남긴채 早逝하였다. 그러나 이 問題에 관한한 뒤에서 확실해 지겠지만 意外로 오늘날에도 博士의 研究程度를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해묵은 이 問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여야 할 것인가?

註

- (1) 「史學雜誌」第二十三編 第一號 (1912年 1月)  
所載·「百濟史研究」所收
- (2) 「朝鮮及滿洲」(1929年 6月)「百濟史研究」所收
- (3) 「文教の朝鮮」(1930年 6月)「百濟史研究」所收

## ( 2 )

國號「百濟」의 起源에 대하여서는 魏志가 傳하는 馬韓五十余國 중의 一國인 伯濟國일 것이라는 今西博士 以來의 意見이 널리 行하여지고 있지만 百濟의 起源이 되었다는 伯濟國의 實際上的 位置에 대하여는 아직 一致된 意見이 없는 것 같다.<sup>(1)</sup>

李丙燾博士도 이 點 河北의 慰禮城은 扶余族 南下以來 오랫동안 基礎를 쌓았던 곳으로 필경 그 곳을 中心으로 하여 一國을 열어 당시의 國號는 그 地名에 의하여 慰禮라고 하였지만 河南伯濟의 땅으로 옮기면서 國號를 百濟로 改稱하였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下南伯濟가 漢山 즉 廣州라고 하였다.<sup>(2)</sup>

그러나 國號百濟가 伯濟에 起源하였다는 것은 여하간, 伯濟가 漢山(廣州)이라는 大原利武씨 以來의 說은 그것을 뒷받칠만한 河等の 證據가 없으니<sup>(3)</sup>역시 推定說에 不過할 것이며 특히 前提를 百濟가 伯濟에 起源한 것이며 漢山으로의 移都를 三國史記가 傳하듯이 三七一年 겨울에 있었던 일이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檢討에 의하여 伯濟가 漢山(廣州)이 아니라는 바가 거의 確實하게 들어난다.

百濟라는 國號가 外國의 史書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晉書簡安帝紀, 咸安二年(三七二年) 春正月辛丑의 「百濟·林邑王各遣使貢方物」 및 同年六月 「遣使拜百濟王余旬 爲鎮東將軍領樂浪太守」이다. 百濟의 使臣이 처음으로 晉都에 到着한 것은 三七二年의 正月이다.

즉 近肖古王이 漢山에 移都한 것은 三七一年 冬이며 百濟의 使臣이 晉都인 建康(지금의 江蘇省江寧府)에 到着한 것은 三七二年 正月이다. 百濟의 使臣이 百濟를 出發한 것은 그 前年 즉 三七一年의 夏節이나 秋節初였을 것이다.

要컨대 百濟의 使臣은 三七一年 冬에 있었던 漢山으로의 移都以前에 百濟를 出發한 셈이 된다. 이런 것은 앞서와 같이 前提를 百濟가 伯濟에 起源한 것으로 보고 三七一年 冬의 移都를 舊都에서 新都漢山으로의 移都라고 볼 때 韓山伯濟說이 成立하기 어렵다는 것을 意味한다.

한편 漢山으로의 移都가 있었던 三七一年의 三年前인 泰和四年 즉 泰和四年(三六九年)五月에 製作된 日本石上神官所藏의 七支刀 銘文<sup>(4)</sup>에 분명히 「百濊」의 國號를 볼 수 있다. 七支刀 銘文의 百濊를 百濟와 關聯 있다고 보고 銘文의 泰和四年 五月을 三六九年 五月로 볼 때 漢山으로 移都한 三年前부터 이미 國號로서 百濊 즉 百濟가 있는 셈이 된다.

이와같은 것은 百濟를 伯濟에 起源한 것으로 보고 그리고 三七一年의 移都를 舊都에서 新都漢山으로 移都한 것이라고 할 때 河南伯濟의 땅으로 옮겨서 國號를 百濟로 改稱한 것이라는 소위 韓山伯濟說이 成立하기 어렵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러면 伯濟는 具禮的으로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伯濟는 우선 大元利武씨나 李丙燾博士가 주장하였지만 漢山 즉 廣州는 아닌 것 같다. 그것은 以上の 檢討에 의하여 거의 確實하다.. 결국 漢山 以外の 땅을 伯濟의 位置로 比定하여야 하겠는데 伯濟란 역시 稷山·安城方面은 아니었을까?

### 註

(1) 李弘植「百濟建國說話에 關한 再檢討」

(「韓國古代史의 研究」所收) 參照

李弘植博士는 河南伯濟說을 다음과 같이 批判하였다. 즉 河南·漢城에 그곳의 古名이 伯濟였기 때문에 國號도 百濟로 하였다는 說도 事實上 何等의 根據가 없다. …… 慶州의 地가 古傳에도 徐羅代( 徐耶代 )이었다는 明徵이 있지만 廣州地方이 「백제」였다는 古傳이 없으니 그렇게 斷定할 수 없다. ……

(2) 李丙燾「韓國史」古代篇 三五三~四頁 參照

(3) 漢江의 北과 南인 漢陽郡과 漢山郡에 伯濟에 對應되는 古代名이 없었다. 이것이 伯濟漢山說의 致命的인 欠陷이다. 三國史記 地理二 漢州上下 參照. 本論文 (五) 章 參照

(4) 藤間生大「倭の五王」( 岩波新書 ) 127頁 및 109頁 參照.

七支刀銘文에 關하여 敷衍하면 「泰和四年五月十六日丙午正陽造」의 泰和四年은 太和四年 즉 369年이라고 인정 받고 있으며 「百濊王世子奇生聖音」은 百濟近仇首王과 太子인 近肖古王으로 인정되고 있다. 즉 369年에에 만든 七支刀의 銘文에 「百濊」의 國號가 있는 것은 漢山으로의 移都가 있었던 371年以前부터 國號로서 이미 百濊 즉 百濟가 있었다는 것을 意味한다.

### ( 3 )

李朝初期 - 朝鮮朝 初期의 地理志로서 권위있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은 溫祚王이 처음으로 慰禮城을 쌓고 王都로 한 곳이 稷山이었다고 傳하고 있다.

稷山縣 [ 建置沿革 ] 本慰禮城. 百濟溫祚王. 自卒本扶余. 南奔開國. 建都于此. 後高句麗取之. 爲蛇山城. 新羅因之元元( 卷十六 稷山縣)

高句麗 時代의 蛇山城은 統一新羅時代의 稷山城을 意味한다.

한편 高麗時代 中期의 三國遺事에도 「慰禮는 지금의 稷山이다」라고 註記하였고 正德本三國遺事王歷에는 분명하게 「溫祚王. 東明王第三子或第二. 癸卯立. 在位四十五. 都尼禮城. 一云. 蚶川. 今稷山」이라고 傳하고 있다.

要컨대 稷山이 慰禮城이며 溫祚王이 卒本扶余에서 南來하여 처음으로 王都로 한 곳이 慰禮城 즉 稷山の 땅이었다고 遺事와 輿地勝覽은 傳하고 있다.

물론 溫祚王이라던가 卒本扶余라는 것은 後日의 附會로 보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遺事와 輿地勝覽이 傳하는 이와같은 記事를 稷山이 初期王都였다는 예부터의 史實을 傳하는 것으로 볼 때 당면한 問題로서 伯濟라는 地名과 확실히 關聯이 있어보이는 稷山과 같은 方面의 安城郡의 統一新羅時代의 古地名인 白城郡 - 赤城縣 - 陽城縣 - 沙伏忽등이 注目된다.

白城郡. 本高句麗奈兮忽. 今安城郡. 領縣二. 赤城縣. 本高句麗沙伏忽. 景德王改名. 今陽城縣. 蛇山縣. 本高句麗縣. 景德王因之. 今稷山縣( 三國史記 地理二 漢州 )

安城郡은 古地名으로서 白城郡의 稱呼를 가지며 領縣으로서 赤城縣과 稷山縣을 가졌었다. 그리고 稷山縣에 대하여서는 初期의 百濟王都였다고 遺事와 輿地勝覽은 傳할 뿐 아니라 뒤에서 자세히 밝히겠지만 稷山縣에는 당시의 遺蹟이라는 慰禮城址와 蛇山城址등을 가지고 있다.

즉 安城郡의 古地名—白城郡의 白城은 「百濟」로 還元할 수 있는 呼稱을 뿐 아니라 高句麗領有時代의 古地名으로 傳하는 沙伏忽의 伏忽도 伏城으로 바뀌어서 「伏濟」 즉 「百濟」로 還元할 수 있는 地名일 것이다. 「城」의 訓은 「재」이며 高句麗地名語尾의 「忽」은 「성」( 城 )이기 때문이다. 또한 赤城縣·陽城縣이라는 名稱에서 「赤城」「陽城」이라는 것도 各 「붉재」「벗재」—즉 「百濟」로 還元할 수 있을 것이다.

伯(백) — 百(백) — 白(백)  
濟(제) — 濊(자)·濟(제) — 城 ( 재(訓))

이와같은 記名을 歷史的으로 따지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 (1) 伯濟( 백제 ) … 三世紀頃에 魏志에 썼다
- (2) 百濊( 백자 ) … 三六九年에 百濟에서 썼다
- (3) 百濟( 백제 ) … 三七一年에 百濟에서 썼다
- (4) 伏忽( 복홀 ) … 五世紀頃 新羅에서 썼다
- (5) 白城( 백성 ) … 八世紀頃 新羅에서 썼다

결국 安城·稷山方面의 原古地名—「백제」에 대한 三世紀頃의 中國人에 의한 忠實한 寫音으로서 魏志의 伯濟가 있었고 이어서 四世紀頃의 百濟人에 의한 寫音으로서 百濊와 百濟가 있었고 五世紀頃의 高句麗人의 表記로서 (沙) 伏忽이 있었고 八世紀頃의 新羅人에 의한 表記로서 白城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伯—百—白으로 表記된 「백」(paek)은 peki 로서 北方語로 「王將」을 意味한

말이며, 「제」(Je)는 「재」(Jae)로서 「城」을 의미한 말이었을 것이다.

#### ( 4 )

稷山은 東南方에 솟은 聖居山의 雄岳을 등으로 하고 西北에 成歡·平澤의 平野를 두고 牙山灣에 臨하고 있다. 그리고 聖居山과 安城方面에서 發하는 여러 갈래의 물이 이 平野에 集中되어 西로 흘러서 牙山灣으로 빠진다. 이것이 安城川이며 옛날에는 폭이 넓어서 成歡 東쪽까지 船舶의 출입이 自由로웠다고 한다.

要컨대 舊伯濟國의 範圍였다고 생각되는 安城川 流域의 稷山·成歡·平澤·安城의 땅은 그 自體 漢江부터 南으로 馬行一日의 距離에 位置한 樞要之地이다. 이곳을 中心으로 하면 牙山方面이 西部가 되고 熊津方面은 南部가 되고 漢江邊의 廣州는 北部에 해당된다.

또한 이곳은 北의 廣州方面에서 熊津을 거쳐 湖南地方으로 가는 交通의 要衝이며, 稷山－鎭川－槐山－馬嶺을 거쳐 洛東江上流로 나가 嶺南地方으로 가는 交通의 要衝이었다.

이와같이 安城·稷山の 땅은 馬韓의 北邊으로서 漢江流域으로부터 馬行一日의 距離에 位置한 樞要之地이다. 이와같은 點으로 보아서도 安城·稷山の 땅 — 즉 白城의 땅이 魏志가 傳하는 伯濟國이며 다시 近肖古王이 初期에 根據로 했던 곳이 이와같은 安城·稷山の 땅에 틀림없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近肖古王代까지에는 그 傳統的 根據地였던 伯濟의 地名— 즉 「백제」라는 地名에 「百濊」또는 「百濟」라는 文字를 골라서 國號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三六九年頃 「百濊」로도 表記되었던 國號는 三七一年頃에는 「百濟」로 表記되어 中國側史書에도 傳하여졌지만 「濟」라는 文字는 濟濟多士라던가 道濟天下의 例와 같이 賢者가 많다는 뜻이 있는 것이니 「百濟」라는 文字로 表記된 國號는 中國에 내어놓아

도 훌륭한 國號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伯濟國은 말할 나위도 없이 馬韓에 屬한 一國이며 伯濟國을 基盤으로 百濟國이 建國된 것이기 때문에 周書등의 中國側史書에 「百濟者 其先 馬韓之屬國」등으로 傳하여진 것으로 보인다.

要컨대 輿地勝覽과 遺事가 傳하는 慰禮城 卽稷山이라는 記事는 充分히 檢討에 견딜 뿐 아니라 國號百濟가 伯濟에 起源하였다는 說이 充分히 成立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安城·稷山·成歡·平澤一帶의 特色있는 地理에 대하여는 李丙燾博士 上揭書 226 ~ 7頁 參照

## ( 5 )

앞서 言及한 바 있지만 稷山에는 다음과 같이 百濟始祖王 溫祚의 慰禮城으로 傳하는 百濟時代의 城址가 남아 있다.

(1) 慰禮城 慰禮城은 稷山舊邑에서 東方二十里의 聖居山에 있다. 그리고 이 聖居山과 慰禮城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은 傳承이 있다.

<聖居山> 이 山은 稷山舊邑에서 東便二十里에 있다. 高麗太祖가 縣西에 있었던 愁歇院에서 休息하였을적에 東便山上에 五色雲이 있음을 보고 神이 있음을 알고 祭祀를 올리는 동시에 山名도 聖居山이라 하였다 하며 李太祖와 世宗大王도 溫陽溫泉에 가실 때에 또한 祭祀를 올렸다는 것이다.

<慰禮城> 이 聖居山이 北으로 뻗친 現笠陽面虎堂里에는 慰禮城이라고 부르는 山城이 있는데 이 城이 百濟始祖 溫祚의 慰禮城이라는 것이나 史學界에서는 그것을 믿지 않는 城址

나 參考삼아 記錄한다. ( 忠南道誌( 一九六五年刊 ) 第一編 名勝古跡篇 )

稷山舊邑에서 東方二十里는 安城邑에서 西三十里의 距離이다. 또 한 여기에 「史學界에서는 그것을 믿지 않는 城址」라는 뜻은 먼저 李丙燾博士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뜻일 것이다.<sup>(1)</sup> 輿地勝覽은 이 慰禮城의 規模를 [周一六九〇尺 高八尺 井一] 이라고 傳하였다.

(2) 蛇山城 稷山舊邑의 東五里에 있으며 그 規模를 輿地勝覽은 [周二九四八尺 高十三尺 池一] 이라고 傳하고 있다.

한편 百濟의 古山城의 規模로서 周 三〇〇〇尺인 이 蛇山城을 公州의 公山城의 規模 [周四八五〇尺 高十尺 井三 池一] 와 比較하면 蛇山城이 훨씬 작은점이 注目될 것이다.

(3) 黑城山城 輿地勝覽은 그 規模를 [周二二九〇尺 高六尺 池一] 이라고 傳하는 山城으로서 稷山舊邑에서 南十里에 있다.

이와같은 稷山方面의 諸城은 百濟時代에 修築된 것으로 規模는 大禮로 二〇〇〇尺을 넘는다. 또한 百濟時代의 것으로 傳하는 古城址로서 慰禮城과 같은 方面에 聖居山城이 있고 蛇山城址와 같은 方面에 龍化山土城이 있다. 要컨대 稷山方面에는 慰禮城과 蛇山城을 中心으로 하여 聖居山城·黑城山城·龍化山城등의 五城이 配置되어 있다. 그리고 忠南道誌 名勝古蹟篇에는 溫祚王廟와 濟源樓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傳하고 있다.

▲ 溫祚王廟 ( 稷山面 ) 溫祚王廟는 舊稷山에서 東北三里에 있고 李朝世祖가 同王三十一年에 始立하여 以降 春秋에 香祝을 보내어 致祭하였던 것이나 其後 情勢가 변동되어 自然消滅하게 되어서 지금은 그 廟址조차 아는 人士가 없다.

稷山溫祚廟의 始立年代는 輿地勝覽에 의하면 世祖十一年이며 그 溫祚廟는 宣祖代의 壬辰倭亂에 燒失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增補文獻備考 禮考篇에 의하면 廣州에 있었던 南漢山城의 溫祚廟는 稷山 溫祚廟를 移建한 것이라고 한다.

#### ▲ 濟源樓 ( 稷山面 )

元來 濟源樓가 客舍東北에 있었던 것이나 現在는 그 樓址조차 不明하고 다만 徐居正의 詩序가 있을 뿐이다. 濟源樓의 由來를 徐居正이 解明한 詩序로써 그 解說은 다음과 같다.

百濟溫祚王이 처음으로 都城을 定한 곳이 世傳에 稷山이라 하여서 本人도 疑心하였던 바 三國史節要를 撰述할 적에 歷考諸書하는 中에 稷山이 百濟始都가 疑心할 余地가 없다는 것이다.

現代 우리나라 史學界에서는 百濟始祖 溫祚王의 都邑인 慰禮城이 廣州 二聖山城인 것이 認定되어 있음으로<sup>(2)</sup> 再論의 余地가 없음을 強調하여 둔다.

이와같은 溫祚王廟라든가 濟源樓등과 함께 遺事 또는 輿地勝覽의 記事에 의하여 高麗朝는 勿論 朝鮮朝初·中期까지도 慰禮城 즉 稷山이라는 것을 널리 알고 있었던 것이다. 즉 「稷山이 百濟始都였음을 疑心할 余地가 없다」는 三國史節要의 撰者 徐居正의 말은 充分히 尊重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濟源樓라는 樓名은 「百濟의 始源을 記念하기 위한 樓閣」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이와같이 徐居正의 「百濟始都로서의 稷山慰禮城」을 否定하기에는 너무도 肯定的인 條件들이 具備되어 있다.

李丙燾博士는 聖居山の 慰禮城과 稷山舊邑의 蛇山城에 대하여 「聖居山에는 僞傳 慰禮城의 古城址가 있고 稷山舊邑에는 「蛇山城」의 遺蹟이 있으나, 이들은 다 三國時代 혹은 羅末·麗初의 所築에 係한 듯할 뿐더러 確實히 亂時所用의 山城이요, 平時常居의 都城이 아니므로 지금 考慮하는 對象이 되지 아니한다」<sup>(3)</sup>고 하였지만 遺

事와 輿地勝覽은 이런것이 濫祚時代의 것이라하고 濫祚時代의 慰禮城이라고 傳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의 濫祚時代는 早期의 百濟時代라는 뜻일 것이다. 또한 稷山의 慰禮城과 蛇山城은 亂時所用의 山城으로서 平時常用의 居城일 수 없다고 하였지만 公州의 公山城과 廣州의 南漢山城도 亂時商容의 山城으로서 平時常用의 居城일수 없는 것이다. 어느 경우에도 王宮은 이러한 山城下에 位置하여 있었을 것이다.

李丙燾博士는 稷山은 所謂 辰國의 辰王都라는 月支國으로서 百濟의 舊都가 아니었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伯濟國은 漢山の 땅으로서 伯濟國은 辰韓所屬이며 馬韓所屬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魏志는 분명히 馬韓의 一國으로서 伯濟國을 列舉하였지만 辰韓의 一國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따라서 馬韓의 一國인 伯濟國은 馬韓의 땅인 稷山일 수는 있지만 馬韓의 땅이 아니라는 辰國의 月支國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博士께서는 百濟王都가 河北慰禮城에서 河南漢山으로 移都하였다고 하고 그 移都가 있었던 것을 百濟本紀에 責稽·汾西二王의 殺害凶變에 관한 記事가 보이는 直後一比流王元年(三〇四年)이나 또는 그 다음해(三〇五年)일 것이라고 하여<sup>(4)</sup> 近肖古王 二十六年의 移都에 관한 記事를 默殺하였다.

博士의 이와같은 主張에 대하여서는 李弘稷博士의 批判이 있지만 그것은 여하간 比流王紀에 보이지 않는 移都를 河北慰禮로부터 河南漢山으로의 移都라고 主張하면서 近肖古王紀에 볼 수 있는 漢山으로의 移都에 관한 記事를 默殺한 理由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李丙燾博士는 이와같은 質問에 답하듯이 最近의 論文 「近肖古王拓境考」(「百濟研究」創刊號 忠南大學校 一九七〇年 十月)에서「... 이와같은 戰果를 올린 近肖古王은 군사를 이끌고 돌아와 首都를 漢山下에서 漢山(南漢山城)으로 옮기었다. 아마 高句麗의 報復的인 侵入을 두려워 함에서가 아니었든가 의심한다. 종래의 史書에는 이 漢山을 北漢山으로 잘못 認識하여 北漢城에 遷都한양 紀錄하였으나 그것을 是正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近肖古王 二十六

年條의 「移都漢山」이라고 明記된 記事를 漢山下에서 漢山—즉 漢山上에 있었던 南漢山城으로의 移都라고 하였다. 그러나 「移都漢山」의 漢山の 경우, 그리고 一般的으로 漢山이라고 하는 경우, 王官이 있었던 漢山下와 王官의 守城으로서의 漢山上의 山城을 포함한 漢山을 意味하는 것이지 王官이 있었을 漢山下를 제외한 漢山上의 山城만을 意味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漢山下의 王官에서 漢山上으로 옮긴 것이라면 舊都에서 新都로의 「移都」가 아니라 王의 一時的인 「出御」이며 기껏해야 一時的인 王의 「播遷」이 될 것이다. 要컨대 이때는 「出御漢山」이나 「播遷漢山」이 아니라 「移都漢山」인 것이다.

그뿐 아니라 近肖古王의 百濟軍은 二十四年에는 雉壤에서 高句麗軍을 무찌르고 다시 二十六年에는 高句麗軍을 무찌르며 平壤城을 攻擊하여 高句麗의 故國原王이 戰死한 大勝利를 걷우고 돌아왔는데 그와같은 大勝利를 걷우고 돌아온 近肖古王이 高句麗의 報復的侵入을 두려워해서 漢山上으로 「移都」했겠는가? 그대신 百濟는 學國的으로 大勝利를 祝賀하였을 것이며 高句麗는 敗戰의 收拾과 戰死한 國王의 國葬準備에 바빴을 것이다. 그것도 平壤城에서 戰死한 王의 屍體를 鴨綠江 건너 輯安의 國內城에 옮겨다가 치러야할 國葬이었으며 高句麗로서 피맛힌 이 敗戰에서 臥薪嘗膽으로 回復하여 漢江以北의 諸城을 收復한 것은 그로부터 二〇余年後인 廣開土王代가 돼서였다.

要컨대 近肖古王 二十六年에 明記된 「移都漢山」의 記事는 「移都」라고 한 이상 그것은 舊都에서 新都로의 「移都」이어야할 것이다. 그렇다면 漢山下의 舊都에서 漢山上의 新都로 「移都」했다 서야 말이 되겠는가? 또한 그런 경우라면 漢山下의 舊官에서 漢山上의 新官으로의 「遷官」이 될 것이다.

要컨대 「出御」도 아니고 「播遷」도 아니고 「遷官」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高句麗軍에 대하여 大勝利를 걷음으로서 實現할 수 있었던 舊都에서 新都漢山으로의 「移都漢山」이였을 것이다.

한편 博士께서는 高麗史地理志 · 世宗實錄地理志 · 東國輿地勝覽廣

州条에 廣州의 別號( = 別稱 )은 「淮安」이며 廣州故老의 傳說이라고 하여 옛날의 「淮安國王의 所都地」였다고 傳하는 바로서 「淮安國王」이란 衛滿에 쫓겨서 南下한 箕準王이었을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그리고 淮安( 회안 )이란 韓( 한 )이며 다시 이것은 漢山の 漢( 한 )으로서 결국 淮安王이란 韓王이며 具禮的으로는 基準王이라고 하였다.<sup>(5)</sup>

여기에서 博士의 이와같은 說을 檢討할 필요는 없지만 廣州의 古名이 漢山이며 別稱으로서 「淮安」이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즉 廣州의 古名과 別稱이 伯濟가 어디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廣州가 伯濟가 아니었으며 慰禮城도 漢山에 있기 前에 稷山에 있었다.

그리고 漢山の 北과 南의 漢陽郡과 韓山郡에는 古來로 다음과 같이 伯濟에 對應한다고 볼 수 있는 古地名이 없었다. 이것이 또한 伯濟漢山說의 致命的인 欠陷일 것이다.

漢陽郡 本高句麗北漢山郡<sup>一云平壤</sup>. 眞興王爲州. 置軍圭. 景德王改名. 今楊州舊墟. 領縣二. 豐壤縣. 本高句麗骨衣奴縣. 景德王改名. 今豐壤縣. 遇王縣. 本高句麗皆伯縣. 景德王改名, 今幸州( 三國史記 地理二漢州 下 )

漢州. 本高句麗韓山郡. 新羅取之. 景德王改名爲漢州. 今廣州. 領縣二. 黃武縣. 本高句麗南川縣. 新羅并之. 眞興王爲圭. 景德王改名. 今利川郡. 巨杰縣. 本高句麗駒城縣. 景德王改名. 今龍駒縣( 三國史記 地理二 漢州 上 )

稷山の 周1690尺高8尺인 慰禮城址와 周2948尺 高13尺의 蛇山城址는 百濟初期의 가장 貴重한 文化財일 것이다. 그 規模로 보아서 早期에 있어 百濟王官의 聖居山の 慰禮城下에서 稷山舊邑의 蛇山城下로 옮김도 생각할 수 있는 잉르일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百濟城郭의 가장 오래된 基本形式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李丙燾博士에 의하여 僞傳慰禮城으로 決定되어 그 「僞傳」이 上揭

忠淸南道誌의 경우와 같이 博士의 追從者들에 의하여 定說로서 信奉되어 결국 이러한 慰禮城址와 蛇山城址는 文化財로서 調査되고 保護받을 機會를 잃고 荒廢와 破壞에 내맡겨지고 있다.

#### 註

- (1) 이 忠淸南道誌는 上卷四六判 1071頁 下卷四六判 1005頁의 尨大한 것으로서 歷史篇의 上古史를 李丙燾博士.法制史를 洪淳鉦 教授. 名所古蹟을 洪思俊씨가 執筆한 것인데 三執筆者가 모두 稷山慰禮城이 僞傳이라고 強調하였다.
- (2) 前扶余博物館長이며 百濟研究의 專家인 洪思俊씨의 稷山慰禮城에 대한 이와같은 發言과 強調의 影響은 深刻하다. 그러나 稷山慰禮城에 대한 李丙燾博士의 僞傳說이 지금으로서 確証 없는 稠雜한 斷定이라면 洪氏의 發言과 強調도 充分한 檢証을 거친 慎重한 發言이나 強調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李丙燾博士의 粗雜한 斷定에 대한 단순한 物理的인 共鳴일 것이다. 이와같은 斷定과 共鳴 때문에 稷山慰禮城으로 하여금 文化財로 相當히 評價되고 保護 받을 수 있는 機會를 喪失케하였으니 이와같은 斷定과 共鳴에 何等의 根據가 없음을 筆者는 強調하는 바이다.
- (3) 上掲書 266 頁
- (4) 上掲書 255 ~ 6 頁 參照
- (5) 上掲書 271 頁

( 6 )

三七一年 冬의 平壤城攻擊에서 돌아오면서 近肖古王에 의하여 決行된 漢山으로의 移都는 百濟國으로서 漢山流域으로의 劃期的인 移都이며 前進的인 移都였을 것이다.

이 移都는 漢江流域은 물론 적어도 漢江以北의 帶方故地 중에서 臨津·禮成江 以北의 線까지의 占據가 軍事的으로 確實히 保障되지 못하거나 또한 確實히 保障할 自信이 없는 限 百濟로서 섯빨리 決行할 수 없었던 移都였을 것이다. 그것은 그 後의 漢山王都를 넘보는 高句麗의 激烈했던 南下攻擊과 이에 대한 百濟의 抗爭을 보아서도 充分히 알 수 있는 일이다.

樂浪·帶方の 二郡은 百濟에 의하여 滅亡된 것이 아니라 高句麗에 의하여 滅亡되었다. 百濟는 三六九年 秋에 있었던 雉壤에서의 大勝利만이 아니라 三七一年 冬의 平壤城攻擊에 있어서의 空前의 大勝리를 건움으로서 비로소 漢山으로의 移都가 實現되었던 것이다.

즉 三六九年의 雉壤에서 大勝리를 거두었던 경우는 河南의 地에서 黃色의 旗幟를 使用해서 大閱을 行하였을 뿐 移都는 實現되지 않았다. 물론 帶方故地의 大部分을 占據한 三六九年의 雉壤에서 大勝리를 契機로 하여 河南( 漢山 )으로의 移都가 計劃되고 준비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移都를 實現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三七一年의 平壤城攻擊에서 거둔 大勝利였을 것이다.

要컨대 所謂 「定說」이라는 것, 「史學界」라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定說」과 「史學界」를 생으로 삼킨 現地의 忠淸南道誌이지만, 앞서 檢討했던 遺事와 輿地勝覽 稷山條의 記事 그리고 現地의 遺蹟 및 傳承과 徐居正의 濟源樓詩序에 틀림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결국 近肖古王 二十六年條의 「移都漢山」의 記事와 矛盾될뿐 아니라 相互가 矛盾되는 百濟本紀劈頭 始祖條前文의 「溫祚都河南慰禮城」이라는 記事와 同 十四年에는 「漢水之南」으로 遷都하였다

는 記事는 史實이 아니라는 말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記事들은 後代의 編史에 있어서의 無意識的인 錯誤에 의한 것이었을까 ?

그렇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漢江流域이 溫祚王 當初부터 百濟王都였다는 主張을 內容으로 한 이와같은 記事들은 遺事와 輿地勝覽이 傳하는 바와는 全然 달라서 또한 當時的 記錄인 魏志馬韓傳의 記事와 全然 달라서 아마도 蓋鹵王代에 高句麗에 빼앗겼던 漢江流域을 聖王代에 一時 奪還하였다가 곧 新羅에게 빼앗기고 다시 新羅로부터 奪還코자 애쓴 百濟末期에 있어서의 百濟로서의 國家的理念의 表出이며 潛在的 主權에 대한 주장같이도 보인다. 즉 이와같은 記事는 錯誤에 의한 것이 아니라 意識的인 것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溫祚王에 의한 河南慰禮의 定都라는 것이 漢江流域에 대한 百濟의 國家的理念의 表出이며 潛在的 主權의 主張이라면 溫祚의 兄이었다는 沸流의 彌鄒忽開國說話는 다시 仁川·南陽灣 方面에 대한 百濟國家로서의 理念의 表出이며 潛在的主權의 主張같이도 보인다.

聖明王以後 漢江流域과 仁川·南陽灣( 黨項城 ) 方面의 奪還을 위한 百濟의 新羅에 대한 挑戰이 新羅와 高句麗에서만 問題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멀리 唐朝에서도 問題가 되었던 당시, 스스로의 움직임에 대한 歷史的 根據 또는 名分論敵 根據로 내세우기 위하여 百濟로 하여금 이러한 歷史를 쓰게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리하여 百濟가 伯濟國에서 發祥한 것이라는 歷史대신 十齊國에서 百濟國이 되었다는 歷史를 쓰게 하고 百濟舊都로서의 稷山慰禮城과 蛇山城에 대한 歷史는 完全히 埋沒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 結果로 高麗朝에 된 三國史記地理志의 百濟國都에 關한 敘述에서는 「溫祚王의 河北에서 定都했다가 同王 十四年에 河南漢山으로 移都하고 近肖古王은 同王 二十六年에 舊都漢山에서 新都北漢山으로 移都했다」고 傳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按古典記東明王溫祚以前韓鴻嘉三年癸卯自卒本扶余至慰禮城立者稱王歷三百八十九年至十三世近肖古王取高句麗南平壤都漢城歷一百五

年至二十二世文周王移都熊川

그러나 近肖古王이 移都한 漢山은 北漢山이 아니라 南漢山— 즉 漢山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百濟의 王都가 近肖古王 以後에도 北漢山에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을 精緻하게 論証한 論文이 今西龍博士의 「百濟國都漢山考」이다. 따라서 近肖古王의 新都가 北漢山이 아니라 南漢山— 즉 漢山이 確實하다면 舊都는 어디였다가 반듯이 問題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新都가 분명히 漢山이라면 舊都는 분명히 漢山이 아닌 곳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漢山下에서 漢山上으로 「移都」한 것이 아니라 舊都稷山에서 新都漢山으로 「移都」한 것이다.

따라서 風納里土城 등 漢江流域에 있는 百濟時代의 遺蹟들은 百濟國初의 것이 아니라 英傑인 近肖古王이 漢江流域으로 發展하고 다시 江北을 멀리 帶方故地인 新溪方面까지 確保하면서 마련한 防衛施設로서 그 年代를 369年頃으로 보고 再檢討하여야 할 것이다.



### Ⅲ

## 燕 岐 周 留 城 考 證



## 머 리 말

百濟史의 研究에는 앞으로 解決을 기다리는 허다한 問題가 있지만 그중에서 周留城에 관한 問題가 있습니다. 특히 百濟史를 主禮的으로 把握하고 敍述하려고 할때 百濟는 第三十一代 義慈王二〇年 八月二日에 있었던 降伏儀式으로<sup>(1)</sup> 끝나는 것이 아니라 第三十二代 豐王四年 九月에 있었던 周留城陷落으로<sup>(2)</sup> 끝을 맺은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豐王의 王都였던 周留城이 問題가 되는 것이며 한편으로 泗泚王城陷落後에 百濟軍에 의하여 활발히 展開됐던 羅唐軍에 대한 抗戰의 根據地로써 任在城과 함께 周留城이 問題가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중에서 任在城만은 禮山 大興에 있는 任在城임이 확실하지만 불행히도 정작 豐王의 王都였던 周留城은 그렇지 못해서 研究家에 따라 어떤이는 全羅道古阜에 있었던 城일 것이라하고 어떤이는 錦江下流의 乾至山城이라하고 어떤이는 庇仁城과 大德郡 鎭峯에 있는 産長山城이 틀림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國內外的 研究家들이 애써 研究하고 그 結果를 發表한 것은 周留城의 問題가 비단 百濟史로써 重要할 뿐 아니라 新羅史·唐史·日本史로써도 重要的 問題이기 때문이겠지만 아직까지도 決論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勿論 이제까지 研究發表한 분들은 한결같이 그 方面의 碩學大家들이니 삼가 所說을 傾聽하여야 하겠지만 그분들의 高見에도 周留城에 관한 諸史科의 取扱과 解釋에 있어서 無理가 없는 바도 아닌 것 같으니 그분들의 所說에 대하여 檢討하면서 燕岐周留城에 관한 鄙見을 披瀝코자 합니다. 따라서 本稿 第一部는 주로 既往의 諸學說에 대한 檢討가 되겠고 第二部는 주로 鄙見의 披瀝이 되겠습니다.

# 第 一 部

## (一) 今西龍博士의 古阜說에 대하여

今西龍博士는 그의 「周留城考」(未定稿)<sup>(3)</sup>에서 周留城은 全羅道古阜에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根據는 三國史記의 다음의 記事에 보이는 古沙比 또는 古泗를 古阜의 故地名인 古眇夫里로 본 것입니다.

太宗八年春三月. 百濟殘賊來攻泗泚城. 王命伊滄品日爲大幢將軍. ……往救之. 三月五日至中路. 品日分麾下軍. 先行豆良尹(伊)城南. 相營地. 百濟人望陳不整. 猝出急擊不意. 我軍驚駭遺北. 十二日大軍來屯古泗比城外. 進攻豆良尹城一朔有六日. 不克. 夏四月十九日班帥 ……(三國史記 新羅本紀 太宗八年二月條)

羅王春秋奉詔. 遣其將金欽. 將兵救仁軌等. 至古泗. 福信邀擊敗之. 金欽自葛嶺道遁還. 新羅不敢復出(三國史記 新羅本紀. 義慈王(龍朔元年))

今西博士는 이러한 記載에 보이는 古沙比城 또는 古泗를 三國史記 地理志의 「古阜郡 本百濟古眇夫里郡. 景德王改名. ……」에 보이는 古眇夫里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古·夫里 즉 古阜에 古沙比城 또는 古泗城이 있고 그 가까이에 豆良尹城이 있었다 하였으니 古沙比城과 같은 方面에 豆良尹城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今西博士自身이 말하듯이 古阜附近에 古沙比城이 없고 豆良尹城이 없습니다. 즉 輿地勝覽에 「斗升山在郡東五里 一元都順山. 有古石城 周一萬八百十二尺 跨干大壑 疑瀛州時舊城也」에 보이는 斗升城이 豆良尹城 또는 豆陵伊城이 訛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 無理가 있어 周留城을 古阜로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是月唐人伐高麗。高麗乞救國家。仍遣軍障。據疎留城。由是唐人不得略其南界。新羅不獲輸其西壘(日本書紀 元智元年条)

여기에 보이는 疎留城이<sup>(4)</sup> 또한 周留城을 意味한 것인데 周留城의 百濟軍 때문에 唐人들이 當時의 根據地인 泗泚熊津으로부터 北上하여 高句麗南界를 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新羅가 西쪽에 있는 城에게 物資를 輸送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古阜方面에 있었다는 周留城의 百濟軍 때문에 泗泚熊津의 唐軍이 묶여서 陸路로 北上하여 高句麗의 南界를 칠 수 없었고 新羅는 果然 그들 때문에 物資를 泗泚熊津으로 輸送할 수 없었던 것일까 當時의 狀況으로 보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新羅로부터 泗泚熊津으로 通하는 輸送路를 今日의 秋風嶺-黃澗-氷同-沃川의 線을 擇하든 또는 尙州-報恩-大田의 線을 擇하든 尙州-淸州-鳥致院의 線을 擇하든 멀리 相距된 古阜에 周留城이 있었다면 그 周留城의 百濟軍 때문에 이러한 輸誦路가 直接的으로 威脅받고 遮斷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며 더구나 그 百濟軍 때문에 泗泚熊津의 唐軍이 陸路로 北上하여 高句麗南界를 치지 못할 理由가 없었을 것입니다.

勿論 古阜에 있었다는 所謂 周留城의 百濟軍이 攻擊해올까봐서 泗泚·熊津의 唐軍이 泗泚·熊津을 비우고 北上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想定도 있겠지만 그러한 想定과는 달리 龍朔元年(661) 六月에 泗泚의 劉仁願은 그의 領兵을 이끌고 泗泚에서 海路로 鞋浦까지 가서 上陸, 南川州에서 新羅軍과 合流하여 北上 高句麗遠征에 從軍한 적이 있는데 當時 周留城이 今西博士의 주장같이 古阜에 있었다면 劉仁願이 領兵을 이끌고 陸路로 가깝게 南川州로 갈 것인지 멀리 海路를 擇하여 迂回했을 理가 없는 것 입니다.

龍朔元年六月 唐高宗帝遣將軍蘇定方等。征高句麗。入唐宿衛金仁問受命來告兵期。兼論出兵會伐。於是文武大王率廳信·仁問·文訓等發大兵向高句麗。行次南川州。鎮守劉仁願以所領兵。自泗泚泛船。至

鞋浦下陸. 亦營於南川州. …( 三國史記 列傳 金庾信傳 )

결국 이런 점으로 미루어 周留城은 新羅로부터 泗泚·熊津에 이르는 通路라느니보다 輪送路인 大田·儒城·連山方面이나 아니면 熊津北으로서 大田·儒城方面과 가까워서 兩地區를 쉽게 連繫할 수 있는 곳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今西博士의 周留城古阜說의 發想은 周留城이 古沙比城 또는 古泗城에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점과 古沙 또는 古泗가 古阜의 故地名인 古眇夫里를 通는하는 점이겠는데 古沙라는 地名이나 山名 또는 城名이 許多하니 古沙夫里를 쉽게 周留城에 結付시켜서 古眇夫里 즉 古阜에 周留城이 있었다거나 古阜가 周留城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要件대 古阜는 新羅로부터 泗泚·熊津에 이르는 緊要한 輪送路로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緊要한 通路나 輪送路를 威脅하고 遮斷할 수 있는 곳으로는 볼 수 없읍니다. 하물며 泗泚·熊津의 唐軍을 묶어서 陸路로 北上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百濟軍의 根據地가 南으로 멀리 相距한 古阜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白江 또는 白村江은 邊山半島 方面이라는 그의 比定이나 豐王이 一時 移都했던 僻城이 碧骨堤 즉 金堤라는 說도 成立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읍니다.

## ( 二 ) 李丙燾博士의 漢山說에 대하여

李丙燾博士는 周留城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敍述하엿읍니다.

福信·道琛등은 劉仁軌가 到着한다는 情報를 듣고 任存城으로부터 南下하여 周留城 ( 韓山 )에 據하고 熊津江口 ( 白江 ) 沿岸에 兩柵을 세워 新來의 劉仁軌軍이 泗泚城의 劉仁願軍과 合勢하는것을 阻止하려고 하였다. 한편 泗泚城에대한 攻擊도 再開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上陸한 劉仁軌는 來援한 新羅軍과 合勢하여 古沙比城( 古沙浦 =

錦江下流의 對岸인 沃溝 )을 根據로하여 周留城에 대한 攻擊을 試圖하였다. 그러나 百濟軍은 羅唐軍을 大敗시키었고 敗北한 新羅軍은 本國으로 撤歸하였다. 이에 劉仁軌도 周留城의 攻擊을 中止하고 泗泚城을 向하여 百濟의 攻略을 받고 있는 劉仁願軍을 救出한 것 같다. 이 때문에 泗泚城을 攻擊하던 百濟軍은 물러가서 任存城으로 歸還할 수 밖에 없었다.<sup>(5)</sup>

李博士는 위에서 본 바와같이 周留城을 舒川郡 韓山에 比定하고 古沙比城을 錦江河口南인 沃溝에 比定했습니다. 그렇게 比定한 理由는 그도 今西博士의 方法과 같이 古沙比城과 周留城은 같은 方面에 近接해 있었는데 沃溝를 古沙浦라고 한데 根據를 두고 沃溝는 古沙浦이니 周留城은 결국 古沙浦가까이 그 對岸인 韓山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周留城이 韓山이었다면 周留城의 百濟軍 때문에 新羅에서 泗泚·熊津에 이르는 輸送路가 막힐 理가 없고 泗泚·熊津의 唐軍이 陸路로 北上하여 高句麗南界를 攻擊하지 못할 理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은 앞서 檢討한 古阜의 경우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뿐만아니라 古沙比城과 함께 豆良尹城이 크게 問題된 것은 六六一年 武烈王十二年二月頃인데 이지음 福信의 軍隊에게 攻擊을 받고 있던 泗泚城을 救援코자 新羅는 救援軍을 派遣한 것입니다. 이 大軍은 勿論 徐羅代을 出發하여 泗泚로 向한 것인데 그 中路에 이르러 ( 至中路 ), 古沙比城外에 陣을 치고 豆良尹城을 攻擊하다가 이기지 못했다니까 마땅히 古沙比城과 豆良尹城은 徐羅代과 泗泚의 中間 즉 中路에 있었던 것이지 泗泚以西 멀리 沃溝나 韓山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沃溝나 韓山은 徐羅代에서 泗泚로 가는 길에 있는게 아니라 泗泚를 지나 멀리 西쪽에 떨어져 있으니 百濟軍에게 包圍되어 危機一髮의 지경에 있었던 泗泚留軍을 救援코자 徐羅代를 떠난 新羅軍이 泗泚를 버려두고 沃溝와 韓山으로 갈 理가 없는 것입니다.

되풀이되지만 徐羅代로부터 泗泚로 가는 中路에 古沙比城과 豆良尹城이 있었지만 徐羅代부터 古沙比城과 豆良尹城 으로

가는 中路에 泗泚城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 博士의 周留城即韓山說은 成立되기 어렵지만 한편 沃溝나 韓山은 古來로 肥沃한 農耕地帶로 알려졌으니 周留即州柔에 대한 다음과 같은 說明과 너무나 乖離된다고 하여야 하겠읍니다.

此州柔者. 遠隔田畝. 土地磽确, 非農桑之地. 是拒戰之地. 此焉久處. 民可飢食. 今可遷於僻城 ( 日本書紀 天智紀 )

州柔는 田畝가 멀고 土薄하여 農桑之地가 못되고 拒戰之場으로 適合할 뿐이니 오래 있다가는 百姓을 굶주리게 하겠다고 王都를 一時僻城으로 옮긴 것인데 果然 沃溝와 韓山이 土薄한 磽确의 땅으로 믿고 農桑之地가 못된다고 믿을 수 있을까? 아무도 그렇게 믿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앞서 引用한 三國史記 太宗八年條에

三月十二日 大軍 ( 新羅軍 ) 來屯古泗比城外. 進攻豆良尹城. 一朔有六日. 不克. …

이라는 句節이 있는데 이 경우의 古沙比城을 沃溝로 보고 豆良尹城을 韓山으로 보면 沃溝에서 渡江하여 韓山을 攻擊한 셈이 되니까 「進攻 豆良尹城」이 아니라 의당히 「渡攻 豆良尹城」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日本의 津田左右吉·池上宏博士가 周留城을 錦江下流對岸인 舒川에 比定하고 李丙燾博士가 그렇게 比定했지만 그렇게 比定하게 된 理由는 周留城이 당시 日本과 海上으로 緊密히 連繫되었으니 錦江河口나 河口에서 가까운 곳에서 周留城의 要港을 찾아야 했을 뿐 아니라 古沙比城의 古沙와 通하는 地名을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古沙浦 ( 沃溝 )를 古沙比城으로 比定하고 沃溝의 對岸인 韓山の 乾支山城을 豆良尹城 즉 周留城으로 比定함으로써 所謂 古沙城도 찾고 그에 適合한 港口도 찾은 셈이지만 그것으로 이 問題를 解決했다 거나 解決에 크게 도움을 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韓山이나 沃溝

나 「……州柔設置山險 盡僞防禦 山峻高而谿隘」(日本書紀 天智紀)이라는 說明과는 걸맞지 않는 平野地帶로써 有數한 農桑之地이기 때문입니다.

### (三) 池憲英教授의 庇仁과 鎭岑說에 대하여

今西博士나 李丙燾博士 그리고 池內博士가 한결같이 古沙比城의 古沙에 注目하여 그것과 通하는 古眇夫里(古阜)에 周留城이 있었다고 하고 古沙에 注目하여 沃溝라고 한 것은 以上 檢討한 바로 充分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 뿐 아니라 당시 일본과 빈번한 海上交通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여 海岸에 가까운 古阜를 생각하고 沃溝를 생각했다는 점도 알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그 두가지 점은 滿足시켰지만 결국 周留城의 百濟軍 때문에 新羅로부터 泗泚·熊津에 이르는 輸送路가 直接 威脅을 받고 斷切되어야 했다는 諸史書의 記錄을 說明하는데 未及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周留城의 問題解決에 未及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既往의 諸學說을 批判하면서 새롭게 周留城의 問題에 挑戰한 분이 池憲英教授입니다.<sup>(6)</sup>

池教授는 既往의 諸學說과는 달리 周留城을 하나로 보지 않고 둘로 보았습니다. 즉 하나의 周留城은 泗泚以西의 舒川郡庇仁面邑內里에 比定하고 또하나의 周留城은 大德郡鎭岑의 産長山城에 比定하였습니다. 이렇게 教授가 두군데의 周留城을 생각하게 된 出發은 이제까지의 既往의 諸學說을 檢討한 過程에서 充分히 알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諸史書의 檢討로 얻어지는 結論이 周留城은 첫째로 港口에서 가까워야 하고 둘째는 熊津以東 즉 江東에 뻗은 新羅의 輸送路를 쉽게 威脅할 수 있고 遮斷할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하는데 이러한 相反되는 두가지 條件을 갖춘 하나의 周留城을 찾는 대신 두군데의 周留城을 생각하게 된 것 같이 보입니다. 教授는 港口인 周留城에 관

하여 다음과 같이 說明하였습니다.

이와같이 考察해 내려오므로써 周留城은 熊津江→白江→白江口밖에 位置한 港灣이며 同時에「山峻高而谿深」한 城塞이었던 것이 밝혀진 셈이다. 그리고 周留城은 津田左右吉·池上宏博士의 論文들이 歸納한 바와 같이 白江(錦江)의 右岸(舒川郡)에 位置하고 있음은 다시 嘖嘖할 나위도 없겠다.

이리하여 이에 列舉한 모든 條件을 充分히 滿足시킬 수 있는 城砦는 舒川郡庇仁面邑內里의 月明山城·庇仁邑城·(地名「다·리」 「남·산·리」)이 있을 뿐이다. 卽 舒川郡庇仁面邑內里·城北里의 庇仁邑城(周 3505 尺石築)을 包含한 觀寂谷山城(750 間石築)·佛堂谷山城(700 間石築)·城北山城(200 間土築)等 一門의 遺趾가 바로 周留城(「豆率」「州柔」)에 該當된다. 白沙로 덮인 이 周留港(庇仁海水浴場一門)은 百濟復興郡의 다른 하나의 基地였던 任存城(大興)의 南部海港으로써 全羅道·日本方面으로의 連絡港이기도 했었으리라. 또 周留港(周留城)은 漁鹽 특히 소금의 供給地로서의 구실을 兼했을 것으로 忠南內部 沿岸地城과 全北一部地城과의 海陸物産의 貿易基地이기도 했었을 것이다. 이 庇仁城一門은 「日本書紀」의 所論「遠隔田畝土地磽确 非農桑之地 是拒戰之場」과도 符合되는 것이니 「日本書紀」에 보이는 「王城」址도 庇仁城地域에서 調査發掘될 것은 勿論이다. ....<sup>(7)</sup>

이와같이 教授는 庇仁面一門을 周留城에 比定하였는데 이것은 앞서의 津田·池內·李博士의 沃溝·韓山說과는 달리 몇가지 독특한 점이 있다고 하겠읍니다. 첫째로 古泗比城의 古沙에 通하는 地名을 海岸地帶에서 찾지 않았는데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周留城에 關係되는 古沙比城은 泗泚以西의 海岸地帶에 있을 까닭이 없고 新羅와 熊津·泗泚의 中路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教授의 이러한 比定에도 問題가 없는 바도 아닌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점입니다.

첫째로 日本書紀는 州柔 즉 周留에 대하여 比較的 詳細히 敘述하여 傳하고 教授도 몇차례 그것을 授用하였는데 果然 庇仁이 周留였다면 그 周留의 形勝으로써 가장 重要한 바다에 面한 緊要한 要港이었다는 점을 빠뜨렸을까 理解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教授는 江東의 鎭岑에 또 하나의 抗戰基地로서 周留城을 比定하였는데 錦江流域의 輸送路가 唐留軍에 의하여 占據당한 당시에 本百濟의 西端과 東端으로 멀리 相拒된 두 抗戰基地로써의 庇仁과 鎭岑의 周留城이 相互間 兵員과 物資供給을 위하여 円滑迅速한 連繫를 가질 수 있었을까 疑問스러운 것입니다.

세째, 이제까지 위에서 몇 번인가 言及했지만 始終 泗·熊津의 唐軍을 묶어서 陸路로 北上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主抗戰基地가 古阜나 韓山일 수 없듯이 庇仁이나 鎭岑方面에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편 內陸 江東의 鎭岑에 周留城이 있었고 그 周留城이 産長山城이라는 教授의 主張自體에도 問題가 없는 바도 아니니 그것은 다음과 같은 점입니다.

먼저 教授는 三國史記 地理四 三國有名 未詳地名分條의 「支羅城或元周留城」을 無視하거나 默殺할 수 없다고할 뿐 아니라 이것을 積極的으로 活用하여 다음과 같은 圖式<sup>(8)</sup>을 그렸습니다.

支羅城 ( 百濟本紀 ) = 周留城 ( 三國有名 ).....(1)  
舊唐書 未詳地名

豆良尹城 ( 新羅本紀 ) = 周留城 ( 文武王報書 ).....(2)

\* 豆良尹城=支羅城.....(3)

다음에 「支羅城」이 「産長山城」이라는 바를 대략 다음과 같은 經路<sup>(9)</sup>를 밟아 풀이하였습니다.

(1) 나다 ( 出生 ) ..... 디홀리고 ( 古語 ) 는

(2) deru ( 出了, 日本語 )…… del-lo ( 誕生하다 蒙古語 )와 對應  
出現하다

(3) 現在는 “지리다” (活用例 오즘을 지린다 )로 殘存한다.

\* 支羅城 ( 지라재 即 지리재 ) = 産長山城

\* 周留城=支羅城=産長山城

教授에 의한 考證의 經過가 재미있는 것이라고 믿기는 하나 그 考證의 大前提가 된 「支羅城 或元周」의 史料價値부터를 教授와 같이 斷定的으로 믿을 수 없을 뿐 留城 아니라 産長山城이란 城名의 「産」이 果然 古語 「지리라」(産, 出)의 意譯인지 아닌지 그리고 「長」은 어떤 古語의 意譯인지 아닌지 어느 한쪽으로 斷定지울 수 있을 만치 確實性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 경우 「지리재」에 대한 意譯이 「産長山城」이라고 하나 그렇다면 「産山城」.

또는 「出山城」이면 足할 것인데 구태어 「長」을 곁들인 理由를 알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점 教授는 現地에 돌고있다는 「……이 『解産바위』( 生産 )의 바위 『解産』 『生産』으로 因하여 『産長山』이라는 特異한 地名이 돌아났다는 地方民의 諺傳( 地名錄 )」을 紹介하고 있지만 그런 것만으로 풀어질 「産長」이 아닌 것 같고, deru라는 日本語나 del-lo라는 蒙古語는 몰라도 韓國語로써는 現在 「오즘을 지린다」와 「지린내」등 좁은 範圍에서 使用되는 이 語彙가 가령 「애를 낳다」라고 하는 대신 「애를 디홀리고」 「애를 지린다」등으로 널리 使用되어 「産」 「出」의 概念을 카바할 수 있었던 時代가 있었다고 斷定할 수 있을지 疑問이라고 하겠고 무엇보다도 「디홀리고」는 처음부터 「짓홀리고」라는 말이 아닌지 그리고 「지리다」는 처음부터 「滲出」의 뜻이 아닌지 생각해 볼 問題이기 때문입니다.

教授는 그가 紹介한 「黃山( 連山 )→支石院( 鎭岑面松亨里·輿地勝覺 )→  
卷十八鎭岑果 「院字」条 眞峙→城山里→城峙 ( 産長 )→周岩( 주리 )→玉山→吾山院→儒城 →文  
峙 바위 義<sup>(11)</sup>」의 路順에서 「眞峙」( 질티 )의 「眞」( 질 )과 「周岩」( 주리바위)의 「周」( 주리 )가 「지리」 「지라」와 通하는 「産」 「出」의 뜻이니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같은 方面의 「産長峴」(

산장이재 ) 역시「지리재」「지라재」라는 原名을 意譯表記한 것으로 본데서 「支羅城=産長山城=周留城」이라는 斷定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周岩」의 「주리」는 실제로는 「두리」로써「産」「出」의 뜻이 아니라 그대로 「周」「円」의 뜻이며, 「眞峙」의「眞」( 眞 )도 「지리」「지라」즉 教授가 생각나는 「産」「出」의 뜻이 아니라 그대로 「長」의 뜻이며, 「産長峴」의「産」도 「産」「出」의 뜻이 아고라 그대로 城南의 「송정」( 松亭 )에 대한 城北의 「산정」의 「산」의 意表記로 볼 수 없다는 理由가 없을뿐더러 도리어 松亭里에서 城北里로 넘어오는 고개길이 길고도 길기 때문에 「진티」「질티」의 呼稱이 비롯된 것이며 「바위」( 岩 )가 「해산바위」로써 섬겨지기 以前에 또는 섬겨지는 以外에 그 두리두리한 形態에 의하며 「두리바위-주리바위」( 周岩 )의 呼稱이 비롯된 것으로 보는 편이 自然스럽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燕岐郡錦南面大平里에서 東으로 壺灘里를 거쳐 大朴里로 넘어가는 고개가 「질재」이며 그 고개길에 位置한 마을이「질재마을」즉 「長在洞」인데 이 경우도 고개길이 실지로 길고도 길어서 ( 全長約十里 ) 「질재」의 呼稱이 비롯된 것이지「오래산다」또는 「오래 있다」 따위의 單 뜻이 있는 것 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淸原郡南二面猪山里의 恩積山城( 성재 ) 西麓에 「산정이」 또는 「산정이골」이라고 하는 區域( 現在 田 )이 있는데 이것은 이 山城에 所屬된 「營」이 있었던 자리임이 確實하다고 하겠습니다. 대개 山城밑에「정」(「井」또는「亭」)으로 表記됨. 新羅 proper에서는「停」으로 表記 )이 붙은 洞名이나 區域名은「營」의 所在地였으니 恩積山城下의 「산정이」「산정이골」도 「산정」이라는 呼稱을 가졌던 「營」의 所在地名임이 거의 確實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産長峴」으로 쓰지만 實地發音은 「산장이재」라고도 하고 「산장이재」라고 하는 이 경우의 「長」도「정」( 보통「井」또는「亭」으로 表記 ) 音의 表記일 뿐 元來가 「生長」의 뜻인「長」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新農山城 新豐面山亭里公川西北 24K 周200間 新豐縣城 ( 洪恩俊 「百濟城址研究」( 百濟研究 ) 第二輯所收 )

新農山城이 所在한 山亭里의 「산정」( 山亭 ) 역시 山城밑의 마을 로써 往年에 「산정」이라고 呼稱되었던 「營」의 所在地였음이 確實하다고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산정」도 鎭岑의 「산정이재」의 「산정」과 같고 恩積山城下의 「산정이골」의 「산정」과 같은 名稱의 「營」의 所在地였다고 보아 무방하겠읍니다.

한편 燕岐郡全東面蘆長리는 俗稱「雲住山城」과 俗稱「望京山城」의 南麓에 있는데 이 경우의 노정 (蘆長)도 元來 「營」名稱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蘆長」의 「長」(정)은 「營」으로서 ( 정 ) 音을 「長」으로 表記한 앞서의 「産長峴」의 「長」( 정 )과 같은 例라고<sup>(12)</sup> 하겠읍니다.

따라서 「支羅城=産長山城」이라는 等式이 애매하며 「産長山城=周留城」이라는 等式이 또한 애매하다고 하겠읍니다.

× × × ×

이제까지 檢討한 既往學說중 今西·津田·李丙燾 등 諸家は 周留城의 北定研究의 基礎作業으로 古沙比城에 對應하는 「古沙城」을 찾아 이것을 論證의 第一前提로 한 것은 위에서 보아온 바입니다. 그래서 古阜의 古地名 古渺夫里 또는 沃溝의 古地名 古沙浦등의 「古沙」를 不動의 基點으로 하여 周留城을 比定한 것인데 그 結果야 如何든 確固한 基點부터 設定하려고 한 것은 方法的으로 나물할 점이 없는 것입니다.

한편 三國史記 編纂時 이미 有名未詳地名으로 處理된 「支羅城」이라는 것을 確固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것을 論證 第一段階의 第一前提로 삼았을 뿐 아니라 言語學者간에는 論爭거리는 될만한 「디홀리고」「지리다」라는 古語에 「産」「出」의 뜻이 있다는 알송달송한 主張을 論證 第二段階의 第一前提로 삼은 것은 것보기에 그 論證이 아무리 精緻하게 보일지라도 方法부터 再考하여야 하겠읍니다. 그렇지 않으면 百의 假說을 百의 假說로 論證하는 結果가 되기 때문

입니다.

#### ( 四 ) 周留城은 熊津의 北

以上 周留城의 問題에 관한 既往의 論文들을 檢討해보았는데, 대체로 周留城을 泗泚·熊津의 南이나 西에 그 位置를 比定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近代에 와서 이 問題를 集中的으로 다룬 日本學者들이 周留城에 대한 日本의 支援이 百濟에 대한 義理때문에 日本이 主體的으로 行한 支援이었다고 본데서 周留城의 位置를 될 수 있는대로 日本에 가까운 곳에 比定하려는 傾向이 있었기 때문인데, 日本學者들의 이러한 傾向과 前提는 是正되어야 할 것입니다.

仁軌又上表曰……陛下若欲殄滅高麗,, 不可棄百濟土地, 餘豐在北,餘勇在南, 百濟·高麗舊相黨援, 倭人雖遠亦相影響, 若無兵馬. 還成一國, 既須鎮壓, ……伏惟陛下既得百濟, 欲取高麗, 須外內同心, 上下齊奮, 舉無遺策, 始可成功云云( 舊唐書八十四 劉仁軌傳 )

泗泚·熊津의 陷落後 百濟에 대한 支援의 主役은 발등에 불이 붙었던 高句麗였는데, 이것은 上揭 劉仁軌傳의 「百濟·高句麗舊相黨援」이라는 句로서 알 수 있고, 支援의 助役은 「倭人雖遠亦相影響」이라는 句로서 알 수 있듯이 바다건너 멀리 떨어져있었던 日本이었습니니다.

이점에 대하여 특히 留意할 것은 泗泚·熊津을 陷落시켜서 占領하고 있었던 것은 唐帝國의 水陸軍과 新羅國이었는데 이러한 強大한 相對에 대하여 日本이 高句麗의 保障이 없고, 支援이 없는데도 百濟에 대한 義理만으로 主體的으로 百濟에 海外派兵할 수 있었을 것인가 생각해볼 問題입니다. 이점에 대하여서는 그 당시 몇차례인가의 隋·唐의 連續的인 大侵攻을 막아냄으로서 隋·唐에 못지않은 不敗의 軍事力을 保有한 것으로 認識되었던 高句麗의 保障과 積極的인 支援이 없

있든들 日本으로서 百濟에 海外派兵하여 支援하기는 어렵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이런 것을 傳해주는 것이 앞서의 「百濟·高句麗舊相黨援 倭人雖遠亦相影響」이라는 句일 것입니다. 즉「百濟와 高句麗는 예부터 서로 무리를 지어 援助하고, 倭人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影響한다」고 한 것이니 高句麗가 積極的으로 支援하고, 거기에 倭人이 도와 支援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아니라 앞서 引用하였던 日本書紀 天知元年條에 傳하는 바 疎留城에 日本이 軍將을 派遣한 것도 百濟의 要請에 의한 것이 아니라 高句麗의 要請에 의한 것이라고 明證하고 있습니다. 즉「高麗乞 救國家(日本)仍遣軍將據疎留城」이라고 하였으니 高句麗가 日本에 支援을 要請하고, 그 要請에 의하여 日本에서 軍將을 派遣하여 疎留城을 根據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日本軍將이 根據로 한 疎留城은 高句麗의 支援을 받을 수 있고, 高句麗와 緊密히 連繫를 取할 수 있는 곳으로 보아야 하겠고, 더구나 疎留城의 日本軍과 百濟軍 때문에 泗泚·態津의 唐留軍이 北上하여 高句麗의 南界를 攻略할 수 없었고 新羅가 西쪽으로 泗泚·態津에 物資를 輸送할 수 없었다고 하였으니 이 疎留城은 일단 泗泚·態津의 北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아니라 上揭 劉仁軌의 上表文에「余豐在北, 余勇在南」이라는 句가 있는데, 余豐은 扶余豐으로서 日本에서 돌아와서 百濟王이 되었던 豐王이 分明합니다. 그리고 豐왕이 있었던 곳이 周留城이며, 臨時의 王都였는데, 그 豐王이 「在北」이라고 傳하고 있습니다. 勿論 「余豐在北, 余勇在南」이라고만 하였으니, 이 경우의 「北」, 「南」은 相對的인 것이어서 確言할 수는 없다고 하겠지만, 豐王이 百濟에 있었을 때에 劉仁軌도 百濟에 있었고, 劉仁軌가 態津都督으로서 이 上表文을 制作하여 올린 것은 필경 態津都督府였으니「余豐在北, 余勇在南」은 유인제가 있었던 態津都督府를 本位로 한「北」과「南」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余豐과 余勇이 이끄는 百濟軍과 日本軍이 泗泚·態津의 南에만 있었다면, 당시의 漢江流域에 있었던 北漢山州와 南川州의 新羅

軍과 泗泚·態津의 唐留軍과의 諸般의 連繫가 完全히 斷切될 까닭이 없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泗泚·態津의 南에에 있는 余豊과 余勇이었 다면 分明히 態津都督府에 있었을 劉仁軌과 上表文에서「余豊在北」 「余豊在南」이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周留城에 關한 史料로서 三國史記·日本書紀·新舊兩唐書·資治通鑑등이 있지만 當時的記錄을 尊重하여야 한다는 史學의 原則에서 볼 때 舊唐書 劉仁軌傳의 上表文을 第一의 史料로 看做하지 않을 수 없는데 거기에 「余豊在北, 余勇在南」이라고 記錄되어 있으니 余豊 즉 豊王이 있었던 周留城은 態津의 北에 있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要컨대 당시의 狀況은 泗泚·態津을 占領하고 있었던 唐留軍의 南에 余勇이 있고, 北에는 余豊이 있었는데 그 北에는 다시 新羅의 北 漢山州와 南川州가 있었고 그 뒤에는 高句麗가 있어서 이러한 戰線들이 서로 索制하여 그 樣相이 지극히 複雜했던 것입니다.

## 第 二 部

### ( 一 ) 周留城의 條件과 全義地區

第一部에서 既往의 諸學說과 함께 史料의 大体를 檢討한 결과로써 周留城의 比定에는 다음과 같은 條件이 붙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째, 周留城은 態津의 北에 있었다.

둘째, 西海에 要港이 있고 그 要港에서 그다지 멀지 않아야 한다.

셋째, 江東의 儒城地區와 鎭岑地區로 부터 그다지 멀지 않아서 緊密히 連繫가 되어야하고 抗戰의 一大據點이었던 任存城과도 쉽게 連繫가 可能한 곳이어야 한다.

네째, 所謂 周留城이라고할 때 그것은 孤立된 한개의 城이 아니라 近接해서 한 地區에 鼎立한 몇개의 城으로 보아야한다. 따라서 諸史料에 보이는 古沙城은 勿論 豆良尹城(豆陸伊城)·豆率城등에 대

하여서도 說明이 可能한 곳이어야한다.

다섯째, 周留城의 百濟軍으로써 泗泚·態津方面의 唐軍이 陸路로 北上하여 高句麗南界를 치고 新羅軍으로 하여금 泗泚·態津으로 輸送하는 길을 쉽게 遮斷할 수 있는 곳이어야한다.

이러한 몇가지의 條件을 充分히 充足시킬 수 있는 곳으로 全義地區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첫째, 全義地區로부터 牙山灣까지는 七〇리가 가깝고 全義地區로부터 儒城地區 역시 七〇리를 크게 넘지않으니 모두 步行一日의 距離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京釜線鐵道가 開通되기까지는 全義를 中繼地로하여 儒城方面의 物産을 牙山灣의 白石浦로 나르는 것을「全義앞배기」라하고, 牙山灣의 白石浦의 物産을 全義를 中繼地로하여 儒城地區로 나르는 것을「牙山뒷배기」라고 하였으니 이런 特異한 말이 오늘날까지 남은 것으로 보아서도 牙山灣과 全義地區와 儒城地區의 緊密했던 往年의 關係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것이 京釜線과 湖南線이 開通되어 일개의 寒村이었던 「한밭」이 交通都市로써의 「大田」으로 크게 發展하기 이전에 中部地方의 物産이 集散地였던 儒城에서 物産을 陸路로 芑江이나 態津으로 運搬하여 錦江의 船便에 옮겨싣고 錦江河口로 나와 西海를 크게 迂回北上하여 서울麻浦로 가는 것보다 陸路로 二日間에 全義經由 牙山灣의 白石浦에 到着하여 船便으로 서울로 가는 편이 몇배 수월하고 크게 時日을 短縮할 수 있음을 말할나위도 없는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또한 全義西쪽의 「차령고개」로부터 禮山大興의 任存城까지는 東에서 西로 곧게 내뻗은 車嶺巨脈의 主嶺으로 完全히 이어지고 主嶺을 따라 間道가 兩地區를 이었으니 원만한 健脚이면 하루에 充分히 오갈 수 있는 距離에서 安全하게 連繫를 가질 수 있고, 한편으로는 牙山灣를 中繼地로하여 間接的으로 連繫를 맺을 수 있으니 이런 點을 看過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요컨대 全義로부터 牙山灣이나 儒城이짐실은 소바리가 하루에 수월

하게 갈 수 있는 距離이며, 任存城이 또한 원만한 健脚이면 하루에 오갈수 있는 距離이니 앞서 列舉했던 周留城比定の 條件중에서 첫째 條件과 둘째條件은 充足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읍니다.

## ( 二 ) 大興任存城과 全義高山城

東嶺의 巨脈속에 形成된 몇개의 溪谷으로 된 全義地區는 그 自體가 四面을 둥글게 四〇〇米高地의 險한 峻嶺으로 包圍된 自然의 要塞地 이지만<sup>(13)</sup> 車嶺巨脈은 이 全義地區를 唯一한 關門으로하여 南과 北의 交通을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全義地區는 周圍四面이 險한 峻嶺으로 包圍되어 있지만 北으로 하나의 出入口가 있어서 이 出入口를 通하여 天安三巨里를 거쳐 廣州·서울方面으로 北上할 수 있고 또한 牙山灣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西南方으로 小西六個里를 거쳐 金沙리에 出入口가 있어서 公州를 經由하여 湖南地方으로 通하고, 南으로 난 出入口로는 松城里 - 지경고개(五万分之一地圖에는 「솔티고개」로 됨) - 生千里 - 双流里 - 燕岐里를 거쳐 儒城·大田으로 通합니다.

이러한 出入口는 車嶺山脈의 北과 南의 交通을 許諾하는 거의 唯一한 關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연해서 말하면 멀리 五台山부터 뺨은 車嶺山脈이 西海까지 달려서 半島中部를 南北으로 크게 二分하는데 全山脈중에서 山脈의 北과 南을 거의 平坦한 安全한 길로 이어<sup>(14)</sup> 주는 곳은 全義地區뿐이기 때문입니다. 勿論 全義地區에서 車嶺山脈의 南과 北을 이어주는 이러한 平坦하고 安全한 길은 山脈이 달리다가 이곳에서 갈리고 休하였다가 다시 起하여 回하고 旋하다가 複雜無雙하게 얽히고 설킨 險한 峻嶺 사이 사이의 狹谷에 通한 길이지만 이러한 길이 比較的으로 平坦해서 車嶺의 南과 北의 交通을 이 地區에서 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二十世紀의 오늘날도 마찬가지여서 車嶺山脈의 南과 北을 잇는 主要幹線鐵道와 國道가 直接 全義邑의 北과 南으로 트인 狹谷을

通過하고 二次的인 幹線道路( 天安三巨里-小井里-차령고개-公州廣亭-公州, 天安三巨里-並州-淸州)가 全義邑의 外廓가까이를 通過하고 있습니다.

漢山慰禮城(廣州)에서 高句麗軍의 攻擊을 받아 蓋鹵王은 죽고(475년), 文周王이 熊津으로 遷都하면서 高句麗는 稷山·安城地區를 포함한 天安以北까지의 平野地帶를 占領하였으니 百濟의 國境線은 車嶺山脈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百濟는 熊津北의 車嶺山脈에서 高句麗勢力을 막아야했고 특히 車嶺山脈속에 形成된 自然의 要塞地이며 동시에 山脈의 關門이기도한 全義地區에서 막아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王都를 泗泚로 옮긴 後는 특히 禮山大興 地區에서 막아야했던 것입니다. 만일 高句麗軍에게 全義地區를 突破당하게 되면 그 南方七〇里에 位置한 熊津王都가 危險하고 禮山大興地區를 突破당하게 되면 直接 그 南方七〇里에 位置한 泗泚王城이 危險하기 때 문입니다.

따라서 두 地區에는 熊津王城( 公山城 ) 보다도 훨씬 規模가 크고 泗泚王城( 羅城 ) 보다도 越等히 堅固게 構築된 산성이 있었으니 車嶺山脈의 西편 關門의 守門將格인 任存城과 東편 關門의 守門將格인 全義의 高山城입니다. 輿地勝覽의 全義縣篇과 大興縣篇에 의하여 두 山城의 規模를 살펴보고 다시 이것을 熊津王城인 公山城의 規模와 比較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高山城	周	5,132尺	井3	石築
任存城	周	5,194尺	井3	石築
公山城	周	4,850尺	井3	石築

規模에 있어 高山城이 公山城보다 282尺이 더 있고, 任存城이 344尺이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任存城은 高山城보다 周長으로 62尺이 더 있을 뿐이니 두 山城은 거의 같은 規模의 雙璧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두 山城을 잇어주는 것은 東에서

西로 곧게 뻗은 標高 400 ~ 500米의 車嶺巨脈의 主嶺입니다.

高山城은<sup>(15)</sup> 標高 460m의 山頂에 堅固하게 構築된 것이지만 그 特色은 周 5,132 尺의 山城이 콤팩스로 그린 듯이 거의 完全한 円型으로 둥글고 全義邑쪽으로 한군데 絶壁새로 뚫인 水口가 山城의 唯一한 出入口입니다. 그리고 円型으로 된 山城内部는 巨大한 盆地로써 넓은 밭과 논이 있는데 어떠한 가뭄에도 물이 마르는 일이 없어서 1977년 5월末의 酷甚한 가뭄으로 美湖川물이 말라서 白砂場이되고 錦江도 거의 물이 끊길 때도 이 山城內의 논에는 물이 넘쳐서 水口를 通하여 全義邑쪽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直接보았습니다. 輿地勝覽에는 「井三 今廢」라고 傳했지만 方形石築의 옛샘에는 그 가뭄에도 맑은 물이 괴여 넘쳐흐르고 있었으니 물이 흔한 山城으로써 稀有한 例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高 山城의 또하나의 特徵은 高山城下 東쪽에 난 고개길 ( 고소재고개 ) 건너에는 望京山이 솟고 그 山頂에는 望京山城이 있어서 完全히 複式으로 된 점입니다. 이것은 任存城의 경우도 같아서 그 건너의 月城과 함께 複城을 이루고 있습니다.

### ( 三 ) 疎留城과 全義松城

앞서 周留城은 熊津北의 全義地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全義地區에 앞서 問題삼았던 疎留城 이라는 山城이 있어야하는데, 그 疎留城은 熊津北十七km의 地點이며, 全義縣南 4km未滿의 距離에 있는 「솔재」( 松城 )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이 山城밑의 狹谷으로 儒城方面에서 全義邑을 거쳐 北上하는 舊街道가 트이고, 한편 熊津에서 全義邑을 거쳐 北上하는 舊街道가 이 山城밑으로 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 山城을 百濟軍이 장악하고 있는 한 熊津에 있는 唐軍은 陸路로 北上하여 高句麗南界를 攻略할 수 없고, 이 山城에서 燕岐唐山城이 3km程度로 가깝고, 燕岐唐山城에서는

錦江 건너의 儒城地區의 百濟山城과 쉽게 連繫할 수 있으니 이 山城을 百濟軍이 지키고 있는한, 新羅가 西쪽에 있는 態津·泗泚의 唐軍에 支援物資를 輸送하기 어려운 것 입니다.

한편 「疎留城」을 日本書紀에서는 「ソルのサシ」라고 읽는 데, (サシ)는 < 잣 > (城)에 대한 日本人의 發音이며, < 솔 >에 대한 日本人의 發音에 틀림없습니다. 이와같이 「疎留城」(ソルのサシ)라는 山城名이 「솔재」(松城)라는 山城名과 一致할뿐 아니라 이 山城을 百濟軍이 지키고 있는 한, 態津의 唐軍이 北上하여 高句麗南界를 攻略할 수 없고, 新羅가 西쪽에 있는 泗泚·態津의 唐軍에 物資를 輸送할 수 없는 것입니다.

現在 全義에서는 縣東八리에 있는 「高山城」(고소재)을 雲住山城이라 하고, 縣南八리에 있는 「솔재」(松城·疎留城)를 金伊城이라고 하는데, 東國輿地勝覽全義條에는 縣南八리에 있는 山峯을 雲住山으로 明記하였으니, 縣東八리에 있는 山城을 「雲住山城」이라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要컨데, 앞서 살펴본 劉仁軌의 上表文에 「余豊在北」이라고 明記되어있는 그대로 豊王은 態津北에 있었던 바가 確實하며, 다시 態津北 20 余 km地點인 車嶺山脈속의 全義地區를 根據로 하고 있었던 바가 確實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儒城地區나 公州地區에서 北上하려면 반드시 全義의 「솔재」(松城) 밑을 지나야하기 때문에, 日本에 派遣한 軍將이 根據로 하고 있었다는 「疎留城」은 全義縣南八리 에 있는 「솔재」(松城)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솔재」는 城南인 燕岐縣과 城北인 全義縣의 境界에 位置하고 있기 때문에 이 山城을 「燕岐山城」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山城을 現地에서는 「솔재」라고 하지만, 城南인 燕岐地區 또는 態津地區에서는 이 산성을 「두잉이재」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즉 燕岐縣에 대한 本百濟時代의 古地名인 「豆仍只」(두잉이)<sup>(16)</sup> 縣이기 때문입니다.

百濟殘賊來攻泗泚城……中略……往救之. 三月五日. 至中略. 品日分

麾下軍．先行豆良尹城南．相營地．百濟人望陣不整．狹出急擊不意．我軍驚駭潰北．十二日．大軍來屯古沙比城外．進攻豆良尹城．一朔有六日．不克．夏四月十九日．班師

羅王春秋奉詔．遣其將金欽將兵救仁軌等．至古泗．福信邀擊敗之．欽自葛嶺道遁還．新羅不敢復出（百濟本紀 義慈王）

여기서 보이는 「古沙比城外」「古泗」, 그리고 「豆良尹城南」 등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全義의 「高山城」( 고소재 )과 全義의 「솔재」( 松城 )를 新羅軍이 城南인 燕岐地區 ( 具體적으로 現在의 鳥致院과 全東의 갈거리方面 )에서 攻擊하다가 失敗한 것으로 解釋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古沙比城外」는 全義縣東八리에 있는 「고소재」의 바깥쪽으로서 今日的 全東갈거리쪽이며, 「豆良尹城南」은 「豆陸伊城南」으로도 表記되는 것이니, 이것은 「豆仍只城南」에 대한 異記로서, 具體적으로 西面双流里와 生川里 ( 俗名 < 燕岐솔티 > )쪽입니다. 「高山城」( 고소재 )는 全義縣東八리의 距離이며, 「松城」( 솔재 )는 全義縣南八리의 距離이기 때문에, 高山城과 松城과는 8리의 距離입니다. 그리고 이 두 山城은 거의 같은 높이의 460米의 山頂에 構築된 堅固한 山城인데, 두 山城은 400米以上의 險峻한 山脈으로 이어지고, 한군데 挾谷이 全義縣의 水口인 동시에 出入口가 되어있기 때문에 「高山城」( 고소재 )나 「松城」( 솔재 )를 城南인 全東 갈거리쪽이나 西面双流里 生川리쪽에서 攻擊하기는 甚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要컨대 三國史記에서 問題되는 「古沙比城」은 全義의 「高山城」( 고소재 )이며, 「豆陸伊城」( 두능이재 )·( 豆良伊城 ) ( 두량이재 )는 「豆仍只城」( 두잉이재 )에 관한 異記로서, 具體적으로 現地에서는 「솔재」( 松城 )—日本書紀에서는 「疎留城」( ソルのサシ )라고 하는 山城을 城南인 燕岐地區·熊津地區 등에서 稱한 名稱으로 解釋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山城들은 南에서 攻擊하다가 크게 失敗한 新羅軍과 唐軍은 결국 全義地區의 北인 牙山·天安地區로 迂回하여 南으로 攻擊하게

되는데 여기 대하여는 뒤에서 言及하겠습니다.

#### ( 四 ) 豆率城과 道薩城

大大三年 龍朔三年五月부터 開始된 羅唐軍의 周留城總攻撃에 관한 諸史書의 記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至龍朔三年 總帥孫仁師 領兵卒府城 新羅兵馬亦發回征 行至周留城下 比時倭國兵船 來助百濟 先破岸津 周留失膽 遂即降下( 文武王報書 )

詔遣右威衛將軍孫仁師 率兵四十萬 至德物島 王領金庾信等 二十八  
一云 將與之合攻豆陸 一作 尹城 周留城 皆下之( 三國史記 文武王三年  
三十 五月條 ) 龍朔三年癸亥 百濟諸城 潛圖興復 其渠師據豆率城 乞師於 倭爲援助 大王親率庾信·仁問·天存·竹旨等將軍 以七月十七日 征 討次態津州 與鎮守劉仁願合兵 八月十三日至豆率城 百濟人與倭人出 陣 我軍力戰大敗之 百濟人與倭人皆降( 三國史記 列傳 金庾信傳 )

周留城의 名稱은 文武王報告書에서는 「周留城」이라 하고 新羅本紀에는 「豆陸<sup>一作 尹城</sup>」 「周留城」이라 하고 列傳 金庾信傳에서는 「豆率城」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까지의 研究家들은 「周留城」 「豆陸尹城」 「豆率城」 등이 모두 같은 하나의 城에 대한 하나의 名稱을 異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新羅本紀에 「周留城」과 「豆陸<sup>一作 尹城</sup>」을 列舉한 것은 잘못이며 「豆率城」도 「周留城」의 명칭에 대한 異表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果然 「豆率城」(두솔성)이 「周留城」( 주류성 )의 異記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豆率城」은 다음의 記事에 보이는 「道薩城」( 도살성 )에 대한 異記이면 異記였지 「周留城」( 주류성 )에 대한 異記로는 볼 수 없

을 것입니다.

百濟拔高句麗道薩城 三月 高句麗陷百濟金峴城 王乘兩國兵疲 命伊  
滄異斯夫出兵擊之. 取二城增築 留甲士一千戌(之 三國史記 新羅本紀  
眞興王十一年正月條 )

이와같은 內容의 記事가 高句麗本紀陽原王六年條. 百濟本紀聖王二  
十八年條에도 보이는 것으로써 蓋鹵王末년에 高句麗에게 빼앗겼던 漢  
江流域의 故土를 回復코자 臥薪嘗膽한 聖王은 그의 卽位二十八年(550)  
에 北上하여 高句麗가 지키고 있던 道薩城을 陷落시키니 高句麗는  
逆襲하여 百濟의 金峴城을 친 것입니다. 그리하여 兩軍이 싸워서 지  
친 틈을 新羅軍이 옆에서 뛰어들어 두 城을 빼앗았다는 內容인데 道  
薩城과 金峴城에 대하여 李丙燾博士는 「道薩城」( 天安? ) 「金峴  
城」( 金義?<sup>(17)</sup> )이라하여 斷定을 避하고 있지만 이 경우 天安과  
全義가 言及된 점이 注目됩니다.

漢山慰禮城 ( 廣州 )에서 蓋鹵王이 죽고 文周王이 熊津으로 移都한  
以來로 高句麗는 稷山方面까지의 百濟領土를 점거하였으니 당시의 高  
句麗南境은 天安北端까지 미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熊津방  
면에서 百濟軍이 北上하여 京畿平野地帶로 나오는 길을 막기위하여  
全義地區의 北端, 天安地區의 南端에 城을 쌓았으리라고 推測되는데  
이 山城이 全義에서 예부터 「高麗山城」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山城  
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만 高麗山城은 天安三巨里에서 全義地區로  
들어서는 街道를 掌握하고 있기 때문에 反對로 百濟側에서는 高麗山  
城을 高句麗軍이 지키고 있는 限은 天安으로 北上하는 길을 遮斷당  
하게 되는 것입니다.

文周王이 熊津으로 移都한 後에 高句麗와 百濟間에 필연코 暫定的  
이나마 國境에 關한 協定이 있어서 車嶺을 國境線으로 定하였다고  
하더라도 高句麗로써는 熊津에서 全義邑을 거치거나 차령고개를 넘어  
가 天安地區로 가자면 반듯이 거쳐야하는 路목을 지키는 天安南端의

高麗山에 산성을 쌓아 이 街道를 掌握하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百濟로서는 天安이나 牙山에서 全義邑을 거쳐 熊津으로 가자면 반듯이 거쳐야하는 莘芳里와 松城里 뒷산에 山城을 쌓아서 이러한 街道를 掌握하려고했을 것입니다.<sup>(18)</sup>

따라서 百濟로써 모처럼만에 車嶺以北 漢江以南의 故土를 回復코자 北上한 聖王의 길을 막은 것은 첫째로 天安南端 즉 全義北端에 位置한 高麗山城이었을 것이니 北上하는 聖王의 百濟군에게 첫번째로 陷落된 「高句麗道薩城」은 傳承에 高句麗가 쌓았기 때문에 이름부터 高麗山城이라는 이 山城일 것입니다.

한편 道隆城을 陷落당한 高句麗軍이 北上하는 百濟軍을 效果的으로 阻止시키기 위해서는 逆襲하며 熊津에서 全義로 通한 街道를 封鎖하여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街道를 掌握하고 있는 「金峴城」-아마도 輿地勝覺이 傳하는 「金伊城」을 빼앗아據點으로 하는 以外에 旣 方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充分히 理解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數個月을 두고 百濟軍과 高句麗軍이 싸워서 지친 틈에 新羅가 옆에서 빼앗는 것은 이 戰略的 地帶를 新羅自身이 確保한다느니 보다도 百濟나 高句麗의 어느 한편이 - 특히 高句麗가 獨占하는것을 忌避한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 後의 百濟와 新羅의 態度로 보아서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sup>(19)</sup>

要컨대 이러한 檢討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道薩城」은 聖王 당시의 麗濟의 國境城에 있는 城으로서 옛이나 지금이나 天安과 全義의 境界線 高麗山の 峻峰에 構築된 高麗山城 에 比定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上揭 金庾信傳에 보이는 「豆率城」( 두솔성 )과 「道薩城」( 도살성 )은 같은 山城의 같은 名稱에 대한 異記로 밖에는 볼 수 없는데 이것은 言語學에서도 充分히 인정되리라고 믿어집니다.

## (五) 豆率城과 白村江

龍朔三年(663년)八月에 있었던 周留城 總攻撃은 주로 全義北方으로부터 開始된 것 같습니다. 즉 文武王과 金庾信이 이끈 新羅軍의 主力部隊는 牙山灣과 全義地區의 連繫를 끊으며 한편은 오늘날의 高麗山城을 包圍하고 한편은 牙山灣쪽으로 進擊하여 唐水軍과 聯合 牙山灣을 守備하고 있었던 百濟軍과 倭軍을 擊破한것 같습니다.

日本書紀에 의하면 日本에서 오는 救援軍을 맞아 慰勞宴을 베풀고자 豐王은 白村으로 떠나고(八月十三日), 羅唐軍은 州柔城을 包圍, 唐水軍百七〇隻은 白村江에 陣列하고(八月十七日), 日本水軍으로 먼저 到着한 船團이 唐水軍에 敗하고(八月二十七日), 州柔城이 陷落된 것은 九月七日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도 그렇고 앞서 引用한 金庾信傳의 「八月十三日 至于豆率城. 百濟人與倭出陣. 我軍力戰大敗之. 百濟人與倭皆降…」의 文面으로 보아서도 그렇고 周留城의 百濟君側이 日本의 大船團의 到着豫定日字를 알고 있었던 것 같이 羅唐君側에서도 이것을 알고 作戰을 開始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즉 그때까지 몇차례인가 「古沙城外」와 「豆陸伊城南」등「城南」에서 狹谷을 따라 攻撃해 들어가다가 빈번히 大敗하고 물러간 新羅軍은 作戰을 바꾸어 比較的 넓게 터진 北方으로부터 攻撃하고자한 것인데 이때에 공교롭게도 日本의 大船團이 到着한다는 情報에 接하여 急據豆率城方面으로 出擊한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의 急迫했던 狀況은 豐王이 白江으로 떠난 것이 八月十三日이며 金庾信이 이끈 新羅軍이 豆率城에 到着한 것이 같은 八月十三日(日本書紀에는 八月十七日에 州柔包圍)이었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要컨대 金庾信傳에 보이는 「豆率城」은 이와같이 많은 것을 示唆해주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豆率城」과 함께 羅唐書가 傳하는 「白江之口」또는 日本書紀가 傳하는 「白村」및「白村江」등이 問題될 줄 압니다.

그러한 「白江之口」「白村」「白村江」등에 대하여는 一般的으로

錦江河口로 보는 見解가 支配的인 것 같은데 이것은 周留城을 沃溝의 江 건너 韓山으로 보거나 庇仁으로 보기 때문이지만 周留城自體가 그런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確實하니 그렇게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今西龍博士가 그의 「白江考」에서 論究한 바 있거니와 舊唐書에 「自態津江往白江云云」이라 하고, 新唐書에 「繇態津白江」이라 記錄하였으니 態津江이 白江이었다면 態津江과 白江을 列記할 必要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舊唐書 蘇定方傳에 「定方·自城山(山東省西北角에 있음) 濟海至態津江口賊(百濟軍)屯兵據江, 定方升東岸乘山而陣」이라고 하였으니 態津江口에 때로 白江 또는 白江口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白江」「白村」「白村江」의 具體的인 現地比定은 그것과 關係가 깊은 「古沙比城」「豆陸伊城」「豆率城」에 대한 正確한 現地比定이 있는 後에야 可能한 것이라고 하겠는데 이 경우의 「白江」「白村」「白村江」은 全義北方七〇里 - 「高麗山城」에서는 六〇리에 位置한 牙山灣으로써 牙山灣에 注入하는 安城川과 安城川河口에 位置한 浦口으로써 예부터 널리 알려진 白石浦<sup>(20)</sup>로 比定하는 것입니다. 安城川은 옛날에는 水深이 깊어서 屯浦는 勿論 成歡까지 舟運의 遡及이 可能했다고 합니다.<sup>(21)</sup>

「白江」또는 「白川」이라는 名稱을 가진 河川은 全國到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名稱만으로는 그것을 어디라고 짚어서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研究者에 따라서 錦江의 河口라는 이도 있고, 東津江의 河口라는 이도 있고, 庇仁灣이라는 이도 있지만, 이 경우에 參考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日本書紀에서는 「白村」를 「ハクスキ」로 읽고, 「白村江」을 「ハクスキの江」로 읽고 있지만, 보통 「白村」를 「ハクスキ」라고는 읽을 수 없고, 「白村江」을 「ハクスキの江」로는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ハクスキ」는 무엇인가가 問題가 되는데 「ハクスキ」는 「白石浦」의 「白石」를 日本人들이 「ハクスキ」로 읽는

것이며, 白石浦옆을 흘러 牙山灣에 注入하는 安城川の 「江口」를 「エ」라고 한 것 같습니다. 즉 白石浦가 牙山灣의 港口村으로 옛날에 크게 繁昌하여 有名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白村」이라고 쓰고, 「ハクスキ」로 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日本語 「エ」는 보통 「江」字로 表記하지만, 日本語「エ」는 「江口」를 意味하며, 「浦口」를 意味하는 것이니, 「ハクスキノエ」는 「白石의浦口」즉「白村의 浦口」로서 白石浦의 앞바다 즉 安城川の 河口를 意味하는 것으로 보아 무방할 것입니다.

牙山灣은 高句麗의 南部海港인 海州 또는 白川에서 海上으로 連繫가 可能하다느니 보다도 차라리 상당한 水軍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高句麗로서는 牙山灣쪽으로는 海上輸送이 거의 자유자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牙山灣에 注入하는 插橋川の 上流에 任存城이 位置하고, 全義地區의 北端 高麗山城( 天安에서는 豆率城 )에서 흐르는 河川이 插橋川の 下流에서 合流하여 牙山灣으로 注入하는 것이니, 발등에 불이 붙었던 당시의 高句麗로서 牙山灣을 통한 任存城과 全義地區의 諸山城에 대한 積極的인 支援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高句麗의 保障과 積極的인 支援을 傳해주는 것이 앞서 言及했던 日本書紀의 「是月唐人伐高麗. 高麗乞救國家( =日本 ). 仍遣軍將據疎留城.……」이며, 舊唐書 劉仁軌傳의 「百濟·高麗舊相黨援」일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부연하면 高句麗의 牙山灣을 통한 海上支援과 牙山灣－全義－儒城－鎮岑, 그리고 牙山灣－任存城－加林城 ( 林川 )을 잇는 泗泚·態津의 唐軍에 대한 커다란 包圍網을 생각할 수 있고 어찌면 古阜나 邊山方面을 根據로하고 있었을 余勇의 抗戰諸山城에 대한 東津江口の 苗浦등을 통한 海上支援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663年 7月부터 8월에 걸쳐서 있었던 周留城攻擊은 泗泚·態津의 唐水軍이 牙山灣으로 迂回하고, 新羅의 陸軍은 南川州를 迂回하여 牙山灣에서 合流 天安地區에서 南으로 周留城을 攻擊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牙山灣을 占領함으로써 高句麗로 부터의 支援을 끊기 위한 것이며, 한편 羅唐軍으로서의 이

作戰이 可能했던 것은, 663年 봄까지 「在南」하였던 余勇, 江東에 있었던 福信의 諸山城이 陷落되고, 福信이 殺害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劉仁軌의 上表文에서 「陛下若欲殄滅高麗, 不可棄百濟土地」라고 한대로 高句麗의 攻略을 第一目的으로 하였던 唐으로서 泗泚·熊津南의 百濟의 諸山城이 陷落하자 高句麗南界에 가까이 戰線을 北上시킨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現今의 史學界에서는 稷山の 慰禮城을 僞傳이라고 하지만 近肖古王이 三七一年冬十一月에 「移都漢山」하기까지는 稷山이 王都였고 「百濟」(백제)라는 國號도 稷山·安城地區의 古地名 「백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論한 拙稿 「百濟舊都稷山考<sup>(22)</sup>」가 있거니와 日本書紀에 의하면 豐王은 諸將의 反對를 무릎쓰고 王都를 一時 周留城에서 辟城(一書云 避城<sup>(23)</sup>)으로 옮긴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의 「辟城」(벽재)은 「백제」로써 王都를 全義地區에서 稷山·安城·陽城地區로 옮긴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白城郡. 本高句麗奈兮忽. 景德王改名. 今安城郡. 領縣二. 赤城縣. 本高句麗沙伏忽. 景德王改名. 今陽城郡. 虵山縣. 本高句麗縣. 景德王因之. 今稷山縣. (三國史記地理二)

稷山·安城·陽城方面은 成歡·平澤·牙山을 포함해서 日本書紀가 「三國之上腴」라고 表現하듯이 三韓을 代表하는 沃土로써 蓋鹵王이 漢山慰禮城에서 죽고 文周王이 熊津으로 遷都하면서 高句麗領이 된 곳이지만 百濟初期에는 여기가 王都였으니 稷山慰禮城 一部에서 주장하듯이 「僞傳」이 아닙니다. 그리고 白城郡의 「白城」은 元來의 地名인 「백제」에 대한 表記로써 「百濟」 또는 「伯濟」와 그대로 通함은 勿論 「辟城」(「벽재」)와도 通하는 것으로서 「백제」에 대한 日本側의 表記로써의 「辟城」으로 보아 無妨할 것입니다. 그리고 「辟城」이 敵의 所在에서 가깝다고 한 것은 驪州·利川의 新羅의 南川州에서 「一夜可行」의 距離로 가깝고 서울方面의 北漢山州

에서 가깝다는 뜻이며 癸亥年(663年)二月에 豊王이 辟城에서 周留城으로 歸還한 것은 그 前年の 七~八月에 江東諸城이 陷落되고 그 해의 正~二月에 得安城(恩津)을 포함한 南部諸城이 陷落되는등<sup>(24)</sup>이 무렵 全體的인 戰勢가 不利한 때문이지 得安城부터 辟城이 가까웠던 때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要컨대 壬戌年(662年)後半부터 戰勢가 不利했고 드디어 癸亥年(663年)六月에는 豊王이 福信을 죽이게 되니 情勢는 決定的으로 不利해지고 八月에는 羅唐郡의 總攻撃을 받게 되어 周留城이 陷落하였습니다. 이것은 어찌보면 義慈王이 佐平興首을 流配시키고 禍를 당한 前轍을 그대로 밟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豊王이 一時 王都를 옮긴것은 具體적으로 白城郡의 「陽城」이었다고 보는데 그 理由는 遷都에 대하여 傳하는 唯一의 史料인 日本書紀에서 「辟城」을 「ベキのサシ」 또는 「ヘキのサシ」라고는 읽지 않고, 「へのサシ」라고 읽기 때문입니다. 즉 「へのサシ」는 「陽城」(해жат, hae - zas)에 대한 日本人의 音이 確實하기 때문입니다. 陽城은 驪州·利川인 新羅의 南川州에서 七〇余里로서 「一夜可行」의 대단히 가까운 距離입니다. 豊王이 이와같이 新羅의 南川州에서 一夜可行의 가까운 陽城에 移都한 것은 이 지음에 高句麗가 大大的으로 北漢山州와 南川州를 攻撃하여 거의 陷落直前까지 몰고가 弱화시켰기 때문이며, 한편 豊王의 陽城으로의 移都가 高句麗의 이와같은 攻撃에 발맞춘 北進攻撃의 一環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日本學者들은 「陽城」을 全羅北道の 金堤호 보는데, 그 理由는 金堤의 古地名이 「碧骨」로서 「辟城」과 通하는 것이 있을 뿐 아니라 金堤가 穀倉地帶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豊王이 辟城으로 移都할 당시 唐軍은 泗泌城에 있었으니 이것은 도저히 「一夜可行」의 距離일 수 없고, 「碧骨」는 아무리 보아도 「へのサシ」라고는 읽을 수 없으니 辟城이 辟骨 즉 金堤였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 되풀이 해서 言及한대로 「余豊在北」이라고 하여 態津北에 있었던 바가 確實한 豊王이 全羅北道の 金

堤로 移都하였을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 (六) 地名 「全義」의 成立

이제까지 「周留城」의 문제와 關連되는 諸城名 및 地名에 대한 現地比定한 바를 整理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고소재 = 高山城 = 古泗城 = 古沙比城
- (2) 豆仍只( 燕岐 )城 = 豆陸伊城 = 豆良伊城
- (3) 高麗山城 = 道隆城 = 豆率城
- (4) 갈거리 = 葛嶺道
- (5) 白城( 安城·稷山 ) = 辟城( 陽城 )
- (6) 白村 = 白石浦
- (7) 安城川 = 白江 = 白村江
- (8) 솔재( 솔티 ) = 疎留城

以上과 같이 三國史記가 傳하는 關係城名이나 地名에 대하여는 大體로 現地比定이 可能하지만 主로 中國側史書가 傳하는 「周留城」만은 그 意味把握이 容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周留城을 앞서 言及한대로 몇개의 城이 鼎立해 있어서 이러한 城으로 둘러쌓여 있는 地域을 意味한다고 볼 때 첫째로 全義地區가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읍니다.

왜냐하면 雲住山脈의 最高峰위에 높이 쌓은 「쇠성」이나 高山山城의 將臺에 올라서 全義邑內를 둘러싼 산봉우리들을 둘러볼 때 그 수많은 봉우리마다 西에서 東으로 高麗山城－高山山城－望京山城 南에서 北으로 金伊城－鵲城－李城이 構築되어 있어서 이러한 점에서 보면 全義邑쪽을 둘러싼 「두루성」 즉 「주루성」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比較的 좁은 地域에 많은 山城이 集中的으로 構築되어 이러한 山城으로 둘러싸인 곳은 全國적으로 旣 處에서는 類例를 볼 수

없는 것이니 이런데서 「두루재」 「주루재」 - 「周留城」의 名稱이 비롯된 것으로 보아 無妨할 것 같습니다.

그뿐만아니라 日本書紀에 의하면 「周留」 즉 「州柔」는 「地名也」라는 註釋을 붙였으니 더구나 이것은 앞서 밝힌대로 많은 山城으로 둘러싸인 地域名 또는 地名으로 解釋할 수 있는 것입니다.

要컨데 周留城의 「周留」라는 表記는 「주류」 「주루」 「두루」의 範圍로 읽어야 하겠는데 그러면 그 意味는 「周」 「円」 「網羅」의 뜻과 함께 「全」의 뜻이 있다고 하겠으니 우선 「全城」이 「두루재」에 대한 漢文表記가 아닌가 一考의 余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경우 「全城」에 대한 우리말이 무엇일까 逆推해 볼 때 「두루재」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아이들의 「全科參考書」의 「全科」 또는 「全科目」의 「全」이 「網羅」의 뜻인 「두루」라는 事實에서 類推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全義」의 뜻은 文字 그대로 全義分들의 「完全한 義」라면 좋겠지만 이것은 「全城縣」 즉 「두루재골」의 省略인 「두루골」의 表記로써 「골-홀-울」의 (縣邑)을, 訓을 「울」 「옹」로 하는 「義」로 表記한 것일뿐 뜻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高句麗語로 「홀」(忽)은 「골」(縣·邑·城)이었으니 「홀」音과 近似한 「울」 「옹」을 訓으로 한 「義」字로써 「홀」을 나타냈다는 뜻입니다.

khoul ——— houl ——— oul  
(高句麗語)

「義」의 訓 …………… oul

이런점과 關連하여 百濟歌詞인 「井邑詞」의 一句인

全저재 녀러신고요

에 보이는 「全저재」에 대하여 國學의 泰斗인 李熙昇博士께서 대략 다음과 같은 疑問點을 提示한 일이 想起됩니다.

즉 이제까지 「全저재」를 「全羅市場」으로만 解釋해 왔는데 그

것이 果然 옳은 解釋일까? 차라리 이것은 「모든시장」의 뜻인 「온 市場」의 뜻으로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問題였습니다.

勿論 國文學에 대하여 깊이 아는바 없는 門外漢으로써 輕率히 用 催할 일이 아니나 參考 삼아 말씀드려보면 「全저재」로 記錄되어 막연한 이「全」은 「두루」로써 「全저재」는 元來가 「두돌저재」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李熙昇博士께서도 말씀하신대로 歌詞全體의 흐름으로 보거나 全州라는 名稱이 本百濟가 아니라 景德王代에 비롯된 점으로 보거나 「全저재」를 「全州市場」으로는 도저히 解釋할 수 없고 「온저재」의 뜻인 「두루저재」그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다음의 範圍에서 읽고 解釋하는 것이 順理일 것 같습니다.

- |                               |        |
|-------------------------------|--------|
| 全저재 너러신고요<br>어귀야 즌 디를 드디올세라   | ( 原文 ) |
| 두루 저재 너러신고요<br>어귀야 즌 디를 드디올세라 | (1)    |
| 두리 저재 너러신고요<br>어귀야 즌 디를 드디올세라 | (2)    |
| 두이 저재 너러신고요<br>어귀야 즌 디를 드디올세라 | (3)    |

이와 같이 이 「全」은 「두루」의 뜻으로 把握하여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後世에 이 「두루」가 「두리」「두이」 등으로 變하면서 全州의 古名 「두리재」「두리이재」의 「두리」「두이」에 附會되어 혼란을 일으킨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正音字로 記述할 때 「두루 저재」의 「두루」와 通할 뿐 아니라 「두리저재」「두이

「저재」의 「두리」「두이」와도 通할 수 있는 「全」字로 記述하여 막연하게 된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도 하겠는데 全州의 古名에 대하여는 三國史記 地理三 全州條의 記錄부터 致命的인 錯誤가 많아서 徹底的한 再檢討를 거쳐서 들어가야할 問題이니 여기서는 「全」字를 「두루」로 읽어야할 경우가 있다는 바를 우선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以上은 「全」字를 「두루」로 읽을 수 있고 읽어야할 경우가 있다는 예이지만 다음은 「골」(縣·邑)을 「城」으로 表記하고 高麗朝에 이것을 「義」로 表記한 例입니다.

大山縣 …… 斌城縣. 本百濟貧屈縣. 景德王改名. 今仁義縣. ………  
( 三國史記 地理三 熊州·全州 )

本百濟時代의 「貧屈縣」의 「빈골」(빈골)은 「빈골」의 表記임을 알 수 있겠고 景德王代에는 이 「빈골」을 「斌城」으로 表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貧」을 「斌」으로 代置하고 「골」(屈)을 「城」으로 代置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高麗朝로 내려와 好字인 「貧」「斌」에 이어 이것을 다시 好字이면서도 韻이 같은 「仁」으로 代置하고 한편으로는 「골」에 대한 過去의 表記인 「屈」과 「城」을 버리고 「義」로 代置하며 「仁義縣」으로 表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貧屈縣	斌屈縣	仁義縣
⋮	⋮	⋮
(골)	(골)	(골)
	(재)	(재)
khoul(城)	houl(城)	oul
	(高句麗)	
	「義」의 訓 ……………	oul

「全義縣」이라는 名稱도 高麗朝의 表記으로써 高麗朝에 된 것임을 앞서의 「仁義縣」의 경우와 같고 다시 이것은 같은 三國史記 地理三에 나온 것들이니 「仁義縣」으로 表記하고 「전의현」으로 表記한 者가 同一人일 公算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홀-올」(縣·邑)을 「」義)로 表記한 根據는 앞서 言及한대로 「義」의 訓인 「올」「옴」이 「골-홀-올」의 音과 類似하고 특히 高句麗系統을 이은 高麗朝의 表記으로써 高句麗語의 「홀」(忽)과 「올」「옴」이 더욱 같기 때문에 好子인 「義」로 表記하여 마침내 「全義」라는 地名을 構成한 經緯가 앞서의 「仁義縣」의 「仁義」의 경우와 一般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全義縣」의 「全義」의 경우도 앞서 밝힌 「全저재」의 例와 「仁義縣」의 例에 의하여 「두루골」의 表記로 보아야 하겠고 「全義」의 경우는 「두루재」의 表記로 보아야 하겠지만 앞서 「貧屈縣-斌城縣-仁義縣」의 例로 보아 「屈-城-義」는 通하는 것이니 實際上으로는 「두루골」과 「두루재」의 어느쪽으로 보거나 武關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全義縣」의 「全義」의 경우 本百濟의 「仇知縣」의 「仇知」나 景德王代의 改名인 「金池縣」인 「金池」와는 전연 旣 名稱인 「全義」가 高麗朝에 나왔다는 것은 그때까지 全義地區의 名稱으로써 「두루재」「주루재」가 存續했음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하겠고 그 名稱의 起源은 앞서 밝힌대로 比較的 좁은 全義地區를 많은 山城들이 둘러쌓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名實共히 全義地區야말로 「두루재」의 名稱을 가질만한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 (七) 全義의 砂鐵과 山城

泗泚城 陷落後 滿三年間을 周留城은 羅唐聯合軍에 대한 百濟軍의 抗戰의 本據地의 役割을 다한 것이지만 그것은 全義가 天然의 要塞地이며 山城이 많은 때문만이 아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武力의 象

徵인 鐵의 名產地였다는 점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앞서 言及한대로 全義의 本百濟地名은 「仇知縣」인데 이 「仇知」가 金屬을 意味한다는 것은 國語學에서 定設로 通하고 輿地勝覺 全義縣 土産條에 鐵이 筆頭に 올라있고 오늘날에도 「쇠동」에 「全義 鑛業所」가 있어서 活發 히 操業하고 있으니 全義는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産鐵의 名產地로 보아야 하겠읍니다.

泗泚城이 陷落한 直後 任存城을 根據로하여 泗泚城을 包圍攻撃하다가 다시 任存城으로 물러났던 道琛·福信이 抗戰이 長期化하면서 根據地를 周留城으로 옮긴데는 여러 가지 理由가 있었지만 그외에 周留城이 原鐵의 名產地일뿐 아니라 鐵物의 名產地였다는 점을 看過해서는 안되겠읍니다.

土産 鐵 出東西房里 ( 輿地勝覺 全義縣 )

全義縣의 東西房里에서 鐵을 産出했다는 것인데 東房里는 오늘날의 莘芳里이며 西房里는 오늘날의 西方里로 보아 無妨하겠읍니다. 그리고 西方里는 一名 多方里 라고도 하며 西方里의 뜻과 함께 多方里의 뜻을 알기가 어려워 (深山속에 있는 마을을 西方里라 하고 多方里라고 하기 때문에) 가끔 그쪽에 사는 분들이 質問을 해오는 경우가 있지만 西方里는 西房里의 好子表記이며 多方里는 大方里 또는 達方里의 好子表記로 보아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多方里의 「多」 「大方里」의 「大」 達房里的 「達」 또한 達田里의 「達」은 「冶鐵」을 意味한 「달」) ( dal )로써 흔히「大」字로 表記하여 「大匠」( 대장, 대정)이 된 것입니다.

아득한 옛날에는 冶匠이 곧 社會의 支配上層部를 이루고 冶匠인 dalla - chi<sup>(26)</sup>의 長이 王였이던 時代가 있었다는데 이때의 王이 鍛冶王-dalla-nymkun (달라님금)이었다고 하며 新羅의 脫解王도 이러한 社會的인 性格의 王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朝鮮朝의 嚴格했던 土農工商의 階級社會에서 「匠人」이라

하여 理由없는 賤待를 받아오다가 近代로 들어서며 東房里가 莘芳里로 바뀌고 大方里 또는 達房里가 多方里로 바뀌어 쉽게 알 수 없게 되었지만 李城·鵲城·金伊城의 안쪽 즉 莘芳里-達田里-金砂里-四方里를 잇는 西部川의 골짜마다가 鐵의 產地였고 鐵物의 產地였습니다.

그뿐만아니라 周留城이 豊王의 王城이 되고 百濟諸城의 旗城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原鐵과 冶鐵이 있었기 때문이니 周留城을論하는 마당에서 莘芳里의 砂鐵과 達田里의 鐵物 그리고 四方里 즉 多方里의 鐵과 함께 鐵物에 대하여 論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具體적으로 泗泚王城이 陷落되어 모든 社會秩序와 함께 經濟秩序가 破壞된 당시 周留城自體가 이러한 鐵物로 된 武器에 依存했을 뿐 아니라 麾下의 諸城에서도 周留城에서 供給한 이러한 武器로 싸운 것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입니다. 勿論 이 점에 대하여는 日本에서 많은 戰爭物資--예를 들어 「矢十萬隻」을 보내주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萬名의 軍士가 한 時間의 戰鬪에도 不足한 것입니다. 따라서 三十六日間이나 新羅軍의 攻撃을 받고도 끝내 이것을 擊退시킨 周留城이었다니까 차라리 消耗되는 武器의 供給源으로써 西部川邊의 「全義鑛業所」가 있는 「쇠동」-「아래다락골」-「위다락골」-「수령골의 다락동」까지의 十餘里를 中心으로한 地帶를 注目하여야 하겠습니다. 分明히 이러한 地帶에서 採集된 沙鐵이 比較的 얇은 냇갈의 「다락골」에 모여져 冶鐵된 것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입니다. 勿論 「다락골」 「다락동」의 「다락」은 「達田里」의 「達」(달)과 함께 冶鐵을 意味한 dalla 그것으로 보아야하며 이것이 「다락」( dallak ) 이 되는 것은 다음에 오는 「골」( koul )의 初音( ㄱ ) 「k」音의 影響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勿論 生拙川一帶는 原鐵과 함께 砂金으로도 有名한 곳이니 周留城의 財政問題로써 이점에 대하여서도 論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時間關係로 他日을 期하지만 王城이었던 周留城으로써 갖추어야 할 條件이 單純하 수 없었다는 것을 強調해 두고 싶습니다.

## ( 八 ) 周留城과 碑岩寺

金伊山城 뒤로 가까이 碑岩山이 솟아서 「燕全」을 別界로 나뉘는데 그 기슭에 碑岩寺가 아담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따라서 碑岩寺를 찾는 사람마다 이러한 深深山中에 이토록 아름답고 典雅한 가람이 있을 수 있으며 누가 언제 무슨 理由로 何必曰 이런 山中에 이러한 가람을 창건한 것인가를 자연히 묻게 되는데 碑岩寺는 周留城의 싸움이 끝난 六六三年癸亥八月부터 꼭 十年째인 六七三年癸酉년에 全氏가 주동이 되고 이에 百濟大姓인 眞牟氏와 木笏氏가 협력하여 「죽은 國王과 大臣과 七世父母와 衆生의 靈을 받들고자 창건한 가람」입니다.

이러한 來歷은 年前에 學界에 紹介되어 內外學界의 非常한 關心을 끌게한 「碑岩寺癸酉銘全氏阿彌陀佛三尊石像」의 刻記銘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일이지만 따지고 보면 이 深深山中이 百濟의 最後를 장식한 激戰地로써 많은 사람들이 戰爭에서 죽은 周留城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가람을 창건한 것임을 넉넉히 알 수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問題에 대하여는 後日 따로 論할 機會가 있겠지만 碑岩寺는 이와같이 그 敬造目的이 石佛碑像의 施納目的과 함께 너무나 뚜렷한 것이니 現在 國立서울博物館에 保管되어 있는 그 石佛碑像들은 周留城 옛터인 碑岩寺로 돌아와 百濟의 最後를 證言하고 周留城을 證言하며 그 당시에 죽은 이들의 靈을 받들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 × × × ×

以上 周留城의 問題에 관하여 장황한 說明을 드렸지만 周留城의 問題는 그것이 百濟人의 救國抗戰으로서의 面보다도 차라리 우리에게서 泗泚·熊津이 陷落된 다음해에 갑자기 武烈王이 薨去하고, 뒤를 이은 文武王이 對唐政策의 變化를 周留城싸움의 推移에서 읽을 수 있는 점이 重要的 事입니다. 즉 文武王은 泗泚·熊津의 唐留軍을 위하여 積極적으로 周留城을 攻擊하는 것도 아니고, 攻擊하지 않는 것도 아니어서 泗泚·熊津의 唐留軍으로서 泗泚·熊津을 버릴 수도 없고 안버릴 수도 없는 困難한 地境에 끌어넣고, 周留城이 陷落하자 降伏한 百

濟軍과 倭軍을 捕虜로 잡는대신 이것을 一方的으로 放免하여 故鄕에 돌려보내고, 故國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670년까지는 唐의 都督을 몰아내어 百濟의 八十餘城을 新羅편으로 끌어넣고, 高句麗 安勝의 政權을 金馬渚에 세우며, 日本에 天武王의 親新羅政權을 스게하는 터전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文武王은 百濟와 高句麗의 遺民과 함께 唐의 勢力을 鴨綠江밖으로 몰아내고 三國統一의 大業을 成就시킨 것입니다.

## 註

- (1) 義慈王과 太子隆이 蘇定方 앞에서 舉行함.
- (2) 日本書紀 天智二年條 參照
- (3) 今西龍 「百濟史研究」所收. 百濟末에 關係되는 論文으로 「周留城考」(未定稿)와 「白江考」(未定稿)가 있다. 早逝한 그는 決定稿를 남기지 못했다.
- (4) 後出
- (5) 李內燾 「韓國史」(古代篇) 519 頁 參照
- (6) 教授의 周留城問題를 다룬 關係論文으로 筆者가 아는 것은 “「豆良尹城」에 대하여”(「百濟研究」第三輯 所收)와 「産長山下地名考」(上)(「百濟研究」第四輯 所收)등이 있다.
- (7) 「百濟研究」 第三輯 23頁
- (8) 「百濟研究」 第三輯 29頁
- (9) 「百濟研究」 第四輯 72頁
- (10) 周留城에 대하여 傳하는 모든 史書가 周留城은 龍朔三年에 陷落하였다고 전하고 支羅城을 傳하는 史書는 龍朔二年에 陷落되었다고 明記하고 있다. 이 점에 秋毫의 變動도 없고 따라서 疑心할 바 없으니 支羅城이 周留城일 수 없다. 따라서 三國史記 編纂時 이미 「有名未詳地名分」으로 處理된 「支羅城 或云周留城」에 史料價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11) 「百濟研究」 第四輯 67頁
- (12) 「산정이재」 또는 「노정」을 漢字音으로 表記할 때 表記한 者의 漢文驅使力이나 個性的인 趣味傾向 또는 聯想作用으로 「解産바위」에 附會하고 「무성한 갈대」에 附會하여 「産長峴」 또는 「盧長」이라는 表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리재」를 意表記하여 「産長峴」이 되고 「무성한 갈대」를 意表記해서 「盧長」이 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産長峴」대신 「産峴」이 되고 「盧長」대신 「長盧」로 表記되었을 것이다. 차라리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은 母音調和로 보아야할 것이다.

산정 ( ㅏ, ㅑ ) → 산장 ( ㅏ, ㅑ ) ……… 産長

노정 ( ㅏ, ㅑ ) → 산장 ( ㅏ, ㅑ ) ……… 盧長

이와같은 例로는 燕岐郡東面內板里에 「도장골」이 있는데 이 경우의 「도장골」의 「도장」( ㅏ, ㅑ )도 「도정(都亭)골」의 「도정」( ㅏ ㅑ )에서 母音調和한 것이다. 그리고 天原郡木川面 挑長里( 高麗山城北麓下 )의 「도장」( 挑長 )도 「도정」에서 母音調和한 것으로써 「挑長」의 「長」은 앞서의 「盧長」의 「長」 또는 「産長峴」의 「長」과 같은 例로 보아야할 것이다.

- (13) 「州條( 周留 ) 設置山險 盡爲防禦 山峻高而谿隘 守易而攻難·…」  
( 日本書記 天智紀 ) 參照
- (14) 알기쉽게 말하면 나귀를 탄 채로 車嶺山脈을 넘고 짐실은 소라비의 고삐를 놓은채 安全하게 車嶺山脈을 넘을 수 있는 곳은 이곳 뿐일 것이다.
- (15) 現在 모든 地圖와 地誌( 燕岐郡誌 )에 高山山城을 雲住山城이라고 記錄하고 있지만 이것은 輿地勝覺에 依據하여 訂正하여야 한다. 雲住山은 李城, 鵲城, 金城이 있는 쪽이다.
- (16) 豆仍只의 「只」는 접미사 /-i/로 보았다. 李崇寧 「百濟語研究와 資料面의 諸問題」( 「百濟研究」 第四輯 所收 ) 參照.  
「仇知」( 구지 ) - 金池縣  
「仇知只」( 구지이 ) - 金溝縣  
「仇知只」는 「구지기」가 아니라 「구지이」로 읽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仇知」( 구지 )는 金屬을 意味한다. ( 同論文參照 )
- (17) 「韓國史」( 古代篇 ) 440頁 參照
- (18) 松城里의 「솔티」( 이 「솔티」를 双流里에 있는 「燕岐솔티」와 區別하여 「全義솔티」라고 한다 )에서 山너머 達田里로 넘어가는 間道가 있는데 이 間道는 高개마루에서 「솔재」- 즉 金伊城 앞을 지나게 된다.

앞에서 言及했던 「周留城」( 소루재 )은 雲住山脈上의 「金伊城」으로써 이 山城을 百濟軍이 掌握하고 있는 한 熊津·泗泚의 唐

軍이 北上할 수 없다. 熊津에서 北上하는 길과 儒城方面에서 北上할 수 없다. 熊津에서 北上하는 길과 儒城方面에서 北上하는 길이 이 山城下로 通하기 때문이다.

- (19) 머지않아 新羅는 이곳을 百濟에게 넘겨주고 百濟는 이 길로 北上하여 高句麗와 싸워서 漢江流域을 回復한다. 그러나 新羅軍은 百濟軍이 지친 틈을 타서 百濟軍을 攻擊하여 漢江流域을 빼앗았다. 百濟聖王과 新羅眞興王代에 있었던 有名한 事件이다.
- (20) 金正浩 「大東輿地圖」 參照
- (20) 「한국사」( 古代篇 ) 266~7頁 參照
- (21) 「朝鮮學報」( 第七〇輯 )所收 參照
- (20) 「…今可遷於僻城. 僻城者西北帶古連旦涇之水. 東南據深 渥巨堰之防. 繚以周田. 決渠降雨. 革實之毛則三韓之上腴焉(日本書紀 天智元年條 )
- (20) 「新羅人燒援南畔四州併取安德( 德安 ) 等要地( 日本書紀天智二年春二月紀) 이해 二月頃에 이미 南部諸城이 陷落하여 南部가 거의 平定된 것이다. 따라서 「……周留失膽遂降下. 南方已定. 廻軍北伐. 任存一城執迷不降. 兩軍併力共打一城……」(文武王報書)이라고 할 때 「回軍北伐」했다고 해서 任存城이 周留城의 北에 있었다는 뜻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즉 이 「北伐」은 「南方已定」의 句에 맞춘 「北伐」이며 동시에 그해 봄부터 平定한 南部諸城을 意味한 것이다.
- (20) 「井邑詞解釋」에 대한 疑問點 「二・三」(「百濟研究」 第二輯) 所收
- (20) 도오손 「蒙古史」田中萃一郎譯補 岩波文庫本 下卷 374~5頁 參照 三品彰英 「日鮮神話傳説の 研究」 및 拙稿 「脫解考」(朝鮮學報 第五十六輯) 參照



# IV

## 廣開土王碑文의 敍法과 解釋



## 머 리 말

廣開土王碑文第二節의 敍法上の 特徵에 대하여 살펴 보고 다시 解釋한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廣開土王의 銘記勳績으로서 對倭, 對百濟, 對新羅關係記事가 碑文 第二節에 一括하여 比較的 詳細히 敍述되어 있다. 따라서 碑文中에서도 이 部分이 가장 重要한 部分이지만 이 第二節에는 缺字가 많을 뿐 아니라 敍法上の 特徵을 把握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碑文解釋이 不完全했다고 생각하며 특히 日本學者들의 碑文解釋이 不完全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 結果로서 李進熙氏에 의한 碑文改竄說까지 나오게 된 것이지만 實質적으로 意識的인 碑文改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碑文解釋이 不完全했던 것이다. 碑文改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은 最近에 中國吉林省高古學研究所長 王健群氏의 研究로서도 確認된 것이지만 筆者는 처음서부터 改竄이 있을 수 없다는 立場에서 碑文을 檢討 研究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王氏의 研究發表에 크게 구애받을 바 없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 碑文에 대한 나의 立場이다. 그러면 그 敍法上の 特徵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解釋하여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 答해 보기로 한 것이지만 특히 問題가 많은 碑文辛卯年條와 丙申年條를 中心으로 하여 풀이한 것이다.

### ( 一 )

四世紀末부터 五世紀初의 韓日關係에 관한 文獻으로서는 韓國側に 三國史記가 있고, 日本側に 古事記·日本書紀가 있지만 同時代的史料를 尊重하는 史學의 原則에 따르면 四一四年 甲寅九月 廿九日에 廣開土王의 遺骸(四一二年薨)를 山陵에 옮기면서 세운 廣開土王의 銘記를 첫째로 들어야 할 것이다.

물론 碑文의 文字에 따르면 『銘記勳績』을 위한 글이기 때문에 거기에 스스로 史料로서의 限界가 있을 것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역시 廣開土王薨年의 翌年の 記事이기 때문에 극히 有力한 史料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또한 碑文과 三國史記와는 王의 紀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全面的으로 一年差가 있다.

( A . D )	( 碑文 )	( 三國史記 )
三九一	辛卯 (即位) 永樂元年	
三九二	壬辰	二年 (五月) 即位元年
三九三	癸巳	三年      二年
三九四	甲午	四年      三年
三九五	乙未	五年      四年
三九六	丙申	六年      五年
三九七	丁酉	七年      六年
三九八	戊戌	八年      七年
三九九	己亥	九年      八年
四〇〇	庚子	十年      九年
四〇一	辛丑	十一年    十年
四〇二	壬寅	十二年    十一年
四〇三	癸卯	十三年    十二年
四〇四	甲辰	十四年    十三年
四〇五	乙巳	十五年    十四年
四〇六	丙午	十六年    十五年
四〇七	丁未	十七年    十六年
四〇八	戊申	十八年    十七年
四〇九	己酉	十九年    十八年
四一〇	庚戌	二十年    十九年
四一一	辛亥	二十一年    二十年
四一三	壬子 (棄國)	二十二年    二十一年
四一三	癸丑	十月王薨 二十二年
四一四	甲寅 九月貳拾九日乙酉, 遷就山陵, 立碑	

以上과 같이 碑文과 三國史記에 紀年 上의 差가 있지만 碑文에는 또한 다음과 같은 顯著한 傾向이 있는 것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廣開土王 在位當時만해도 高句麗의 對外關係에서 相當히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對燕, 對契丹關係記事가 碑文에서는 적잖이 省略된 것으로 보인다.

(2) 史記의 廣開土王紀에는 對倭關係記事가 一切 省略되었지만 碑文에서는 對燕, 對契丹關係記事가 적잖이 省略된 대신 對倭關係는 大體로 漏落없이 收錄된 것으로 보인다.

(3) 對新羅關係와 對百濟關係記述이라고 할지라도 — 특히 對新羅關係記術은 對倭關係와 關聯있는 것에 한정되었다.

이 碑文은 廣開土王의 銘記勳績으로서 四世紀末부터 五世紀初에 걸친 高句麗의 積極的인 南下政策과 百濟로의 侵攻, 그리고 百濟를 支援하는 倭의 勢力을 半島로부터 驅逐한 經緯를 具體的으로 전한 것이다. 그리고 그 勳績은 碑文의 第二節에 一括하여 敘述되었다.

## ( 二 )

廣開土王碑文은 王의 銘記勳籍으로서 먼저 永樂五年 乙未(三九五)의 鹽水上의 戰役부터 起筆하였다. 즉, 順序로 말하면 그보다 五年前인 三九一年의 「倭以辛卯年來……」의 部分이 앞으로 와야만 한다.

永樂五年歲在乙未王以碑麗□□□□躬率住討回富山負山至鹽水上 破其三部落六七磻當牛馬群羊不可稱數於是旋駕因過??平道來□□力 城北豐五彳 猶遊觀土境田??而還

이와 같이 먼저 永樂五年의 鹽水上의 戰役부터 起筆한 것은 百殘(濟), 新羅, 倭에 관한 事項을 함께 一括하여 묶기 위한 便宜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事項들이 다음과 같이 一括되어 第二節의 中心部가 形成되었다.

百殘新羅舊是屬民由來朝貢而倭以辛卯年來渡海破

이것이 問題가 많은 辛卯年의 記事이다. 이 部分은 우선

① 百殘新羅舊是屬民由來朝貢

이라는 前文과

② 而倭以辛卯年來渡海破

라는 後文에 의하여 成立되었다. 그리고 前文과 後文이 「而」에 의하여 接續되었다.

前文에 보이는 「屬民」이라는 것이 問題가 되지만 역시 이것은 「朝貢」이라는 것과 關聯이 있는 것으로서 高句麗側에서 主張하는 高句麗와 百濟, 新羅의 特殊한 關係를 말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즉, 百濟와 新羅가 예부터 高句麗에 朝貢한 屬民이라는 高句麗의 주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要컨대 前揭 辛卯年의 記事는 前文과 後文에 의하여 成立하고 前文과 後文이 「而」에 의하여 接續되어 있다. 그리고 前文에 있어서의 「屬民」을 이와 같이 解釋하면 後文인

而倭以辛卯年來渡海破

의 部分은 高句麗의 屬民으로서 예부터 朝貢한 百濟와 新羅였지만 辛卯년에 倭가 來攻하였기 때문에 王이 친히 (躬) 바다를 건너가 倭를 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이 辛卯年의 記事에 대하여는 뒤에서 되풀이 說明이 있겠지만 이 部分의 後文의 具體的 事項인

而倭以辛卯年來渡海破

는

而倭以辛卯年來(王躬率)渡海破(倭)  
의 省略으로 보인다.

그리고 後文의 「而倭以辛卯年來」의 部分에서 注目되는 것은 「辛卯년에 倭가 왔다」는 것 뿐으로 그 以上の 倭의 活動에 대한 言及이 없는 일이다. 그 理由에 대하여는 뒤에 說明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이 辛卯年條前文의 「屬民」이라는 것은 碑文第二節全體에 通하는 前提가 되었다.

要컨대 이 部分의 後文에서 具體的 事項으로 敍述된 「而倭以辛卯年來渡海破」는 「而倭以辛卯年來(王躬率)渡海破」의 省略으로 보아야만 한다. 그리고 「渡海」에 대한 主語는 「王躬」「王躬率」이며 이 主語가 省略된 것은 앞서 五年 鹽水上條의 「躬率住討」, 뒤에 계속되는 六年丙申條의 「王躬率水軍」 등, 같은 主語가 셋이 連續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省略되어야 할 省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永樂五年歲乙未王以碑麗□□□□躬率<sup>\* \*</sup>住討回富山負山……. 百殘新羅舊是屬民由來朝貢而倭以辛卯年來[王躬率<sup>\* \* \*</sup>]渡海破[倭<sup>\*</sup>]. 百殘□□□羅以爲臣民以六年丙申王躬率<sup>○ ○ ○</sup>水軍討伐殘國軍□□…… ( \* \*  
\* 省略된 경우를 표시함)

그리고 辛卯年條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 百濟와 新羅는 옛부터 高句麗의 屬民을서 朝貢하여 왔다. 그렇거늘 倭가 辛卯來에 來攻하였기 때문에 王은 親히 (水軍) 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가 倭를 擊破하였다 )

### ( 三 )

다음에 六年丙申의 百濟討伐에 대하여 碑文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百殘□□□羅以爲臣民以六年丙申王躬率水軍討伐殘國軍□□首攻取  
壹八城白模盧城若模盧城幹弓利□□□城……百殘王困逼獻出男女生  
口一千人細布千匹歸王自誓從今以後永爲奴客太王恩赦□迷之愆錄其  
後順之誠於是□五十八城村七百將殘王弟並大臣十人旋師還都

이 六年丙申條도 또한

(1) 百殘□□□羅以爲臣民

이라는 前文과

(2) 以六年丙申王躬率水軍討……

이라는 後文에 의하여 成立하였다. 그리하여 前文과 後文이 「以」  
로서 接續되었다.

먼저 前文의 「百殘□□□羅以爲臣民」에 있어서의 缺字三字가  
問題가 되지만 이것은 다음의 九年己亥條의 「論事九年己亥百殘違  
誓與倭和通……」에 비추어서 「百殘 倭 破 新 羅以爲臣民」으로 보  
아야 할 것이다. 즉, 百濟가 倭와 한 패가 되어 新羅를 쳐서 臣民  
으로 하였기 때문에 六年丙申에 廣開土王은 親히 水軍을 이끌고  
大的으로 百濟를 討伐하여 百濟王에게 城下의 盟誓를 하게 하였  
다는 것이다.

이 경우 百濟와 倭가 쳐서 臣民으로 하였다는 新羅에 대하여는  
앞서의 辛卯年條前文에서의 高句麗의 屬民이라는 高句麗側의 主張  
또는 前提에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高句麗의 屬民인 新羅  
를 같은 高句麗의 屬民인 百濟가 倭와 한 패가 되어 쳐서 臣民으  
로 하였기 때문에 高句麗로서도 不得已 百濟를 討伐할 수 밖에 없  
었다 - 그래서 實際로 討伐하였다는 뜻이 될 것이다.

그리고 辛卯年條와 丙申年條를 다음과 같이 다시 써 본다. 그  
러면 辛卯年條의 「…渡海破」 다음의 「倭」는 省略되어야 할 것임  
이 더욱 確實히 들어 난다.

……而倭以辛卯年來 [ 王躬率 ] 渡海破 [ 倭 ] . 百殘 [ 倭 ] [ 破 ]  
[ 新 ] 羅以爲臣民以六年丙申……( \*는 省略된 경우를 표시함)

즉, 셋의 [倭]가 겹쳐서 나오기 때문에 主語가 된 둘의 [倭]는 쓰이고 動詞의 目的이 된 하나의 [倭]가 省略된 것이다.

#### ( 四 )

九年己亥와 十年庚子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碑文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論事九年己亥百殘違誓與倭和通王巡下平壤而新羅遣使白王云倭人滿其國境潰破城池以奴客爲民歸王請命太王恩後稱其忠□□遣使還告以□□十年庚子教遣步騎五萬住救新羅從男居城至新羅城倭滿其中官兵方至倭賊退一八字缺一來背急追至任那加羅從拔城城即歸服安羅人戍兵拔新羅城□城倭滿倭潰城六一十七字缺一九晝臣□來安羅人戍兵滿一五十三字缺一潰□□□□羅人戍兵昔新羅□錦未有身來朝一十七字缺一土境好太一九字缺一僕勾□□□□朝貢

이러한 九年己亥와 十年庚子條도 또한 「百殘違誓與倭和通」이라는 前文과 九年과 十年 특히 十年의 任那加羅討伐에 관한 後文으로 成立하였다.

이 경우의 前文 「百殘違誓與倭和通」의 句에 의하여 六年丙申에 高句麗는 百濟에게 城下의 盟誓를 시키는 한편 倭와의 斷交를 強制하였고 百濟는 이 強制에 屈하여 倭와의 斷交를 盟誓한 바를 알 수 있다. 그러나 倭도 百濟에게 修好를 強制하고 百濟는 이 強制에도 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뒤에 言及이 있겠지만 阿莘王이 太子腆支를 質로서 倭에 보내게 된 것은 이 즈음이다. 百濟本紀의 阿莘王六年丁酉는 實際로는 阿莘王五年丙申( 三九六 )이기 때문이다.

碑文六年丙申條가 전하는 高句麗의 百濟討伐에 報復하듯이 九年己亥條는 倭人이 新羅에 侵入한 것을 전하고 있다. 碑文은 倭人이

新羅의 國境에 가득히 集結하였을 뿐 아니라 新羅에 侵入하여 城池를 潰破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十年 庚子에 廣開土王은 步騎 五萬을 新羅에 派遣하여 新羅에 侵入하였던 倭를 쫓아 任那加羅에 이르러 많은 城을 부수었다. 倭의 本據로 보이는 任那加羅方面의 討伐이다.

要컨대 十年庚子條가 전하는 것은 百濟가 先年の 盟誓를 違反하고 倭의 뒤를 밀고 그 倭는 또한 高句麗의 屬民인 新羅에 侵入하여 破壞와 掠奪을 자행했기 때문에 倭를 討伐하고 新羅를 保護하였다는 뜻이다. 또한 高句麗에서 五萬의 步騎를 派遣하였다는 것은 新羅에 侵入하였던 倭의 兵力이 一萬이나 二萬이 아니라 그 以上 單位의 大軍이었음을 示唆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五 )

十四年甲辰에는 이 倭는 半島 깊숙이 帶方界에 侵入하였다.

十四年甲辰□倭不軌侵入帶方界□□□□石城□連船□□□□□□□□  
□□□平穰□□□□相遇王幢要截盪刻倭寇潰敗斬煞無數

이 十四年甲辰條도 「倭不軌侵入帶方界」라는 前文과 이에 대한 具體的 事項—廣開土王의 勳績記錄의 部分에 의하여 成立하였다. 즉, 十年庚子에 廣開土王의 高句麗步騎五萬에 任那加羅까지 討伐당한 倭는 十四年甲辰에 大舉 帶方界까지 侵入하였다. 그리하여 潰敗되어 無數히 斬殺 당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十七年丁未의 일로서 步騎五萬에 의한 討伐의 記事가 이어지지만 이 記事에는 缺字가 많아서 相對가 무엇인지 確實치 못하지만 이것은 高句麗 本紀廣開土王九年, 十一年, 十四年, 十五年, 十七年條에 每年의 일같이 전해진 對燕戰役의 하나를 전한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十四年甲辰( 四〇四 )의 帶方界에서의 敗戰後,

倭는 碑文에서 살아진 셈이 된다. 물론 碑文은 廣開土王의 薨年인 二十二年癸丑 (四一三)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倭와의 戰爭이 있었다면 碑文에 전해졌을 것이다. 碑文에는 高句麗本紀에서는 볼 수 없는 廿年庚戌의 東扶余征伐에 대한 記事도 보이기 때문이다.

## ( 六 )

日本에서는 傳統的으로 碑文의 「百殘新羅舊是屬民由來朝貢而倭以辛卯年來渡海破百殘□□□羅以爲臣民以六年丙申王躬率水軍討伐殘國軍□□首攻取壹八城……」의 部分을 解釋하기를 「倭는 辛卯년에 와서 바다를 건너 百殘 ( 百濟 ) (□□□의 缺字는 「任那新」으로 보고), 任那, 新羅를 破壞하여 臣民으로 하였다」고 하지만 이것은 다음과 같은 理由에 의하여 옳은 解釋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1) 碑文은 對百濟, 對倭, 對新羅關係를 記述하는데 그 敍法—作文法으로서 具體的 事項의 記述에 앞서 前文이 온다. 前文은 具體的 事項에 대한 名分論이라고 할 수 있는 部分이다. 즉, 碑文의 敍法은 名分論과 具體的勳績이 對句가 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의 解釋에서는 「而倭以辛卯年來渡海破」라고 한 具體的인 廣開土王의 勳績에 대한 名分論의 部分인 「百殘新羅舊是屬民由來朝貢」이 完全히 無視되고 看過되었다.

(2) 「倭以辛卯年來渡海破百殘□□□羅以爲臣民以六年丙申王躬率水軍」의 缺字三字를 任那, 新羅로 보고 全體를 앞서와 같이 解釋하면 廣開土王의 高句麗軍은 辛卯년에 百濟, 任那, 新羅를 破壞하여 臣民으로 한 倭하고는 싸우지 않고 도리어 倭에게 破하여 臣民이 된 百濟를 六年丙申에 大的으로 討伐한 셈이 된다. 碑文의 敍法—作文法으로 보아서도 역시 그래서는 名分上 결코 碑를 세워 後世에 傳示할 銘記勳績(於是立碑銘記勳績以示後世)일 수는

없는 것이다.

즉, 百濟, 新羅는 高句麗側에 의하면 舊屬民이다. 舊屬民인 百濟, 新羅를 倭가 擊破하여 臣民으로 하였는데 그 百濟를 高句麗가 大的으로 討伐하였다면 이것은 廣開土王의 銘記할 勳績이라고 할 수 없다. 碑文의 敍法—作文法은 그와 같이 무지한 것이 아닐 것이다.

最近의 일로서 一部에서 廣開土王碑文의 諸拓本을 比較 檢討한 結果로서 拓本에 僞字가 있을지도 모른다—따라서 現行碑文텍스트에 僞字가 있을지 모른다는 주장이 있어서 적잖이 세상을 놀라게 하였지만 拓本 그리고 碑文텍스트의 어느 字가 僞字이며 僞字로 보인다는 것일까. 이 問題에 대하여서는 現地 가까이를 故鄉으로 하며 過去에 몇차례 現地를 踏査하고 調査한 老史學者 金鍾武씨가 직접 「拓本僞造의 疑心없다」는 一文을 「朝鮮日報」에 發表하여 廣開土王碑文에 관한 한 拓本僞造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拓本에 그리고 碑文텍스트에 僞字가 있을지도 모른다— 특히 辛卯年條와 丙申年條에 僞字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결국은 拓本을 僞造한 것은 拓本을 처음으로 가져온 酒勾景明氏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碑文에 대한 不合理的 解釋으로부터 緣由한 不合理的 臆測이며 碑文研究의 未熟이 낳은 疑心일 것이다. 現行碑文텍스트에 僞字는 없고 무엇보다도 意識的인 僞字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한낱 解釋에 致命的인 缺陷이 있었던 것이다.

## ( 七 )

碑文에는 辛卯年의 倭의 來攻을 흡사히 偶然한 倭寇的인 來侵같이 敍述하였다. 그러나 辛卯年의 倭의 活動은 그와 같은 偶然한

倭寇적인 來侵의 하나가 아니라 이것은 廣開土王의 即位와 함께 開始된 高句麗軍에 의한 大規模의 百濟攻擊에 대한 百濟救援으로서의 倭의 活動으로 把握하여야 할 것이다.

廣開土王, 諱는 談德으로 故國壤王의 子이며 雄偉하고 倜儻의 志가 있었다. 故國壤王三年에 立太子하고 九年에 王이 薨(五月)하니 太子即位하였다. 秋七月, 南으로 百濟를 쳐서 十城을 빼앗고, 冬十月에는 百濟의 關彌城을 攻擊하여 陷落시켰다. 그 城은 四面이 峭絶하고 海水環繞 하니 王은 軍을 七道로 나누어 二十日을 攻擊하여 陷落시켰다.(廣開土王紀 即位年條)

廣開土王은 辛卯夏五月에 故國壤王을 이어 即位하자 秋七月에는 南으로 百濟를 쳐서 十城을 빼앗고 冬十月에는 百濟의 要衝인 關彌城을 攻擊하여 陷落시켰다. 물론 廣開土王의 即位年을 三九二年壬辰으로 한 三國史記이니 問題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우선 三國史記의 廣開土王即位年은 碑文에 의하여 三九一年辛卯로 是正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即位年의 是正과 함께 三國史記에 即位年에 있었던 일이라고 전한 秋七月과 冬十月의 百濟攻擊에 대한 諸記事도 三九二年壬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三九一年辛卯의 秋七月과 冬十月에 있었던 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高句麗本紀의 이러한 記事에 百濟本紀의 記事가 다음과 같이 對應하고 있다.

秋七月 高句麗의 談德(廣開土王)이 兵四萬을 이끌고 北鄙에 來攻하여 石峴 등 十餘城을 陷落시켰다. 王이 談德의 用兵에 能하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 阻止하지 못하여 漢水北의 많은 部落을 빼앗겼다. 冬十月, 高句麗가 關彌城을 攻擊하여 陷落시켰다.……(辰斯王八年條)

百濟本紀에 있어서의 辰斯王八年은 三九二年壬辰에 해당한다. 즉 高句麗本紀와 百濟本紀가 三九二年壬辰의 秋七月과 冬十月의 廣開

土王의 百濟攻擊이라 하여 呼應一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呼應一致는 廣開土王의 即位年이 事實的으로 三九二年壬辰이기 때문에 一致하고 呼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高句麗本紀의 編纂에 있어서 廣開土王의 即位年에 百濟本紀의 이 部分을 맞추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要컨대 三國史記廣開土王紀의 即位年三九二年壬辰을 碑文에 의하여 三九一年辛卯로 是正하고 秋七月과 冬十月의 記事도 各各 三九一年辛卯의 秋七月과 冬十月의 일로 是正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廣開土王은 三九一年辛卯五月에 薨去한 故國壤王을 이어서 即位하고 秋七月에는 百濟의 北鄙를 攻擊하여 石峴 등 十餘城을 陷落시키고 冬十月에는 百濟의 要衝인 關彌城을 攻擊하여 陷落시킨 것으로 되어 廣開土王은 即位하자 곧 百濟를 攻擊하기 시작하여 南下政策을 積極化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碑文에 의하면 이 辛卯年에 倭가 來攻하였다. 廣開土王碑文에 記錄된 것이니 이 辛卯年의 倭의 來攻은 廣開土王即位後에 있었던 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倭는 廣開土王이 親히 이끌고 바다를 건넌 高句麗軍에게 擊破된 것이다.

이와 같이 碑文辛卯年條 의 倭의 來攻이라는 것과 廣開土王即位年辛卯의 秋七月과 冬十月의 高句麗에 의한 百濟攻擊이라는 것을 聯關지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辛卯年의 倭의 活動은 偶然的인 倭寇的 來侵이 廣開土王의 即位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高句麗의 百濟攻擊에 대한 百濟救援을 위한 倭의 活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 後의 碑文六年丙申條, 九年己亥條, 十年庚子條 및 十四年甲辰條에 의하여 더욱 確實해 진다. 즉 碑文에 缺字가 많을 뿐 아니라 碑文自體의 解釋도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問題가 있지만 要는 廣開土王의 即位와 함께 開始된 高句麗의 積極的인 南下攻擊에 대한 가장 執拗하고 徹底的한 對抗勢力으로서 倭를 생각하여야 한다는 점만은 否定할 수 없는 것이다.

이 倭의 勢力은 碑文十四年甲辰의 帶方界에서의 敗戰後, 碑文에서 사라진다. 廣開土王碑文이 王의 「銘記勳績」이라고 하여도 그

勳績의 內容의 대부분은 廣開土王에 의한 倭의 半島로부터의 驅逐이 되는 것이다.

되풀이 되지만 辛卯年의 倭의 來攻을 廣開土王의 卽位와 함께 開始된 高句麗軍의 南下—百濟攻擊에 대한 百濟救援을 위한 活動으로 보면, 그리고 關彌城에 대한 「四面이 峭絶하고 海水가 環繞한다」는 記事, 또한 「軍을 七道로 나누어 攻擊하기 二十日에 陷落시키다」라는 記事, 거기에 碑文의 「辛卯年에 倭가 오다. 王이 親히 水軍을 이끌고 倭를 擊破하였다」는 諸記事로 보아서 碑文辛卯年의 倭의 活動은 關彌城救援을 위한 活動이었다는 것이 거의 疑心할 바 없이 確實해 지는 것이다.

요컨대 이 경우의 倭의 對應의 敏速함이 注目되며 그와 함께 三九一年辛卯부터 四〇四年甲辰에 걸친 長期間의 對抗이 다시 注目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廣開土王碑文의 倭의 實態에 대하여 特別한 考慮를 要할 點임을 意味한다.

## ( 八 )

三國史記에 의하면 新羅는 다음과 같이 倭國에 質子를 보내고 高句麗에도 質子를 보냈다.

實聖王元年 (四〇二) 倭國과 修好하고 奈勿王子인 未斯欣을 質로 하다.

同 十一年 (四一二) 奈勿王子卜好를 高句麗에 質로 보내다.

百濟는 다음과 같이 倭國에 質子를 보냈다.

阿莘王六年 (三九七) 王은 倭國과 修好하고 太子인 腆支를 質로 하다.

이러한 年代에 대해서는 若干의 問題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新羅는 倭에 質子를 보내고 高句麗에도 質子를 보냈다. 그리고 百濟는 倭에 質子를 보냈다. 이런 것을 碑文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當

시의 倭는 百濟, 新羅를 與國으로 하여 高句麗의 南下를 막고 高句麗는 倭의 이러한 勳책을 부수고 百濟, 新羅를 與國으로 하여 倭를 孤立시키고자 한 바가 確實하여 진다.

碑文의 「百殘新羅舊是屬民」의 句에 高句麗의 이와 같은 立場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高句麗가 漢江以北의 舊帶方의 故地, 百濟國本據地인 한강유역을 占據하려는 野望을 버리지 않는 以上 百濟는 高句麗의 與國일 수는 없고 倭의 與國이 될 수 밖에 없다. 한편 倭로서도 洛東江以東으로 進出하려는 野望을 버리지 않는 한, 그리고 百濟가 北에서 喪失한 것을 南에서 補充하려는 한 新羅는 倭와 百濟의 與國일 수는 없고 高句麗의 與國일 수 밖에 없다.

高句麗의 이와 같은 南下政策은 廣開土王의 즉위와 함께 積極化하였다. 具體的으로 百濟北鄙의 攻擊占據이며 關彌城의 攻略이다.

광개토왕의 즉위와 함께 開始된 高句麗郡의 이와 같은 百濟侵攻은 名分論으로 말하면 百濟를 高句麗의 俗民이라고 한 高句麗側으로서는 명분이 설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碑文에 이와 같은 百濟北鄙의 攻擊과 關彌城攻略에 대하여는 省略되었다. 그 대신 碑文에는 倭의 來攻을 記錄하였다. 그러나 倭의 來攻이라고 하지만 高句麗가 百濟를 攻擊하였기 때문에 倭가 來攻한 것이기 때문에 碑文에 그와 같이 쓸 수 없고 더구나 倭가 百濟를 救援하러 왔기 때문에 그 倭를 擊破하였다고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廣開土王이 卽位한 辛卯年에 倭가 百濟는 물론 新羅를 攻擊한 것이 아니다. 되풀이 되지만 辛卯年에 百濟를 攻擊한 것은 高句麗다. 그렇기 때문에 碑文이 「而倭以辛卯年來渡海破」라고 극히 漠然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要컨대 辛卯年의 記事는 다음과 같이는 解釋할 수 없다.

倭以辛卯年來渡海破百殘□□□羅以爲臣民以六年丙申王躬率水軍討伐殘國□□首……

倭는 辛卯年에 와서 바다를 건너 百殘(百濟), (□□□의 缺字를 「任那新」으로 解釋하여) 任那, 新羅를 破하여 臣民으로

하였다.

첫째로 辛卯年에 百濟를 攻擊한 것은 분명히 高句麗다. 그리고 같은 辛卯年에 高句麗에게 北에서 攻擊당했던 百濟를 倭가 또한 南에서 攻擊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南에서 倭에게 攻擊을 받았던 百濟를 北에서 高句麗가 攻擊한 것도 아니다.

다음에 碑文의 敍法에서 「而倭辛卯年來渡海破」는 그 위의 「百殘新羅舊是屬民由來朝貢」과 對句가 된다. 그리고 「百殘□□□(=倭破新) 羅以爲臣民」는 그 다음의 「以六年丙申王躬率水軍討伐殘國軍…」의 部分과 對句가 되었기 때문이다.

즉, 辛卯年에 高句麗가 百濟를 攻擊하였기 때문에 倭가 來攻한 것이며 또한 高句麗가 百濟를 攻擊하였기 때문에 百濟와 倭는 高句麗의 與國인 新羅를 攻擊한 것이다. 그리고 百濟와 倭가 新羅를 쳐서 臣屬(碑文에서는 臣民이라고 하였다)시켰기 때문에 高句麗는 六年丙申에 百濟를 친 것이다. 그리고 碑文辛卯年條의 記事가 그토록 抽象的으로 된 것은 辛卯年의 高句麗의 百濟攻擊이 名分있는 것이 못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記錄한다면 碑文에서와 같이 「辛卯年에 倭가 來攻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擊破하였다」고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 ( 九 )

廣開土王碑文 第二節에 통하는 敍法上的 特徵은 以上の 檢討로서 알 수 있듯이 各段이 前文과 後文의 對句로서 成立하였다. 그리고 前文은 名分은 밝힌 部分이고 後文은 名分에 대한 具體的事項—廣開土王의 具體的인 勳績을 밝힌 部分이다. 이것을 알기 쉽게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 前 文 )

( 後 文 )

- (1) 百濟新羅舊是屬民由來朝貢 (1) 而倭以辛卯年來渡海破 (=而倭以辛卯年來 [ 王躬率 ] 渡海破 [ 倭 ]

- |  |   |
|--|---|
| <p>(2) 百殘□□□羅以爲臣民<br/>(=百殘 倭 破 新 羅<br/>以爲臣民</p>    | <p>(2) 以六年丙申王躬率水軍討伐殘國軍□□首攻取壹入城曰模盧城……百殘王困逼獻出男女生口一千人細布千匹歸王自誓從今以後永爲奴客</p>              |
| <p>(3) 論事九年己亥百殘違誓與倭和通…倭人滿其 [新羅] 國境潰破城池以奴客爲民歸王…</p> | <p>(3) 十年庚子教遣步騎五萬住救新羅從男居城至新羅城倭滿其中官兵方至倭賊退一八字缺一來背急追至任那加羅從拔城城即歸服安羅人戍兵拔新羅城□城倭滿倭潰城六一</p> |
| <p>(4) 十四年甲辰□倭不軌侵入帶方界□□一</p>                       | <p>(4) 一石城□連船一平穰一相遇王幢要截盪刻倭寇潰敗斬煞無數</p>   |

廣開土王碑文의 倭는 이와 같이 三九一年辛卯부터 四〇四年甲辰까지의 十四年間 廣開土王의 高句麗軍과 싸웠다. 그리고 특히 辛卯年에는 高句麗가 百濟를 攻擊하자 敏速하게 百濟救援을 위하여 高句麗軍에 對抗하였다.

이와 같은 廣開土王碑文의 倭의 활동을 대개가 大和國家의 出兵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大和國家의 出兵에 의한 任那地方의 占據, 그리고 다시 任那地方을 本據로 한 大和國家의 活躍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大和國家의 年代的 上限은 辛卯年三九一年에 미치는 것일까. 또한 미친다고 해도 그 大和國家는 十餘年에 걸쳐서 海外에 出兵하여 廣開土王의 高句麗軍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徹底的으로 對抗할 수 있는 軍事力을 가졌던 것일까.

大和地方부터 內海를 거쳐 九州에 이르고 다시 任那에서 帶方을 잇는 線은 十六世紀末 小銃을 앞세웠던 豊臣秀吉이 그의 一生에 軍隊를 움주긴 範圍에 거의 匹敵한다. 과연 三九一年辛卯에 廣開土王의 高句麗步騎에 의하여 百濟가 攻擊당하자 즉시 大和의 海外派兵으로서 이에 應하여 같은 辛卯年에 高句麗軍에 對抗할만한

軍事力을 가졌던 國家가 당시의 大和地方에 실지로 있었던 것일까. 그 뿐 아니라 四〇四年甲辰에 帶方界에서 潰滅한 後에 碑文에서 살아진 倭는 그 後 어떻게 된 것일까.

이와 같이 더 좀 具體的으로 생각해 보면 적어도 三九一年辛卯를 上限으로 한 大和國家의 實在問題에 대하여서도 그리고 그 軍事機構의 問題에 대하여서도 그리고 四〇四年甲辰後 碑文에서 사라진 倭의 行方의 問題에 대하여서도 무엇하나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즉 日本史의 問題이면서 韓國史의 問題이기도 한 廣開土王碑文의 倭의 實體에 대하여 무엇하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다.



V

廣開土王碑文과 日本國家의 起源



## 머 리 말

이것은 주로 同時代史料인 廣開土王碑文과 倭王武의 宋國王에게 보낸 上表文등을 土臺로 하여 日本國家－統一國家의 起源에 대하여 考察한 것이다. 즉 日本에 統一國家를 成立시킨 諸條件－그 勢力의 成立, 그 主役들, 그 年代에 대하여 考察하므로서 그 諸條件과 廣開土王碑文의 倭의 勢力과를 關聯시켜 廣開土王碑文의 倭의 實體把握을 試圖한 것이다.

要件대 廣開土王의 倭의 勢力이 五世紀初인 四〇四年末부터 四〇五年初에 南으로 바다를 건너가 日本에 統一國家를 創始한 것이니 소위 任那問題는 大和國家의 出兵에 의한 任那問題가 아니다. 反對로 大和國家의 發祥起源의 問題로서 새롭게 任那問題가 設定될 것이다. 日本에 처음으로 統一國家를 創始한 勢力은 南九州의 日向地方에서 간 것도 아니고, 北九州의 宇彌地方에서 간 것도 아니다. 물론 大和에서 自生한 것도 아니다. 任那方面에서 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主役은 應神과 履中の 兄弟이며 年代는 五世紀初인 四〇四年末에서 四〇五年初이다.

戰後에 日本學界에는 江上波夫氏의 騎馬民族征服王朝說이 發表되어 贊反으로 갈려서 크게 論爭이 있었던 것은 周知의 일이다. 그러나 그 學說의 根幹에 있어서는 크게 흠이 없지만 具體的인 問題로서 征服이 있었던 年代와 人物 등에 관하여 致命的인 弱點이 있어서 井上光貞氏를 爲始하여 小林行雄氏 등의 反論에 效果的으로 對應하지 못했다. 즉 征服이 있었던 年代를 四世紀初로 보고 征服者를 崇神으로 봄으로서 致命的인 弱點을 보였던 것이다. 이 小篇에서는 征服者를 崇神 대신 應神으로 보고 年代를 四世紀初 대신 五世紀初로 보았다. 그리하여 그 論爭을 止揚할 수 있었지만 그 주된 根據는 앞서 筆者가 밝힌 紀年論이었다. 이 小篇은 앞으로 있을 廣開土王碑文의 倭의 實體問題와 日本國家 起源의 問題에 대한 일단의 巨視的인 歷史的展望이 될 것이다.

( 一 )

廣開土王碑文 에 의하면 三九一年 辛卯부터 四〇四年 甲辰까지의 十四年間을 倭는 百濟를 與國으로 하여 高句麗 廣開土王의 南下政策에 執擁하게 對抗하고 徹底的으로 對抗하였다. 그리고 高句麗軍에게 潰滅되기는 했지만 이 倭는 四〇四年에는 半島 깊숙이 帶方界에 侵入하였다. 그 後 이 倭는 碑文에서 사라졌다.

그러면 廣開土王碑文의 倭에 대한 日本에서의 諸家の 解釋은 어떤 것일까. 戰前의 일은 덮어두고 戰後에 나온 意見으로서 注目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國內의 政治的統合에 成功한 大和朝廷은 이미 四世紀後半에는 바다를 건너 朝鮮半島에 進出하였다. 그리하여 半島南端의 任那諸國에 대한 植民地支配를 발판으로 하여 百濟와 同盟을 맺고 新羅를 치고 다시 北進하여 당시 半島北部에 커다란 勢力을 가졌던 高句麗와 對峙하였다. 三九一年에 日本軍은 高句麗를 攻擊하였다. 그러나 反擊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三九九年에 廣開土王이 이끈 高句麗軍은 百濟를 攻擊하고 다음해에는 新羅에 侵入하였다. 日本軍은 敗走하였다. 高句麗는 그 지음 狩獵과 陸田穀物の 栽培를 基礎로 한 國家였지만 騎馬隊를 中心으로 한 軍事力은 지극히 強大했다. 日本軍은 이러한 騎馬隊에 대하여 步兵中心의 軍事的編成인데 苦戰의 原因이 있었던 것이다. 日本에 騎馬의 風習이 採用된 背後에는 이와 같은 軍事上의 要求가 포함되어 있었다.

五世紀에 들어서면 各地의 有力한 古墳의 副葬品중에 馬具가 나타난다. 이러한 馬具는 金銅製의 裝飾具를 갖춘 優秀한 것으로 아마도 被葬者가 生前에 使用한 儀仗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副葬을 目的으로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재갈(轡) 따위 長期에 걸쳐서 使用하여 현저히 磨滅된 例도 있어 實用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馬具는 거의가 大陸·朝鮮으로부터의 輸入品이었다.

이것이 大體로 廣開土王碑文의 倭의 實體에 대한 代表的인 意見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意見에 의하면 四世紀末부터 五世紀初에 걸쳐서 大和地方에서 北九州經由 半島의 帶方界까지 十數年間을 三年 또는 四年 걸러 大規模로 派兵할 수 있을 정도로 強力한 軍事機構를 가졌던 「大和國家」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日本軍은 高句麗의 騎馬隊에 대하여 步兵中心의 軍事的編制인데 苦戰의 原因이 있었다」고 한다. 그와 같이 볼 수 있다면 말할 것이 없지만 과연 三九一年頃에 「大和國家」가 있었고 그 「大和國家」는 高句麗軍의 南下攻撃을 阻止하기 위하여 大體的으로 海外 派兵을 할 수 있는 軍事力을 갖추고 있었던 것일까. 즉 廣大한 範圍에 걸친 作戰에 不可缺의 諸條件을 갖춘 軍事機構를 가졌던 것일까.

註

(1) 門脇禎二 「教養人の日本史 I」(現代教養文庫).

## ( 二 )

戰後에 있어서 日本國家起源의 문제에 대한 研究中에서 가장 注目되는 것이 東京大學 名譽教授 江上波夫氏 의 「騎馬民族國家」(中公新書)와 東京大學 主任教授 井上光貞氏의 「日本國家の 起源」(岩波新書) 등일 것이다.

江上氏は 周知하는 바와 같이 그의 「騎馬民族國家」에서 日本國家의 起源을 ミマキイリヒコ, 즉 「崇神」에 두고, 「崇神」 즉 ミマキイリヒコ가 大陸北方系 騎馬民族出身으로서 三世紀初頃에 新銳의 武器와 馬匹을 가지고 比較的 短時日에 韓半島를 經由하여 南韓의 任那地方에 이르러 그곳을 根據로 하여 日本遠征을 시작해서 우선 九州의 築紫를 征服하였다. 그 後 古墳文化의 後期에 「崇神」朝의 「應神」이 大和를 征服하고 「大和朝廷」을 개시하였다

는 見解<sup>(1)</sup> 이다. 江上氏는 이와 같은 見解에 到達한 理由로서 다음의 여덟가지를 들었다.

① 前期古墳文化와 後期古墳文化가 各各 根本的으로 異質的인 점, ② 그 變化가 急激해서 그 사이에 自然的인 推移를 인정할 수 없는 점, ③ 一般的으로 農耕民族은 自己의 傳統的文化에 固執하는 傾向이 強하여 急激히 他國 또는 他民族의 異質的인 文化를 받아들여서 自己의 傳統的인 文化의 性格을 變革시키는 傾向이 극히 드물고 農耕民이었던 倭人の 경우도 같았다고 생각되는 점, ④ 日本의 後期古墳文化에 있어서의 大陸北方系騎馬民族文化複合體는 大陸과 半島의 그것과 完全히 共通的으로서 그 複合體의 어느 것이 部分的으로 또는 選擇的으로 日本에 收容되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는 점, 바꾸어 말하면 大陸北方系騎馬民族文化複合體가 一體로서 그대로 누군가에 의하여 日本에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解釋되는 점, ⑤ 彌生式文化 乃至 前期 古墳文化의 時代에 牛馬가 적었던 日本이 後期古墳文化의 時代가 되어 갑자기 馬匹을 飼育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馬匹만이 大陸에서 到來하고 사람은 오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아무래도 騎馬를 常習으로 한 民族으로 馬匹을 가진 多數의 사람들이 大陸에서 日本으로 渡來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不自然한 점, ⑥ 後期古墳文化가 王侯貴族·騎馬民族의 文化로서 그 弘布가 武力에 의한 日本의 征服·支配를 暗示해주는 점, ⑦ 後期古墳의 濃厚한 分布地域이 軍事的要地로 인정되는 곳이 많은 점, ⑧ 一般的으로 騎馬民族은 陸上에서의 征服活動만이 아니라 海上을 건너서도 征服欲을 滿足시키고자 한 例가 적지 않은 점(가령 아라브·노르만·蒙古의 例), 따라서 南朝鮮까지 騎馬民族의 征服活動이 波及된 경우에는 日本에의 侵入도 있을 수 있는 점 등등.<sup>(2)</sup>

大體로 以上の 여덟가지 理由에 의하여 나(=江上氏)는 前期古墳文化人은 倭人이 自主的인 立場에서 大陸에서 朝鮮半島를 經

由하여 直接 日本에 侵入하여 倭人을 征服・支配한 어느 有力한 騎馬民族이 있고 그 騎馬民族이 以上과 같은 大陸北方系 文化複合體를 帶同하고 와서 日本에 普及시킨 것으로 解釋하는 편이 더욱 自然스러운 일로 생각되는 것이다.

註

- (1) 江上派夫, 「騎馬民族國家」, 一八一 ~ 四項 參照.
- (2) 江上派夫. 「騎馬民族國家」, 一六九 ~ 七項 參照.

### ( 三 )

江上氏의 이와 같은 見解에 대한 井光貞氏의 批判은 다음과 같다.

ミマキイリヒコ 즉 崇神을 實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뿐 아니라 仲哀・神功까지도 實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實在한 것은 應神부터로 보고 있지만, 應神은 九州出自의 豪族出身일 뿐 아니라 「魏志」 倭人傳의 拘奴國과 關聯지을 見解까지도 成立의 可能性이 인정된다. 時代를 應神까지 내리면 古墳文化의 前期와 「後期」의 「冢」의 問題는 특별히 江上氏의 征服王朝說이 아니고도 說明할 수 있다.<sup>(1)</sup>

그리고 그 「冢」을 井上氏는 「四世紀 後半의 前後에 比較할 것이 없을 程度의 大規模의 朝鮮經營의 結果 多數의 歸化人이 日本에 土着한 바」<sup>(2)</sup>로서 說明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한 井上氏는 江上氏의 見解를 다음과 같이도 批判하였다.

그런데 崇神의 在位年代 (古事記崩年 干支研究에서의 三一八年

戊寅-筆者註)를 이렇게 정하고 이상한 점은 江上氏が 「後期」의 古墳을 形成한 것은 四世紀의 後半에서 五世紀의 前半이라고 한 점일 것이다. 「後期」文化의 出現時期를 그렇게 보는 것은 옳을 것이다. 그러나 崇神을 先頭로 한 騎馬民族侵入과 同時에 「後期」的 文化가 나타나야만 할 것이로되 事實은 一世紀 가깝거나 늦게 四世紀末에서 五世紀初에 「後期」文化가 出現하는 것은 무슨 理由에서일까.

이와 같은 自己矛盾에 關係해서 考古學者 小林行雄氏의 다음과 같은 騎馬民族說에 대한 反論은 興味있는 일이다. 小林氏에 의하면 倭人傳 (魏志)에 牛馬가 없다고 했지만 馬匹은 그 前부터 있었다. 그러나 乘馬의 風習은 더 늦어서 시작된 것 같다. 騎馬의 風習에 대한 始源을 考古學的으로 알아 보면 應神陵陪塚出土라고 하는 金鋼製鞍橋는 그 手法으로 보아 應神陵自體의 年代보다도 若干 時代가 나리는 것이다.

仁德陵出土의 馬形埴輪이 騎馬의 風習에 대한 가장 빠른 例가 아닐까.(中略) 이렇게 보면 應神·仁德 즉 四世紀末, 五世紀 前半以後, 소위 「後期」古墳時代부터 騎馬의 風習이 있기 시작한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 以前에 이 風習이 있었다는 證據는 없다. 江上氏에 의하면 四世紀初의 崇神이 征服者이니 前期古墳時代에도 騎馬의 風習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證據를 그 時代에 볼 수 없으니 이것이 江上氏의 致命的인 弱點이다.<sup>(3)</sup>

또한 井上氏는 「皇室系圖는 應神까지는 대체로 信用할 수 있지만 神功以前은 疑心스럽다는 것이 津田左右吉氏以來의 定設」<sup>(4)</sup> 이라고도 하였다.

이와 같은 井上氏와 小林氏의 反論에 대하여 江上氏는 다음과 같이 答하고 있다.

古墳과 出土品을 中心으로 해서 考察하면 거기에 東北亞細亞

系騎馬民族이 朝鮮半島經由로 日本에 侵入하여 騎馬民族 文化를 가지고 征服事業에 從事한 反映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日本에서의 統一國家의 成立과도 直接 結付되는 것임은 時期的인 一致 뿐 아니라 後期古墳의 早期것을 代表하는 것이 應神·人德陵인 것으로 보아서도 분명하다.

그러나 應神·仁德陵은 그 規模에 있어서 「피라미」을 凌駕하는 記念碑的인 大建造物로서 거기에는 當時 이미 絶對의 權力을 자랑하고 있던 大和朝廷의 嚴然한 存在와 日本에 있어서의 統一國家의 基礎의 確立이 明示되어 있어서 創業의 時期는 그로부터 상당히 以前에 經過한 바를 示唆하는 것이다.

그러면 創業의 時期는 自然히 古墳時代 前期로 遡及하여야 한다는 理論이 되는데, 그러면 古墳文化 前期에 騎馬民族의 日本列島侵入의 事實을 反映하는 考古學的事象을 인정할 수 있을까. 이것을 積極的으로 實證할만한 것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미쌍·링크」(系列上 빠진 要素)에 틀림 없는 것으로서 將來에 틀림 없이 찾을 수 있을 것을 나는 믿고<sup>(5)</sup> 있다.

江上氏は 古墳時代 前期에 騎馬民族의 日本列島侵入의 事實을 反映하는—지금으로서는 缺列上 빠진 要素로서의 이른 바 「미쌍·링크」를 將來에 틀림 없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그것은 거의 無理한 期待가 아닐까. 왜냐하면 井上氏が 계속해서 말하듯이 「江上設에 있어서는 高句麗의 南下, 百濟·新羅의 立國 등, 모두가 北方 騎馬民族의 征服過程의 一環으로 보고 있지만 高句麗가 樂浪郡을 滅亡시킨 것은 三一三年, 百濟의 統一은 肖古王 (= 近肖古王)의 時代, 新羅도 거의 같은 때였다. 日本의 征服도 또한 四世紀初」보다도 조금 내려서 四世紀中葉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點으로 보아서도 崇神이 아니라 應神을 初代로 보는 편이 合理的인 일 것」<sup>(6)</sup> 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註

- (1) 井上光貞 「日本國家の起源」 二〇一頁 및 二〇四~五頁 參照
- (2) 井上光貞 「日本國家の起源」 二〇一頁 및 二一〇頁.
- (3) 井上光貞 「日本國家の起源」 二〇二一~三頁.
- (4) 井上光貞 「日本國家の起源」 二〇四頁.
- (5) 江上波夫 「騎馬民族國家」 七一~二頁.
- (6) 井上光貞 「日本國家の起源」 二〇三~四頁.

## ( 四 )

그러면 以上과 같은 江上氏와 井上氏의 論爭은 어떻게 생각하여야 할 것인가.

첫째로, 이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上掲의 여덟가지의 有力한 理由를 들어서 大陸北方系 騎馬民族에 의한 日本征服과 大和國家의 樹立을 主張하는 江上氏로서는 古墳文化 後期の 開始와 年代를 같이 하는 應神을 바다를 南으로 건너서 北九州를 征服하고 이어서 大和를 平定하여 大和에 征服王朝를 創建한 최초의 天皇에 比定했을 것——比定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古事記와 日本書紀에 있어서 應神은 九州의 宇彌<sup>ウミ</sup> 또는 蛟田에서 출생하였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上掲 여덟가지의 理由를 들고 또한 應神이 年代的으로 古墳文化 後期の 開始와 一致한다면서도 應神이 九州出生이라는 古事記와 日本書紀의 傳承을 超克하지 못했다. 여기에 四世紀初頭の 崇神의 實在를 主張하게 된 主된 理由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古事記와 日本書紀의 傳承을 그대로 믿으면 崇神은 實在하고 應神은 九州出生에 들림 없다. 그러나 그 대신 古事記와 日本書紀에는 江上氏가 主張한 大陸北方系 騎馬民族의 日本列島侵入에 대한 傳承은 없다. 反對로 大和의 神功에 의한 新羅侵略의 傳承이 있다.

이와 같이 古事記와 日本書紀의 傳承은 完全히 江上氏의 主張하는 바와 反對다.

이것은 江上氏가 二者擇一의 가장 어려운 立場에 서 있음을 意味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應神을 九州出身이라고 한 古事記·日本書紀의 傳承을 擇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應神에 의한 大陸北方系 騎馬民族의 日本列島 征服을 擇하느냐의 擇一이다.

그러나 江上氏는 崇神의 實在를 主張함으로서 二者擇一 대신 二者를 동시에 擇할 수 있었지만 그것으로서 問題가 解決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小林行雄氏를 포함해서 井上光貞氏에 의한 앞서의 反論을 보아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江上氏는 應神이 九州出生이라는 古事記와 日本書紀의 傳承을 擇하는 대신 應神이 天神地祇에게 三韓을 받은 神聖胎兒로서 南으로 바다를 건넜다는 더욱 象徴的인 古事記와 日本書紀의 傳承을 擇하고, 應神이 年代的으로 大陸北方系 騎馬民族의 日本列島侵入의 時期와 一致한다는 自身の 智見을 發展시켜 가야만 했을 것이다.

## ( 五 )

江上氏의 說에 있어서의 強點으로서 井上氏가 지적한 점 — 즉, 「四世紀, 五世紀初以後, 소위 後期 古墳文化時代부터 騎馬의 風習이 行하여진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 以前에 그 風習이 行하여졌다는 證據는 없다」는 점은 이번에는 井上氏의 說의 弱點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井上氏도 지금으로서는 古事記와 日本書紀의 傳承에 의하여 應神을 九州의 宇彌<sup>ウミ</sup>에서 出生한 九州의 豪族出身이었다고 믿기 때문에 考古學에서 말하는 前期古墳文化和 後期 古墳文化의 朝鮮經營의 結果, 多數의 소위 歸化人의 土着」으로 說明하려는 無理를 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歷史事實로서 三世紀末까지는 魏와의 戰爭으로 一貫하고 三〇三年에는 玄菟郡, 三一三年에는 樂浪郡, 三一四年에는 帶方郡을 滅亡시킨 四世紀後半의 高句麗였다. 한편 百濟는 三六九年에 그와 같이 強大한 高句麗의 平壤城을 攻擊하여 故國原王이 戰死하게 하였다.

應神이 과연 井上氏が 말하는 바와 같이 騎馬의 風習을 알지 못했던 前期古墳期の 前期古墳文化人에 屬했던 九州의 豪族出身이었다면 三九〇年代의 大規模의 高句麗에 대한 挑戰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 理由는 前期古墳文化는 呪術的·祭祀的·平和的·東南亞細亞的, 소위 農耕民的인 特徵이 顯著하여 強力한 武力要素가 缺如하였기 때문이다.

井上氏は 應神은 「대체로 四世紀의 七〇~九〇年代에 在位했던 天皇으로 보인다」<sup>(1)</sup>고 하였다.

氏は 또한 「四世紀後半의 經營의 主人公은 實在한 天皇으로서 應神이었음이 확실하다. 大和朝廷은 이 天皇 때에 朝鮮半島에 발을 뻗어서 任那를 占領하고 新興의 百濟·新羅를 征壓하고 北方의 大國 高句麗에 肉追하는 강세를 보였다」고 하며 이어서 「朝鮮에서의 活動은 소상히 알 수 있는 反面 國內의 事情은 확실치 않다」<sup>(2)</sup>고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國內의 事情으로서 「應神·仁德, 즉 四世紀末, 五世紀全般以後, 소위 後期古墳의 時代부터 騎馬의 風習이 行하여진 바는 확실하지만 그 以前에 이 風習이 行하여졌다는 證據는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을 좀 분명히 하여보면 「四世紀에 遡及하는 馬具는 아직도 日本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sup>(3)</sup>는 것이다. 즉 井上氏が 말하는 應神의 在位年代인 四世紀의 七〇~九〇年代에도 日本國內에 騎馬의 風習이 行하여지고 있었다고 斷言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위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江上氏の 소위 「미짱·링크」라는 것도 將來에 나올 可望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四世紀에 遡及하는 廣大한 지역에 걸친 作戰에 不可缺한

本格的인 軍事力의 萌芽는 없었다—日本國內에는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倭는 三九一年辛卯부터 高句麗에 挑戰하고 있다.

한편 三國史記에 의하면 新羅와 倭의 攻防戰은 이미 奈勿王九年(三六四)에 시작되었다. 그 뿐이 아니다. 百濟의 近肖古王이 新羅의 奈勿王에 良馬二匹을 보낸 것은 三六八年이다. 近肖古王이 倭王 旨에 보낸 石上神宮所藏의 七支刀는 그 翌年(三六九)의 製作이다. 다음해에(三七一年) 近肖古王의 百濟軍은 高句麗의 平壤城을 攻擊하였다.

이런 것은 「時代를 應神 까지 내리면 江上氏가 最有力한 論據로 내세운 古墳文化前期와 古墳文化後期の 「캡」의 問題는 征服王朝說을 들고 나오지 않아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征服王朝說을 가지고 全體를 다시 볼 必要가 있는 것임을 示唆하는 것이다.

이 때 實年代가 확실치 않은 應神紀의 阿知吉師에 부쳐서 보낸 馬二匹이나 賢人王仁吉士의 貢上에 관한 傳承 등으로 江上氏가 말하는 古墳文化前期와 後期の 「캡」을 메꿀 수 있으려니는 생각할 수 없고 더구나 四世紀에 遡及하는 騎馬의 風習이 없었다는 前提와 「大和朝廷은 應神 의 時代に 朝鮮半島에 발을 뻗쳐서 任那를 占領하고 百濟·新羅를 征壓하여 高句麗에 挑戰하였다」는 解釋사이에 넓게 벌어진 「캡」을 메꿀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또한 井上氏는 應神에 의한 「朝鮮出兵의 目的」이 「朝鮮南部의 鐵資源의 確保에 있었을 것」<sup>(4)</sup>이라고 하였지만 단순히 「朝鮮南部의 鐵資源의 確保를 위하여」 廣開土王碑文의 倭는 半島 깊숙이 帶方에 까지 擴戰하여 高句麗軍에게 「潰敗」되어 「無數」히 「斬殺」당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특히 井上氏는 應神을 四世紀의 七〇~九〇年代에 在位하였던 天皇으로 봄으로서 또는 應神을 九州出生이라고 한 古事記와 日本書紀의 傳承에 의하여 考古學에서 말하는 前期古墳文化和 後期古墳文化의 「캡」을 「四世紀 後半의 前後에 比較할 것이 없을 程度

의 大規模의 朝鮮經營의 結果 多數의 歸化人이 日本에 土着한 바」로서 說明하고 있지만 拙稿「日本上代紀年の 研究」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리고 다시 拙稿「三國史記上代紀年考略」에서 밝힌 바와 같이 應神은 四世紀의 七〇~九〇年代에 在位한 것이 아니라 五世紀 初부터 四三〇年頃까지 在位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日本에 있어서의 後期古墳文化의 始源이라는 應神陵은 四世紀의 九〇年代의 製作이 아니라 五世紀의 三〇年代의 製作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廣開土王碑文의 倭의 活動期인 三九一年 辛卯부터 四〇四年 甲辰까지는 四三〇年頃을 薨年으로 하는 應神의 在世期間 또는 在位期間의 前半期에 屬하며 後半期에 屬하는 것이 아니다. 즉 應神의 前半期에 廣開土王碑文의 倭의 活動이 있고 그 後半期에 日本國內에 後期古墳文化가 들어간 것이 거의 확실하다. 要컨대 江上氏가 말하는 「미짱·링크」는 생각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江上氏가 말하는 「미짱·링크」를 생각할 必要가 없다는 것은 日本國內에서 後期古墳文化가 開始되는 年代는 廣開土王碑文에서 倭가 사라진 年代—四〇四年 甲辰에 一致하는 것 같다는 뜻이다.

한편 應神이 九州의 宇彌에서 出生했기 때문에 그 곳을 宇彌라고 하였다는 古事記와 日本書紀의 地名起源傳承만에 의하여 應神을 九州出生이라고 하지만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應神은 天神地祇에게 三韓을 받은 神聖太兒로서 南으로 바다를 건너 日本으로 갔다는 것도 역시 古事記와 日本書紀의 傳承이다. 要컨대 古事記와 日本書紀의 傳承에 의하여 應神이 九州出生이라고 決定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征服國家論을 基礎로 하여 日本의 國家起原의 問題를 追求한 江上氏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충분히 吟味하여야 할 價値 있는 見解같이 보인다.

또한 한편으로는 당시 畿內를 中心으로 한 日本國家의 建設事業이 거의 一段落되고 그 餘力으로 朝鮮半島에 進出하게 되어 그 結果로서 朝鮮半島에 까지 波及되었던 東北亞細亞系統 文化의 大

規模적인 日本輸入을 促進하게 된 것이라는 解釋도 있지만 나(= 江上氏)로서는 그와 같은 說에도 承服하기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大和朝廷의 日本과 朝鮮南部가 무엇인가 特別한 關係가 없는 한 당시의 大和朝廷이 朝鮮南部의 征服活動을 할 必然性이 充分히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一般的으로 農耕民族이 海外로 征服活動을 하는 例는 극히 드물 뿐아니라 前期古墳文化의 內容으로 보아서도 前期古墳文化人들이 征服活動을 하기 위한 武力的인 要素가 缺如되어 있었으니 그와 같은 前期古墳文化人들이 이미 東北亞細亞系統의 騎馬民族文化를 가지고 高度로 武裝하고 있었던 朝鮮에 進出하여 征服活動에 成功하고 騎馬民族文化를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은 분명히 歷史의 通則에 反對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5)</sup>

이것을 좀더 具體的으로 말하여 보면 廣開土王碑文에서 倭가 사라진 四〇四年頃까지—즉 應神의 前半期까지 日本國內는 前期古墳文化期에 屬했기 때문에 征服活動을 하기 위한 武力的要素가 缺如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應神의 在位期間이 四世紀의 七〇~九〇年代가 아니라 五世紀初부터 三〇年頃까지 이기 때문에 井上光貞氏의 主張은 成立할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하다.

#### 註

- (1) 井上光貞 「日本國家の起源」 一二四頁.
- (2) 井上光貞 「日本國家の起源」 一一八頁.
- (3) 「シンポジウム・日本國家の起源」(藤間生大)「倭의五王」一九頁에서 移記.
- (4) 井上光貞 「日本國家の起源」 二一八頁.
- (5) 江上波夫 「騎馬民族國家」 一六八 ~九頁 參照.

( 六 )

廣開土王碑文에서 볼 수 있듯이 倭는 四〇〇년에 廣開土王의 步騎五萬에 本據地인 任那·加羅地方까지 討伐당했고 이어서 四〇四年에는 帶方界에서 潰敗한 後 碑文에서 사라졌다.

碑文에서 사라진 四〇四年부터 十年後인 四一三年에 倭王은 東普에 貢獻하였다 (「普書」 安帝紀). 梁書에 의하면 이것은 倭王 讚에 의한 貢獻이다. 그리고 四二一年에 倭王 讚은 宋朝에 의하여 除授되고 이어서 四二五年에 遣使하여 方物을 獻上하였다. 그리고 四三〇年頃에 讚이 薨하고 그 해에 弟의 珍이 卽位하고 方物을 獻上하였다.

高祖永初三年 詔曰, 倭讚萬里修貢, 遠誠宜甄, 可賜除授.

太祖元嘉二年 讚又遣司馬曹達奉表獻方物(「宋書」倭國傳).

여기서 注目되는 것은 讚의 뒤를 이은 珍이 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將軍·倭國王을 稱하여 上表文을 내고 上記와 같은 官職을 要求한 일이다.

讚死弟珍立 遣使貢獻。自稱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將軍·倭國王, 表求除正 (「宋書」 倭國傳).

이에 대하여 더욱 注目되는 바는 宋의 文帝가 다른 官職은 모두 攄아버리고 安東將軍·倭國王이라는 官職만을 任命한 일이다.

除安東將軍·倭國王 (「宋書」 倭國傳)

珍이 이와 같이 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를

自稱하고 그와 같은 官職을 要求한데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로 解釋이 있는듯 하지만 이것은 우선 讚과 珍이 前에 一時 半島南部에서 活躍했던—말하자면 廣開土王碑文의 倭의 勢力이었다는 歷史上의 事實을 根據로 해서의 이와 같은 官職의 要求같이 보인다.

그리고 宋의 文帝가 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五國諸軍事를 깎아 버리고 安東將軍·倭國王의 官職만을 除授한 것은 讚과 珍이 四〇四年後 廣開土王碑文에서 사라진 過去의 倭-당시로서는 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과 直接的인 關係가 없는 것을 意味하는 것도 같다. 珍이 이와 같은 官職을 要求한 것은 宋朝에 대하여 또는 國內의 諸倭에 대하여 그들이 前에 一時 半島南部에서 活躍하고 있었던 倭의 勢力이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도 생각된다.

이러한 珍의 官職要請에 보이는 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은 다시 倭王武가 宋朝에 올린 上表文에 「海北九十五國」으로 나타난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도 讚과 珍을 廣開土王碑文의 倭로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新羅와 百濟는 倭에 質子를 보낸 일이 있었다.

또한 珍의 時代가 되어 正式으로 「倭國王」의 稱號가 붙게 된 것은 注目하여야 할 일이다. 그 前까지는 「倭讚」 「讚」으로 불리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서 言及하였지만 「梁書」에 의하면 東普의 安帝時代( 四一三 )에 倭王讚이 있었다.

우선 무엇보다도 倭王珍에 의한 이와같은 官職의 要請에서 또는 武의 上表文中의 「海北九十五國」이라는 句에서 그리고 이와같은 珍의 官職要請에 대한 宋朝의 措置에서 그들이 廣開土王碑文의 倭의 勢力일 뿐 아니라 四〇四年을 最後로 하여 碑文에서 사라진 倭의 勢力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점이 가장 重要한 일일 것이다.

그 위에 日本에 있어서의 後期古墳文化의 開始가 五世紀初이며 騎馬의 風習이 行하여진 것도 五世紀初부터다. 즉 日本에 있어서의 騎馬의 풍습을 先頭로 한 後期古墳文化의 시작은 年代的으로 廣開土王碑文에서 倭가 사라진 四〇四年頃부터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年代的으로 廣開土王碑文에서 倭가 사라진 四〇四年頃부터 처음으로 日本에 統一國家를 뒷받침할 수 있는 軍事機構의 編成이 可能하게 된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年代的으로 廣開土王碑文에서 四〇四年에 사라진 倭의 勢力에 의하여 西日本에서 東日本까지의 倭와 蝦夷가 征服. 再編制된 것을 意味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을 알기 쉽게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三一三年 高句麗가 樂浪郡을 滅亡시키다.

三六九年 百濟軍이 平壤城攻略하여 故 國原王이 戰死함.

四〇四年 廣開土王碑文에서 倭가 사라진다. 이 때부터 日本에 騎兵의 風習이 있게 된다. 後期古墳文化의 開始.

四三〇年 宋의 文帝로부터 正式으로 「倭國王」의 稱號를 받다.

大阪府의 應神陵이라고 하는 陵墓副葬의 金銅製의 안장(鞍橋)과 仁德陵이라고 하는 陵墓副葬의 眉庇가 붙은 金銅製의 甲冑, 三角板鋌留의 短甲·環頭大刀·馬鐸 등은 江上氏が 말하는 大陸北方系 騎馬民族의 系統의 것이며 또한 이러한 應神陵과 仁德陵이라는 陵墓의 築造年代는 廣開土王碑文에서 倭가 사라진 四〇四年以後인 四三〇年代이다. 따라서 앞서 問題가 되었던 前期古墳文化와 後期古墳文化의 「캡」의 問題는 年代的으로 四〇四年에 廣開土王碑文에서 사라진 倭의 勢力의 그 後의 行方의 問題가 되는 것이다.

四世紀初頭に 玄菟郡을 비롯하여 十年代에는 樂浪·帶方郡을 潰滅시킨 夫余=高句麗系의 騎馬民族文化가 그로부터 一世紀以內에 바다를 건너 日本에 普及된 것 같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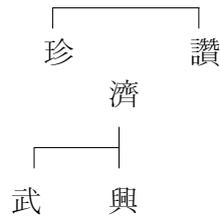
( 七 )

倭王武가 宋의 順帝昇明二年 ( 四七八 )에 올린 上表文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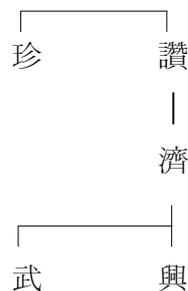
封國偏遠，作蕃于外，自昔祖禰，躬擐甲冑，陂涉山川，不遑寧處，東征毛人，五十五國，西服衆夷，六十六國，渡平海北，九十五國，王道融泰，廓土遐畿，…

이 上表文에서 첫째로 問題가 되는 것은 「親히 甲冑를 입고 山川을 跋涉 하여 寧處 에 틈이 없이 東에 毛人五十五國을 征服하고 西에 衆夷六十六國을 征服하고 바다 건너 海北九十五國을 平定한 「祖禰」가 具體的으로 누구냐는 점이고, 둘째로 問題가 되는 것은 「祖禰」의 征服平定事業이 과연 列舉된 順-東西南北의 順으로 行하여졌느냐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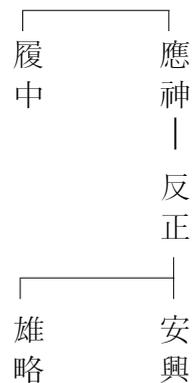
宋書에 의하여 그릴 수 있는 系圖는 다음과 같다.



筆者는 拙稿 「日本上代紀年の 研究」에서 이 系圖는



라는 系圖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王位가 讚에서 弟인 珍으로 건너 갔다가 다시 돌아와 讚의 子인 濟가 있고 濟의 다음은 者인 興이 있고 興의 다음은 弟인 武가 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王位가 소위 「倭의 五王」이며 그 系圖라고 하였지만 이 系圖는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는 系圖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系圖에 의하면 武 (=雄略)의 祖는 讚 (=應神)이며 珍 (=履中)은 傍孫의 祖 즉 傍祖이다. 또한 「禰」 (=考)는 濟 (=反正)이다. 결국 上表文을 올린 武 (=雄略)의 「祖禰」는 讚 (=應神) · 珍 (=履中) · 濟 (=反正)을 意味하는 것으로 解釋된다. 즉 應神 · 履中 · 反正에 의하여 平定事業이 實踐된 것이다.

다음에 問題되는 것은 平定事業이 行하여진 順序이지만 그것에 앞서 생각할 것은 東의 毛人과 西의 衆夷다. 井上光貞氏는 東의 毛人을 蝦夷에 比定하고<sup>(1)</sup> 江上波夫氏는 西의 衆夷를 諸倭에 比定하였다.<sup>(2)</sup> 역시 이러한 比定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上表文에서 平定事業은 東-西-南-北의 順序로 되어 있다.

東征毛人五十五國，西服六十六國，渡平海北九十五國。

이 順序에 의하면 먼저 大和地方의 勢力이 東의 遐夷를 征服하여 東日本과 西의 諸倭를 征服하여 西日本과 그리고는 바다를 北

으로 건너서 海北을 平定한 것으로 된다.

그러나 上表文에 의한 平定事業은 이와 같이 東-西-南-北의 順으로 되었지만 實際의 征服의 順은 이와 反對로 北→南→西→東의 順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東→西→南→北의 順으로 늘어놓은 것은 五十五·六十六·五十五 등의 數詞와 함께 당시 流行한 六朝 特有의 對位法에 맞는 文章을 만드는 便宜上 그렇게 한 것이며, 그리고 당시 大和地方에 있었던 사람들의 關心이 많은 것에서 적은 것의 順으로 늘어놓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應神이 분명히 大和地方의 出身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에 讚 (=應神)은 四三〇年頃에 薨하고 그의 弟인 珍 (=履中)은 四四三年頃에 薨하였다. 이것은 讚을 六十歲까지 살았다면 三九一年辛卯에 二十一歲, 四〇〇年庚子에 三十歲, 七十歲까지 살았다면 三九一年辛卯에 三十一歲, 四〇〇年庚子에 四十歲인 셈이 되며 弟인 珍이 六十歲까지 살았다면 三九一年辛卯에 八歲, 四〇〇年庚子에 十七歲, 七十歲까지 살았다면 三九一年辛卯에 十八歲, 四〇〇年庚子에 二十七歲인 셈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廣開土王碑文의 倭와 關係있는 事件들은 우선 讚과 珍의 兄弟의 一生에 있었던 事件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濟 (=反正)의 薨年은 四六〇年頃에 比定되기 때문에 廣開土王碑文의 倭의 活動-海北에서의 活動과는 關係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廣開土王碑文의 倭의 活動(三九一~四〇四)이 讚의 在位또는 在世期間(四三〇年頃薨)의 前半期에 있었음과 함께 上表文의 「祖禰」를 具體적으로 讚·珍·濟로 보고 다시 上表文의 征服活動을 讚·珍·濟의 時代에 있었던 일이라고 할 경우 그 征服活動의 大體의 順序는 時間적으로 ① 讚의 前半期에 있어서의 海北에서의 活動, ② 그의 後半期와 珍의 前半期에 있어서의 西의 衆夷의 征服, ③ 珍의 後半期와 濟에 의한 毛人の 平定으로 되며 적어도 그 逆의 順序일 수는 없는 것이다.

上表文의 「祖禰」는 「親히 甲冑를 입고 山川을 跋涉」한 後期古墳文化人이었음이 확실하며 그 「祖禰」에 의하여 北九州부터

內海沿岸, 大和地方까지의 諸倭와 大和以來의 蝦夷가 平定되면서 征服王朝가 樹立된 바가 분명해 진다. 그리고 지금으로는 上表文의 「祖禰」로서 遡上할 수 있는 範圍는 讚·珍·濟의 三代三王이지만 그 중의 先頭인 讚의 在位 내지 在世期間의 前半期에 廣開土王碑文의 倭의 活動이 있었다. 그리고 또한 武의 上表文의 「海北九十五國」과 珍의 宋國에 대한 官職要請中の 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은 誇張은 있지만 같은 內容임이 분명하니 讚(珍을 포함해서)이 즉 廣開土王碑文의 倭의 勢力이었음이 더욱 더 분명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再三 言及한 바이지만 武가 上表文에서 高句麗에 대하여 「高句麗無道」「實忿寇? 塞天路」「壅此疆敵」등으로 말한 것도 武의 祖인 讚과 珍의 勢力이 廣開土王碑文의 倭로서 四〇〇년에 任那·加羅의 討伐, 이어서 四〇四年에 帶方系에서 潰敗後 碑文에서 사라진 勢力이었음을 推測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五世紀初에 騎馬의 風習을 비롯한 後期古墳文化가 開始되었다는 考古學에서의 知見을 尊重할 것이라 할 때, 武의 祖- 具體적으로 讚과 珍의 兄弟의 勢力이 四〇四年頃 南으로 바다를 건너 北九州에서 內海沿岸, 大和地方까지 征服하고 大和地方에 征服王朝를 樹立, 다시 大和以東의 蝦夷를 平定하면서 四三〇年頃에 正式으로 「倭國王」의 稱號를 받았다는 一連의 史實의 復元이 可能해 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讚과 珍의 大和地方으로 가는 「코스」가 江上氏가 말하는 大陸北方系騎馬民族文化複合體의 大和로 傳播해 들어간 「코스」임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 「코스」가 天神地祇에게 三韓을 받은 神聖胎兒로서 南으로 바다를 건너 北九州에서 誕生하여 大和로 들어 갔다는 古事記와 日本書紀의 傳承에서의 應神의 大和로 가는 「코스」이기도 하다.

註

- (1) 井上光貞, 「日本國家の起源」 一二八~九頁 參照.

(2) 江上波夫 「騎馬民族國家」 一九七頁 參照.

( 八 )

古事記와 日本書紀의 上代世系中에서 神武부터 開化까지의 소위 闕史九代는 百濟側의 소위 馬韓九代의 世系에 맞추기 위한 架上이었고 다시 崇神부터 神功까지의 世系는 百濟側의 溫祚부터 仇首까지의 世系에 맞추어 架上한 것임을 拙稿 「三國史記上代紀考略」에서 분명히 하였다.

또 한 拙稿 「日本上代紀年の研究」에서 崇神부터 시작되는 古事記崩年과 書記紀年の 成立에 대하여 분명히 하였다. 要컨대 이와 같은 諸篇에서 神武부터 神功까지의 世系, 그리고 應神부터 繼體까지의 世系中에서도 仁德·允恭·清寧·顯宗·仁賢·武烈은 實在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확실히 하였다.

崇神부터 神功까지의 世系는 그 歷代數와 年代에 있어서 溫祚부터 仇首까지의 世系에 對應하고 있다. 溫祚부터 仇首까지의 百濟世系가 믿기 어려운 것이라면 崇神부터 神功까지의 世系는 全然 믿을 수 없는 虛構다. 古事記와 日本書紀는 이 部分의 世系와 함께 大和武尊에 의한 蝦夷征伐(東), 景行에 의한 熊襲征伐(西) 神功에 의한 新羅征伐(海北)의 編年記事를 실고 있다.

이와 같은 主人公들은 모두가 大和에서 出發하고 있다. 그리고 「親히 甲冑를 입고 山川을 跋涉하여 寧處에 한가한 틈이 없었던 것」처럼 그려져 있다. 결국 이러한 一連의 編年記事는 武의 上表文을 土臺로 하여 虛構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武의 上表文은 四七九년에 編纂된 「宋書」에 실린 것이니 古事記와 日本書紀가 編纂된 八世紀初까지는 日本에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古事記와 日本書紀의 編纂에 있어서 「宋書」가 使用되었다는 것을 筆者는 이미 拙稿 「日本上代紀年の研究」에서 一部 示唆하였다.

日本에서는 大和武尊, 景行, 神功에 의한 征服活動들 各各 別個의 것으로 取扱하고 있지만 一連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神功紀의 新羅征伐은 有名하지만 이것 또한 大和武尊와 景行에 의한 征服活動의 이야기와 關聯이 없는 것이 아니다. 즉 大和武尊에 의한 東의 征伐, 景行에 의한 西의 征伐에 이어진 神功에 의한 海北-新羅의 征伐이다.

神功紀에는 百濟史書에 의한 것과 그에 準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對韓關係記事가 末松保和氏의 調査에 의하면 十一條가 있다고 한다.<sup>(1)</sup> 그러나 그에 대하여 百濟史書에 의하지 않은 것은 다음의 二條에 불과하다.

- ① 攝政前紀 ( 庚辰 ) 皇后가 新羅를 征伐하다.
- ② 五年( 乙酉 ) 新羅使人이 오다. 質子徵叱許智伐早 도망쳐 돌아간다.

末松氏는 위의 二條를 「日本の 古傳·古記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①은 日本の 古傳·古記에 의한 것이라느니 보다는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大和武尊, 景行에 의한 東의 征伐과 西의 征伐에 이은 海北의 征伐로서 역시 上表文을 土臺로 한 虛構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경우에 筆者가 注目하는 것은 「態襲」다. 이 「態襲」은 歷史時代가 되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態襲」는 實在했던 것이 아니라 上表文의 西의 衆夷 ( 諸倭 ) 대신 虛構해서 만든 名稱으로 보인다. 要컨대 「態襲」가 實在하였다는 確證은 없다.

神功自體는 확실히 「魏志」倭人傳에서 有名한 邪馬臺國의 女王 卑彌呼의 反映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點를 가진 것을 否定할 수 없다. 要컨대 卑彌呼의 反映이 神功이며 神功의 新羅征伐은 上表文의 反映이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神功攝政前期 ( 庚辰 )의 新羅征伐記事가 일본의 古傳·古記에 의한 것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② 五年(乙酉)新羅使人이 오다 ……」라는 記事를 新羅의 古傳·古記<sup>(2)</sup>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神功記에 실린 對韓關係 記事로서 日本의 記錄에 의한 것은 一條도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古事記와 日本書紀의 傳承에 있어서 應神은 天神地祇에게 三韓을 받은 神聖胎兒로서 南으로 바다를 건너 北九州에서 出生하여 大和地方으로 갔다.

應神의 大和地方으로 간 「코스」는 三韓→北九州→大和로서 앞서의 大和武尊·景行·神功등의 「코스」와는 反對가 된다. 그러나 日本에 있어서의 後期古墳文化의 大和地方으로의 傳播「코스」와는 年代와 함께 一致한다.

史實로서 讚(=應神)·診(=履中)의 勢力은 具體적으로 海北에서 北九州—大和를 征服平定한 勢力으로서 廣開土王碑文의 倭의 勢力이며 四〇年甲辰을 最後로 碑文에서 사라진 勢力으로 보인다. 되풀이 되지만 碑文에서 사라지기까지의 倭의 活動은 應神(=讚)의 在世 또는 在位期間의 前半期에 해당된다. 그리고 日本에 있어서의 騎馬의 風習을 先頭로 한 後期古墳文化의 開始는 年代的으로 碑文에서 倭가 사라진 年代와 一致한다.

이러한 史實과 앞서의 古事記와 日本書紀에 있어서의 應神의 出身에 關한 傳承을 比較해서 생각할 때 應神은 胎兒로서—天神地祇에 三韓을 받은 胎兒로서 南으로 바다를 건너 宇彌에서 誕生하여 大和로 갔다는 傳承은 神功紀와 關聯을 맺어 이어 내려가기 위하여 年代는 물론 狀況을 歪曲한 것으로 그 原形은 應神이 大和國家를 樹立할 王者로서 南으로 바다를 건너 北九州를 中繼地로 하여 大和로 갔다는 史實의 反映이라느니 보다는도 傳承以上の 史實이었다고 생각한다.

應神에 關한 이와 같은 史實과 史實의 反映으로서의 傳承에 대한 이와 같은 解釋은 上掲江上氏의 「前期古墳文化와 後期古墳文化가 서로 根本적으로 異質적인 점」, 「그 變化가 극히 急激해서 서로의 사이에 自然的인 推移를 인정할 수 없는 점」등 여러 가지의 理由와 密着하여 表裏一體가 되며 相互가 서로 補完하며 間然없이 들어맞는

것이다.

應神을 先頭로 한 騎馬民族의 一派에 의한 日本列島の 侵入과 征服이라는 江上氏의 想定은 應神을 先頭로 한 騎馬民族의 一派에 의한 日本列島の 侵入과 征服이라는 想定— 이라느니 보다 더욱 具體的으로 上表文에서와 같이 海北에서의 活動에 이은 西의 諸倭와 東의 毛人の 征服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年代는 五世紀初頭—廣開土王碑文에서 倭가 사라진 四〇四年頃이다.

註

- (1) 末松保和 「古事記崩年于支考」(「日本上代史管見」所收) 一三七~四〇頁 參照
- (2) 이에 應하는 것이 三國史記 訥祗王二年「王弟未斯欣自倭國逃還」과 三國遺事 卷第一 「奈勿王一作那密王 金堤上」인 것으로 보아 攝政前紀五年條의 記事를 「日本の 古傳・古記」에 의한 것이라고 決定할 수는 없다. 新羅側古記에서의 轉引인지도 모르겠다.

## ( 九 )

本稿에 冒頭に 引用한 門脇禎二氏의 廣開土王碑文의 高句麗軍과 倭軍에 대한 見解는 아마도 江上波夫氏의 騎馬民族에 의한 征服王朝說과 征服王朝說에 대한 小林行雄氏와 井上光貞氏들의 反論이있는 後에 나온 새로운 見解로 보인다.

이와 같은 見解—江上氏의 征服王朝說 以後에 나온—에서 우선 注目되는 것은 廣開土王碑文의 日本軍의 敗戰의 原因이 高句麗의 騎馬隊에 대하여 步兵中心의 軍事編制이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점이다.

이것은 四世紀에 遡上하는 大和朝廷의 實在를 믿고 그리고 騎馬의 風習을 몰랐던 大和朝廷에 의한 任那出兵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立場에서의 所論이지만 廣開土王碑文의 倭軍은 이미 騎馬隊를 中心으로 한 強力한 步騎編制를 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理由는 廣開土王碑文의 倭軍는 적어도 三九一年부터 四〇四年까지의 十餘年間 廣開土王의 高句麗軍의 南下攻擊에 대한 가장 執拗하고 強力한 主要對抗勢力이었음을 인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 위에 百濟軍은 三七一年에 平壤城을 攻擊하였다. 이 지음 이미 百濟軍은 騎馬隊를 中心한 步騎編制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廣開土王碑文에 있어서 倭는 분명히 百濟軍보다 優位일 뿐 아니라 效果的으로 高句麗軍에 對抗한 것을 인정하여야 할 여러 面이 있다. 要컨대 碑文의 倭軍은 이미 騎馬隊를 中心으로 한 強力한 步騎編制였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 그것이 騎馬의 風習을 몰랐던 前期古墳文化時代의 步兵中心의 軍隊編制였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결국 廣開土王碑文의 倭는 當時의 日本國內의 倭였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즉 大和地方에서 北九州經由로 멀리 帶方界까지 걸어온 前期古墳文化人일 수 없고 北九州에서 바다를 건너 帶方界까지 進出한 前期古墳文化人일 수도 없다.

碑文의 倭軍이 若戰한 것을 百濟의 弱體化에 反하여 新羅의 成長, 그리고 百濟北境인 帶方界에 미치지 어려웠던 倭軍의 攻擊力에 대하여 自在로 任那伽羅에 미쳤던 用兵의 天才인 廣開土王이 이끈 高句麗軍의 攻擊力 때문이었지 그 軍事編制가 騎馬隊 없는 步兵編制였기 때문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 碑文의 倭軍은 大和地方에서 또는 北九州에서 바다를 건너 온 倭가 아니라 역시 江上氏가 示唆한 바와 같이 四世紀末葉까지에 百濟의 支配勢力이 된 勢力과 前後하여—南下한 扶餘·高句麗系의 騎馬民族의 一派에 의한 拘邪地方의 倭人<sup>(1)</sup>의 征服, 그것을 根據로 하여 任那·安羅·加羅等洛東江流域의 舊弁辰諸國을 服屬시켜서 成立한 勢力으로 보인다.

이 倭의 名稱은 辰韓十二國의 하나인 斯盧에서 新羅의 稱號가 由來하고 馬韓五十金國의 하나인 佰濟에서 百濟의 稱號가 由來되듯이 拘邪地方의 倭人에 由來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舊弁辰사

람들이 外形과 習俗에 있어서 倭人과 닮은 데가 많다고 전하는 「魏志」의 記事도 參考가 될 것이다.<sup>(2)</sup> 그리고 廣開土王碑文에 보이는 「安羅人戍兵」이라는 것도 이에 準 하여 생각할 수 있을듯 하다.

拙稿「廣開土王碑文의 敍法과 解釋」에서 廣開土王은 三九一年辛卯五月에 即位하자 尙七月에는 百濟의 北鄙를 攻擊하여 石峴 등 十城을 陷落시키고 이어서 冬十月에는 百濟의 要衝인 關彌城을 攻擊하여 陷落시켰지만 이와 같은 高句麗軍의 南下 百濟攻擊에 있어서 百濟救援을 위한 碑文辛卯年條의 倭의 活動은 偶然的인 倭寇의 侵入이 辛卯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廣開土王의 即位와 함께 開始된 高句麗軍의 大舉南下攻擊에 대한 倭로서의 對應이다. 만일 그렇다면 그 敏速한 對應으로 보아서 辛卯年의 倭의 活動을 당시의 大和地方이나, 北九州地方의 倭의 活動으로는 보기 어렵다. 즉 多分히 前期古墳文化期에 屬했을 大和地方이나 北九州地方의 倭로서 辛卯年의 高句麗軍에 의한 百濟北鄙攻擊과 關彌城攻擊에 對抗하여야만 할 必然性 뿐 아니라 對抗할 수 있는 條件도 없다.

碑文의 倭는 三九一年辛卯부터 四〇四年甲辰까지 高句麗軍의 南下攻擊에 대한 執攏한 主要對抗勢力으로서 싸웠다. 이와 같은 高句麗의 南下는 南의 倭에게 死活의 問題였음을 意味한다. 四〇〇년에는 高句麗步騎에 의하여 本據地인 任那伽羅를 攻擊당하고 四〇四年에는 帶方界까지 進出했다가 潰敗하였다. 이와 같은 連續的인 敗戰이 倭의 南渡라는 劃期的인 事件을 惹起시킨 것으로 보인다.

要컨대 앞서 引用했던 武의 上表文에 보였던 「而高句麗無道」, 「實忿寇…」, 「申 (=伸)父兄之志」등의 文字는 단순한 修辭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始何間 廣開土王碑文은 廣開土王의 「銘記勳績」이다. 그리고 「銘記勳績」이라고 하지만 王의 勳績의 中心이 되는 것은 半島로부터 倭의 驅逐이었다. 이것은 否定할 수 없다.

이와같이 四〇四年頃까지의 倭의 本據地를 任那地方으로 생각할 때 碑文의 倭의 活動도 現實성을 갖을 뿐 아니라 神功紀등에 보이는 現存하지 않는 百濟史書로부터의 轉引記事도 現實성이 있는 記事로서

새롭게 檢討의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從來와 같은 大和國家의 出兵에 의한 任那領有의 問題대신 새로운 任那問題의 提示이다. 그리고 日本에 있어서의 前期古墳文化와 後期古墳文化의 「캡」은 이와 같은 史實에 의해서만 메꾸어지리라 하고 보아야 할 것이다.

四〇四年頃에 있었다고 생각되는 새로운 大和國家의 創始者들의 南渡東遷은 應神(=讚)이 指揮하고 皇弟珍(=後의 履中)이 補佐하였다고 생각한다. 이 船團은 北九州唯一의 大河인 遠賀川에 들렀을 것이다. 그러나 遠賀川은 예나 지금이나 淀川와는 比較가 안된다. 이것이 北九州를 버리고 東쪽의 좋은 나라 大和를 고른 理由일 것이다. 讚·珍·濟는 거기에 世界最大의 造山古墳을 만들었다. 征服者의 象徴이며 井上光貞氏가 만든 바와 같이 古代「天皇制」確立의 紀念碑이다.<sup>(3)</sup> 그리고 年代로 말하면 鴨綠江岸에 巨大한 廣開土王碑, 大王塚, 將軍塚보다 十年 또는 二十年 쯤 내려가는 것이다. 이런 것 모두가 五世紀의 東亞細亞人이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던 것으로서 副葬品에 있어서도 大部分 系統을 같이 한 것들일 것이다.<sup>(4)</sup>

石母田正氏의 「英雄時代」<sup>(5)</sup>의 展開라고 생각한다. 氏의 「英雄時代」는 年代를 五世紀로 하여야 할 것이다. 英雄은 應神·履中·反正이다. 「英雄時代」는 古事記와 日本書紀의 虛構된 이야기 속을 定處없이 遍歷하는 英雄들의 問題가 아니라 限없이 發刺한 事實의 問題이며 充實하고 緊張된 史實의 問題이다. 즉 「親히 甲冑을 입고 山河을 跋涉하며 寧處에 한가한 틈 없이 海北 九十五國, 衆夷六十六國, 毛人五十五國을 平定한 「英雄時代」이며 大和國家들 創建하고 大和에 世界最大의 造山古墳을 여러개 만든 「英雄時代」이다.

#### 註

- (1) 弁辰亦十二國……有弁辰拘邪國……倭人在帶方東南大海之中 依山島爲國舊百余國……從群至倭循海岸水行 歷韓國乍南乍東到其北岸拘邪韓國七千余里 始度一海千里 至對馬……

- (2) 弁辰變十二國……今弁辰韓人皆褊頭……男女近倭 亦文身……
- (3) 井上光貞 「日本國家の起源」二三〇～一頁 參照
- (4) 造山古墳의 所在地名으로서 古事記와 日本書紀가 전하는 裳伏, 百舌耳上原의 百舌( mo-su )와 古事記와 日本書紀의 劈頭의 天神産巢日의 産巢( mo-su )는 高句麗地方의 天神解慕漱( mo su )에 通한다.
- (5) 藤間生大 「倭の五王」一九〇～一頁 參照

本 圖書는 韓國文化藝術振興院으로부터 出版費 一部를 支援받아  
발간되었습니다.

## 鄉 土 史 料

---

1986年 11月 20日 印刷

1986년 11월 30일 發行

發行處：鳥 致 院 文 化 院

發行人：李 基 鳳

著 者：金 在 鵬

編輯人：鳥致院文化院事務局

印刷處：合 同 印 刷 社

조치원읍 신흥1동 94

T.2-6880번

---

非賣品